

연구보고 R493 / 2004. 12.

#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유 승 우      연 구 위 원  
박 경 철      초청연구원

**연구 담당**

|       |       |                                |
|-------|-------|--------------------------------|
| 유 승 우 | 연구 위원 |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6장, 제5장 2절 집필 |
| 박 경 철 | 초청연구원 | 제3장, 제4장, 제5장 1절 집필            |

## 머 리 말

---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를 특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지역축제는 우리 농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의 창구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많은 지역축제들은 지역의 전통성과 주제설정이 미흡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관 주도적 축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지역축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해당 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독특한 아이디어로 특색있는 축제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지역축제를 통한 바람직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규명한 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선도적인 3개 사례 지역축제(함평 나비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홍천 찰옥수수축제)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계기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에 관한 후속적인 연구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설문에 응해 주신 전국 138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담당자와 3개 사례 지역축제 군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را 드린다. 특히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해 주신 평창군 봉평면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쪼록 이 연구결과가 향후 지역축제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요 약

---

이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지역축제의 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지역축제 관련 통계자료 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이 수행되었다. 먼저 지역축제의 역사와 개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자료 등을 통해 파악했고,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지역축제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개최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 지역축제 중의 하나인 효석문화제의 봉평지역활성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봉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 분석을 위해 3곳의 사례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축제 담당공무원, 축제추진위원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와 현장조사도 아울러 실시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축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축제 역사와 개념, 역할과 기능을 파악했는데 축제의 기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경문화에 바탕을 둔 제천의식과 추수감사에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현재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전국의 555개 지역축제의 현황 자료와 30여 개의 문화관광축제 현황 자료를 이용해 지역축제의 지역

분포, 소재, 시기별 분포, 예산규모, 경제적 효과 규모, 관광객 방문 규모를 분석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생태환경축제를 대표하는 함평 나비축제,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평창 효석문화제, 농산물축제를 대표하는 홍천 찰옥수수축제 등 3곳의 사례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이들 지역축제의 개최 내력, 개최 과정,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등을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파악했다. 조사결과 함평 나비축제는 친환경적이면서 동심을 자극하는 이미지인 나비를 이용해 생태관광의 붐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소득창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축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 위주의 행사내용과 관주도의 행사 진행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효석문화제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이효석과 그의 문학작품의 대표 소재인 메밀꽃과 전원풍경의 복원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켰다. 하지만 효석문화제 역시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 메밀밭과 주위 경관의 훼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찰옥수수축제는 감소추세였던 찰옥수수를 홍천의 대표 농산물로 이미지화 했고 찰옥수수 판매 또한 촉진시켜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소규모 농산물축제가 안고 있는 축제의 공간문제, 농촌관광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들 사례 지역축제를 농촌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례 지역축제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은 농업·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축제의 선발과 육성,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시 지역축제의 개발과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욱이 이러한 근거는 2004년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을 포괄하

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내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도 향토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농림사업 부문에서도 지역축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및 육성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ABSTRACT

---

### A Study of the Impacts of Local Festivals on Revitalization of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ultimately aims at suggesting policies for developing local festivals. To this end, this analyses the effects of local festivals on local economies in terms of society, culture, economy, environment and regional images.

This study has adopted variou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of local festival data, and field and questionnaire surveys. First of all, it figured out the history and concept of local festival by reviewing the previous literature. The statistics on local festivals published by MCT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was also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overall situation of local festivals in Korea.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find out the outcomes, problems and the future plans of local festivals. As a cas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residents in Bongpyeong.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has analyzed the effect of Hyoseok cultural festival on the Bongpyeong economy. This study carried out fiel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and residents of the three case-study regions.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s. Firstly, from the literature review, it has found that the origin of rural festivals is the worship ceremony for the heaven and the celebration of harvesting. Secondly, the study has analysed the data on 555 local festivals and about 30 cultural tourism festivals. Thirdly,

case studies were conducted regarding Butterfly Festival in Hampyeong; Hyoseok Cultural Festival in Pyeongchang; and Corn Festival in Hongchon. The case studies reveal that the Butterfly Festival in Hampyeong has encouraged the eco-tourism with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and created various income sources, but there are problems as well, such as government-led operation and the formality exhibitions that are not exactly related to the meaning of the festival. In the case of Hyoseok Cultural Festival in Pyeongchang, it not only succeeded in bringing in tourists by putting on the front the famous writer, Hyo-seok Lee, but also improved the region as a center of regional culture. However, due to the success, Pyeongchang is under the pressure to conduct development that might destroy local landscape and the buckwheat fields, the background of the Hyo-seok Lee's novels. The Corn Festival in Hongchon has contributed to creating good images about Hongchon's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increasing the corn sale. Because of the small scale of the festival, it has caused conflicts over space and failed to boost rural tourism.

In conclusion, the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ies, and recommends the policies to support local festivals in order to develop rural economie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The legislation called 「special regulation on the improvement of farmers and fishermen's living and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mountainous and fishery regions」 in 2004 should be leveraged to provide support to local festivals.

Researchers: Seung-Woo Ryu and Kyong-Cheol Park  
E-mail address: sewryu@krei.re.kr  
kcpark@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지역축제의 이론적 고찰

1. 지역축제의 개념 ..... 9
2. 선행연구 검토 ..... 19

### 제3장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과 실태

1.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 ..... 27
2.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유형별 특성 ..... 32
3. 문화관광축제 현황과 실태 ..... 37
4.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실태 ..... 39

### 제4장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

1. 함평 나비축제 ..... 63
2. 평창 효석문화제 ..... 94
3. 홍천 찰옥수수축제 ..... 128
4. 사례 지역축제의 종합적인 평가 ..... 141

**제5장 사례 지역축제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사례 지역축제가 농촌지역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 146
- 2.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55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1**

부록: 설문조사표 ..... 167

참고 문헌 ..... 180

## 표 차 례

---

### 제1장

|                          |   |
|--------------------------|---|
| 표 1- 1. 설문조사 응답 결과 ..... | 6 |
|--------------------------|---|

### 제2장

|                               |    |
|-------------------------------|----|
| 표 2- 1. 시기별 지역축제의 개최 배경 ..... | 16 |
| 표 2- 2. 지역축제의 지역사회 영향 .....   | 25 |

### 제3장

|                                          |    |
|------------------------------------------|----|
| 표 3- 1.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개최 현황, 2003년 기준 ..... | 28 |
| 표 3- 2. 지역별 지역축제의 개최 시기 .....            | 29 |
| 표 3- 3. 지역별 지역축제 개최 시작 시기 .....          | 30 |
| 표 3- 4. 지역축제의 예산 규모, 2003년 기준 .....      | 31 |
| 표 3- 5. 지역축제의 방문객 수, 2003년 기준 .....      | 31 |
| 표 3- 6. 우리나라 축제의 유형 .....                | 32 |
| 표 3- 7. 지역축제의 유형별 구분(문화관광부 분류 기준) .....  | 34 |
| 표 3- 8. 지역축제의 소재 유형 .....                | 35 |
| 표 3- 9. 각 지역별 지역축제 소재 유형(농촌지역 축제) .....  | 36 |
| 표 3-10.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변화 추이 .....           | 37 |
| 표 3-11. 주요 문화관광축제의 방문객 증가 추이 .....       | 39 |
| 표 3-12. 국내 관광산업의 업종별 유발계수의 예(전국) .....   | 40 |
| 표 3-13. 주요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 .....            | 42 |
| 표 3-14. 최우수·우수 지역축제: 특산품 부문 .....        | 44 |
| 표 3-15. 최우수·우수 지역축제: 비특산품 부문 .....       | 44 |
| 표 3-16. 뽕헨 맥주축제 방문객의 지출 규모, 1999 .....   | 45 |

|         |                                 |    |
|---------|---------------------------------|----|
| 표 3-17. | 지역사회 애착도 구성요인 및 개념 .....        | 51 |
| 표 3-18. | 지역축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   | 56 |
| 표 3-19. | 지역축제를 통한 환경 및 농업이미지 개선 효과 ..... | 58 |
| 표 3-20. |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      | 60 |

#### 제4장

|         |                                     |     |
|---------|-------------------------------------|-----|
| 표 4- 1. | 함평군 인구 및 가구수 추이 .....               | 64  |
| 표 4- 2. | 함평 나비축제의 개최 연혁 .....                | 67  |
| 표 4- 3. | 함평 나비축제 행사장별 주요 프로그램 목록 .....       | 69  |
| 표 4- 4. | 함평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득 .....            | 72  |
| 표 4- 5. | 함평군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              | 72  |
| 표 4- 6. | 함평군친환경농업 사업 현황 .....                | 73  |
| 표 4- 7. | 친환경농업분야 지원 현황 .....                 | 75  |
| 표 4- 8. | 효석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 .....             | 104 |
| 표 4- 9. | 효석문화제 방문객 지역내 지출액 .....             | 106 |
| 표 4-10. | 효석문화제의 봉평지역 경제활성화 영향 .....          | 107 |
| 표 4-11. | 연도별 평창군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수 .....         | 110 |
| 표 4-12. | 효석문화제의 봉평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        | 112 |
| 표 4-13. | 평창군 전입인구 추이 .....                   | 113 |
| 표 4-14. | 효석문화제를 통한 봉평면 주민의 환경·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 | 123 |
| 표 4-15. | 메밀꽃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 .....               | 125 |
| 표 4-16. |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주요 행사 내용 .....           | 131 |
| 표 4-17. | 찰옥수수축제 추진 현황 .....                  | 132 |
| 표 4-18. | 홍천 옥수수의 파종면적 및 판매금액 .....           | 134 |
| 표 4-19. | 사례 지역축제의 주요 현황, 2004 .....          | 141 |
| 표 4-20. | 사례축제의 영역별 농촌지역활성화 영향 .....          | 143 |

**제5장**

- 표 5- 1. 지역축제담당자의 지역축제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 … 147
- 표 5- 2. 지역축제의 시·군 지역발전 추진에 대한 비중 …… 157
- 표 5- 3. 정부 부처별 지역축제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 현황… 159
- 표 5- 4. 새롭게 축제개발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 160

## 그 립 차 례

---

### 제1장

|                        |   |
|------------------------|---|
| 그림 1- 1. 연구의 흐름도 ..... | 8 |
|------------------------|---|

### 제2장

|                                       |    |
|---------------------------------------|----|
| 그림 2- 1. 지역축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        | 13 |
| 그림 2- 2. 축제의 기원과 변천 과정 .....          | 18 |
| 그림 2- 3.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효과 ..... | 24 |

### 제3장

|                                      |    |
|--------------------------------------|----|
| 그림 3- 1. 단계별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48 |
| 그림 3- 2. 보성군청 앞에 걸린 다향제 홍보 현수막 ..... | 58 |
| 그림 3- 3. 자연경관이 뛰어난 보성의 한 녹차밭 .....   | 58 |

### 제4장

|                                        |    |
|----------------------------------------|----|
| 그림 4- 1. 지역축제의 유형 분류와 사례 지역축제 선정 ..... | 63 |
| 그림 4- 2. 함평 나비철쭉산 .....                | 74 |
| 그림 4- 3. 함평천지 자운영들판 .....              | 74 |
| 그림 4- 4. 나비 생태관 입구 .....               | 78 |
| 그림 4- 5. 자연생태관 내부 .....                | 78 |
| 그림 4- 6. 나비표본전시관 내부 .....              | 79 |
| 그림 4- 7. 나비생태관내 나비 구경 .....            | 79 |
| 그림 4- 8. 함평 나비축제의 사회·문화적 효과 .....      | 85 |
| 그림 4- 9. 버스의 나비캐릭터 .....               | 89 |
| 그림 4-10. 대형 나비조형물 .....                | 89 |



|          |                                  |     |
|----------|----------------------------------|-----|
| 그림 4-11. | 나르다 상품점 1호점 .....                | 91  |
| 그림 4-12. | 행사장내 나르다 상품 판매점 .....            | 91  |
| 그림 4-13. | 효석문화제의 경제적 소득향상 효과 .....         | 108 |
| 그림 4-14. | 봉평지역 주민의 직업에 따른 효석문화제의 경제적 영향 .. | 109 |
| 그림 4-15. | 효석문화제 참여 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심 정도 ..   | 115 |
| 그림 4-16. | 달빛극장의 <책읽어주는 카페> .....           | 118 |
| 그림 4-17. | 무이예술관 조각작품들 .....                | 119 |
| 그림 4-18. | 무이예술관 건물 내부 .....                | 119 |
| 그림 4-19. | 무단진입으로 훼손된 메밀밭 .....             | 124 |
| 그림 4-20. | 꽃이 진 메밀밭 .....                   | 124 |
| 그림 4-21. | 메밀꽃과 메밀음식점 .....                 | 124 |
| 그림 4-22. |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지역사회 협력 체계 .....      | 136 |
| 그림 4-23. | 옥수수시험장 전경 .....                  | 137 |
| 그림 4-24. | 옥수수 선별 집하장 .....                 | 137 |

## 제5장

|          |                           |     |
|----------|---------------------------|-----|
| 그림 5- 1. | 얼음골사과발전위원회 조직화 과정 .....   | 149 |
| 그림 5- 2. | 효석문화제의 지역활성화 영향 흐름도 ..... | 152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와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를 특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역축제 또는 향토축제라 불리는 지방의 축제들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농경사회의 전래풍습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문화보존과 계승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의 전통문화에 근거하는 지역축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동질성 확인을 통한 일체감과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통로가 된다. 특히 농촌의 지역축제는 우리 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공식집계(2003년 말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지역축제는 총 555개이고 그 중 농촌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355개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제(洞祭) 등 소규모 축제까지 포함할 경우 1천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많은 지역축제들은 외형적인 발전은 있었을지 모르나 지역의 전통성은 물론이고 주제설정도 미흡하고 경쟁적인 축제개최로 지방자치단체간 축제의 충돌과 비차별화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관주도적 축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상업성으로 인한 지역의 정체성 상실, 내용과 프로그램이 졸속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지역축제 등 제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지역축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해당 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독특한 아이디어로 특색 있는 축제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즉,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 전북무주의 반딧불이축제 등이 자연환경이나 특산품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농촌 지역 축제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축제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며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지역축제의 행사내용과 관광객 수 추정을 통한 경제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반면에 사회·문화적 기술을 통해 구체적 수준에서 지역축제 추진의 실태, 활용자원과 형태, 지역문화와의 밀착성, 지역주민의 참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효과 등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내에서 파급되는 가치연쇄(value chain)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sup>1</sup> 여기서 농촌지역은 일반 군지역과 도농통합시를 말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농촌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실태 파악과 이들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전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축제 관련 통계자료와 연구 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지역축제를 선정해 사례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영향의 정도를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면밀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세 번째는 사례 지역축제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 연구 범위

#### 2.1.1. 전국 지역축제 현황 및 실태 분석

전국의 지역축제의 개최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집계되고 있는 전국 지역축제 현황 자료(2003)를 이용했다. 이 자료를 근거해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된 지역축제의 지역별, 시기별, 소재별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지원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자료(1999-2003)를 바탕으로 이들 축제들의 현황과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 2.1.2. 농촌지역 지역축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 영향 파악

현장에서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들은 지역축제의 실태와 영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지역축제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38개 지방자치단체(도농통합시 51개시, 일반 군지역 87개 군)의 지역축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2.1.3. 지역축제의 농촌지역활성화 조사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례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조사했다. 선정된 사례축제는 전남 함평 나비축제, 강원 평창 효석문화제, 강원 홍천 찰옥수수축제이다. 사례

지역축제의 선정 기준은 첫째, 농촌지역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농특산물이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축제, 특히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축제이고 둘째, 축제에 대한 주민참여가 높고 그 효과가 지역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축제이며 셋째, 축제 소재가 참신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이다.

이 연구에서 사례 축제로 선정된 세 개의 지역축제 이외에도 10여 개의 지역축제를 현지 조사해 연구에 활용했다.<sup>2</sup>

## 2.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 2.2.1. 관련문헌 조사

국내외 지역축제 관련 연구자료, 문화관광부 등에서 발표된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관련 정책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축제의 농촌지역활성화 영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논문 등을 참고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측정하는 변인과 방법 등을 파악했다.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측정 요인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지역이미지 개선 영향으로 대별했다.<sup>3</sup>

<sup>2</sup> 고창 청보리밭축제, 청도 소싸움축제, 청원 생명쌀유채꽃축제, 정읍 전 국민속투우축제, 보성 다향제, 밀양 얼음골사과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풍기 인삼축제, 정선 감자축제 등이다.

<sup>3</sup> 선행연구를 통한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영향 측정 변인 연구는 2장과 3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2.2.2. 사전 예비 조사

우리나라 지역축제 중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축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사전 조사는 관련 문헌 조사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10개 지역축제가 조사됐고 조사 방법으로는 주로 시·군청 문화관광 관련 부서의 지역축제 담당공무원, 해당지역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 담당 직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자료조사가 이용됐다.

### 2.2.3. 전국 시·군 지역축제 담당자(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각 시·군 지역축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축제의 운용형태와 지역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대상은 전국 138개 지방자치단체(도농통합시 51개 시, 일반군지역 87개 군)의 지역축제 담당자(1개 자자체 3명씩)이며 조사는 7월 19일부터 8월 31일에 이루어졌다.<sup>4</sup> 설문조사 내용과 조사결과 내용은 아래의 <표 1-1>와 같다. 설문은 빈도와 평균 분석을 실시했고 지역(도농통합시와 일반 군지역)에 따른 축제담당자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표 1-1. 설문조사 응답 결과

|     | 설문대상자 수 | 설문대상지역 |
|-----|---------|--------|
| 발송수 | 414     | 138    |
| 응답수 | 194     | 76     |
| 응답률 | 47%     | 55%    |

<sup>4</sup> 현지 방문조사는 평창 효석문화축제 6월 1회, 9월 2회, 함평 나비축제 4월 1회, 5월 2회, 9월 1회, 홍천 찰옥수수축제 5월 1회, 8월 1회로 이루어졌다.

#### 2.2.4. 사례 지역축제 조사

사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축제 세 곳을 선정하여 이들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역·환경이미지 개선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주로 사례 지역축제 개최 전후와 개최 시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지역축제의 진행 주체와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그리고 해당 지역축제 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조사로 이루어졌다.

#### 2.2.5. 지역주민 대상 지역축제의 농촌지역활성화 정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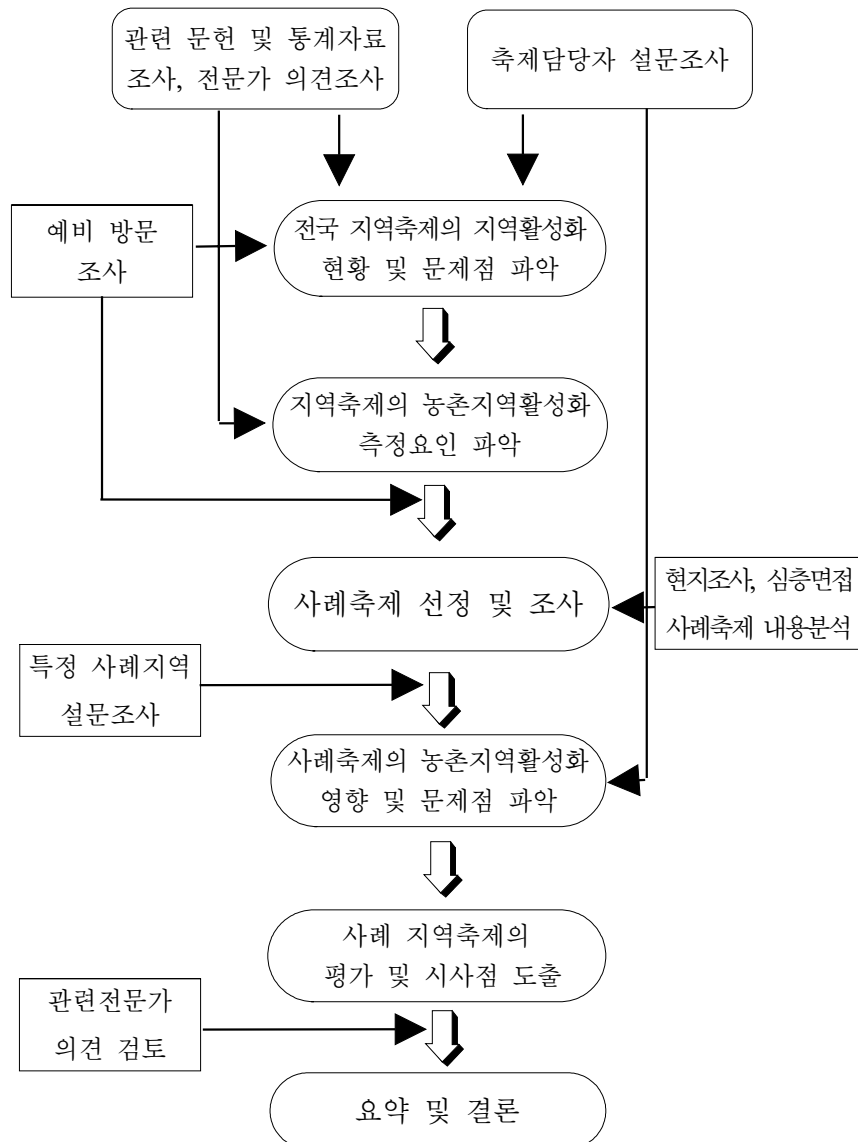
일정 지역내에서 지역축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효석문화제가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지역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축제 기간(9월 10-19일) 중인 9월 15-17일에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효석문화제가 봉평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지역이미지 개선 영향에 대한 내용이며 각각의 항목의 질문들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결과분석은 전체 항목에 대한 빈도, 평균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했고 지역내 주민의 직업에 따른 지역축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 지역축제의 이론적 고찰

### 1. 지역축제의 개념

#### 1.1. 축제의 개념

전통적으로 인류학에서 말하는 축제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으로 정의된다. 축제라는 글자에서도 나타나듯이 고대 사회를 비롯한 전통적 사회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은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류정아 2003). 특히 축제를 의미하는 ‘페스티발’은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이것은 축제의 뿌리는 종교 의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축제의 종교적 기원과 결부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축제의 의례성이다. 이것은 축제가 특정한 신화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행렬, 음악, 춤 등의 형식을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진 의례적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가(Johan, Huizinga)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오늘날 축제의 개념은 축제가 인간의 이성적 본능에 기초한 제의적, 의례적 활동이라는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인간은 원래 유희적 본성(Homo ludens)이 이성적 본성(Homo sapiens)을 앞서며 유희적 본성의 특징인 놀이하는 인간의 문화적 표현이 궁극적으로 축제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호이징가(Johan, Huizinga) 외에도 볼로우(O. F. Bollow)나 카이와(R. Caillois)와 같은 사람은 축제를 자유스러움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최고의 기회이자 장소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화요소라고 하였다(이정재 1998).

결국 위에서 설명한 축제의 두 개념을 종합해 보면 특정 지역주민들의 전통적으로 전해내려 온 제의적(祭儀的) 성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중심이 되어 개성과 전통을 함께 갖춘 놀이마당인 유희적(遊藝的) 성격을 띤 문화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5</sup>

## 1.2. 지역축제의 개념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축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의적이고 다기능적인 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축제가 다양한 영역과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그 본질적 의미는 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5</sup> 역사학에서도 흔히 축제를 두 개의 상이한 모델, 즉 뒤르켐(Dürkheim)적인 모델과 프로이트적인 모델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뒤르켐은 축제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형태”라고 규정한다. 즉 그에게 있어서 축제 개념은 제의(rite)와 동일하다. 그에 반해서 프로이드는 축제를 긍정성과 즉흥성, 디오니소스적인 부정과 인간 본능을 억압하는 것의 폐기, 해방을 향한 문화라고 본다. 즉 그에게 있어서 축제는 통합과 질서의 유지라기보다는 ‘금기의 위반, 과도함과 난장тки’가 본질이라는 것이다(류정아 2003).

‘지역축제’의 개념은 탈종교화, 탈지역화(도시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카오스적인 흐름에 맞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역내 지역의 동질성과 자립을 추구하는 문화적 활동을 총괄하는 의미로 전통적인 축제의 개념과는 대별되는 의미를 가진다.

지역축제를 종전에는 향토문화제, 향토(문화)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지금도 농촌지역에서 개최되는 고유한 축제를 향토축제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향토(문화)축제라는 용어가 고향이라는 낭만적인 선입견으로 인하여 고장중심의 이해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자기 고장중심의 향토문화는 지역간의 갈등과 지역감정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이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를 써야한다는 주장도 있어 요즘은 지역축제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한다(민병호 1998).

지역축제는 전통적 의미로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성속에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 또는 볼거리·먹거리·놀거리·배울거리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이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반의 행사”로 인식하여야 한다(정강환 2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지역축제는 ‘일년 중 어느 특정한 날과 기간을 정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이며, 일상적인 삶과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창조해 가는 생활양식화된 지역문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1.3. 지역축제의 주요 기능

지역축제의 주요 기능은 크게 제의성(祭儀性)을 통한 문화의 보전,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지역의 이미지나 브랜드의 강화,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산업 활성화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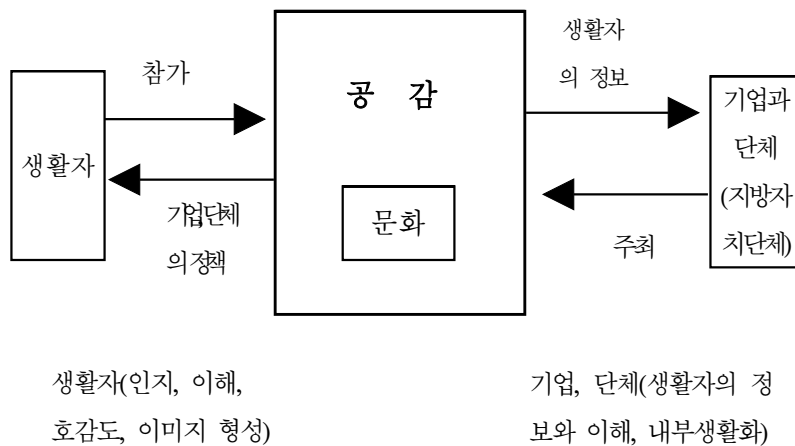
이 때문에 1970년대 70여 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행사로 선호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지역의 산업발전은 제조업의 발전, 관광단지의 개발 등 하드웨어 성격의 산업에 의존하였다. 그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증대되고 주민들의 자치마인드도 성숙됨에 따라 전통산업의 부활, 지역별 차별화전략, 신규산업개발, 지역축제 및 이벤트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진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장병권 2000). 이러한 점에서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경제적 이익추구, 지역 이미지의 형성, 지역 주민의 융합과 조정,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6</sup>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의 단합과 제의적(祭儀的)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역홍보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역문화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sup>6</sup>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축제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지역축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료: 민병호(1998).

그리고 1995년 이후 민선자치단체의 출현과 함께 지역축제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의의를 가지게 되는 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가장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그림 2-1>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축제는 제3의 미디어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념, 인지, 이해, 호감들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의 교감한다(민병호 1998)는 점은 현대 지역축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 1.4. 지역축제의 역사적 배경

### 1.4.1. 세계 축제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일반적으로 민중축제의 가장 대표적이면서 서구적 축제의 기원으로 카니발 축제가 언급되고 있다(류정아 2003). 카니발의 어원은 보통 세 가지로 전해지는데 첫째가 ‘carrus navalis’, 즉 ‘배 마차’라는 뜻이고, 둘째는 ‘고기를 걷어낸다’거나 또는 ‘고기를 삼켜버린다’의 합성어로 알려진 것이고, 세 번째는 ‘고기(carō)’로 ‘잔뜩 배를 불린다(valens)’라는 뜻이 있다. 철저한 금식과 금욕이 시작되는 사순절에 앞서 질편한 음식을 즐기면서 일상의 일시적인 일탈과 금기에 대한 해방을 만끽하는 시기인 사육제가 곧 서구축제의 역사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sup>7</sup>

이와 같이 카니발은 근본적으로 농업사회의 전형적인 축제이고 그 의식은 농업사회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모든 묵은 것과 그것들이 가져오는 악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김춘식, 남치호 2002).<sup>8</sup>

이후 카니발 축제는 17세기 이래 점차 약화되고 세속화의 길을 걸으며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등지에서 변형된 채 잔명을 유지해 왔다. 특히 19세기 말 과학적 독단론자들은 축제를 비합리적, 원시적, 비논리적 의례로 취하여 모멸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sup>7</sup> 보통 이 시기는 농촌사회에서 겨울이 지나가고 자연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봄의 도래를 맞이하는 2월 말이나 3월 초이다.

<sup>8</sup> 기독교적 축제로 전개되어 온 카니발이 로마의 새턴(saturn) 축제인 사투르날리아(saturnalia: 農神祭)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는데 이 농신제에는 카니발의 기본적 정신이라 할 일상관습으로부터의 일탈 및 과격한 행위가 잘 드러난다(조홍윤 1995).

래서 20세기에 들어서 약화된 형태와 소수의 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조홍윤 1995).

#### 1.4.2. 우리나라 축제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축제의 시작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대의 제천의례를 축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 축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 등은 고대 사회에서 연희되었던 제천의례 또는 제천의식이 축제의 기원이며 이 축제들은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종교의식으로서 일종의 추수감사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 축제의 시작이 농경사회의 정착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sup>9</sup> 이는 축제가 사회적 기능과 체제의 형성과 자연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종교내지 제천의식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sup>10</sup>

그 후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잘 계승되어 왔으나 일제시대

<sup>9</sup> 삼국지 위지동이전 마한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언제나 5월이면 파종을 마치고 신령께 굿을 올린다. 무리가 모여서는 노래하고 춤추고 술마시는데 밤낮으로 쉬이 없다. … 10월 농사가 끝난 뒤에도 그 같이 한다(常以五月種訖, 祭鬼神, 群集歌舞飲酒, 晝夜無休 …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sup>10</sup> 이와 같은 경우는 같은 문화권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통 일본의 축제 마츠리(祭り)는 본래 신화적 세계의 재현 혹은 신성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의해 신과의 공생을 연출하고 생명과 질서의 재생을 꾀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의 축제와 유사하다. 특히 마츠리는 인간의 종교적 심의에 뿌리를 둔 것으로 삶의 과정에서 ‘오곡풍양(五穀豐穰)’이나 ‘무병식재(無病息災)’에 대한 기원과 감사가 그 기본 정신이어서 우리나라 축제의 본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전통적인 문화활동들은 대부분 와해되어 사라졌다.

해방이후 점차 그 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인식이 증대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61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많은 지역축제가 발굴되었다(한을경 등 1998). 이를 계기로 당시 축제의 성장은 60, 70년대 약 20%대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 명목은 전통문화재의 재발견이라든지 인물, 역사적 발굴을 통해 향토문화 창달이라거나 전통풍속의 전승 등이었지만 실제로는 새마을사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발생한 종합축제로 군민화합을 중용한 정부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었다(이정재 1998).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축제의 성격의 지역의 문화성에서 경제성으로 변환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특히 <표 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특산물축제가 1980년대에는 전체 개최 시작수의 9.6%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 20%로 급증하였듯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축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표 2-1. 시기별 지역축제의 개최 배경

| 구분     | 농특산물      | 인물       | 자연동식물     | 지역전통      | 역사유적     | 자치단체날     | 기타        | 계            |
|--------|-----------|----------|-----------|-----------|----------|-----------|-----------|--------------|
| 1979이전 | 4(3.4)    | 14(11.9) | 9(7.6)    | 26(22.0)  | 16(13.6) | 42(35.6)  | 7(5.9)    | 118(100.0)   |
| 1980년대 | 19(9.6)   | 10(5.1)  | 24(12.2)  | 58(29.4)  | 5(2.5)   | 53(26.9)  | 28(14.2)  | 197(100.0)   |
| 1990년대 | 143(20.2) | 31(4.4)  | 139(19.7) | 159(22.5) | 37(5.2)  | 72(10.2)  | 126(17.8) | 707(100.0)   |
| 2000년대 | 31(20.0)  | 7(4.5)   | 37(23.9)  | 37(23.9)  | 13(8.4)  | 2(1.3)    | 43(27.7)  | 155(100.0)   |
| 전체     | 197(16.7) | 62(5.3)  | 194(16.5) | 280(23.8) | 71(6.0)  | 169(14.4) | 204(17.3) | 1,177(100.0) |

주 1) 수치는 해당 연대에 새롭게 시작한 축제수이며 ( )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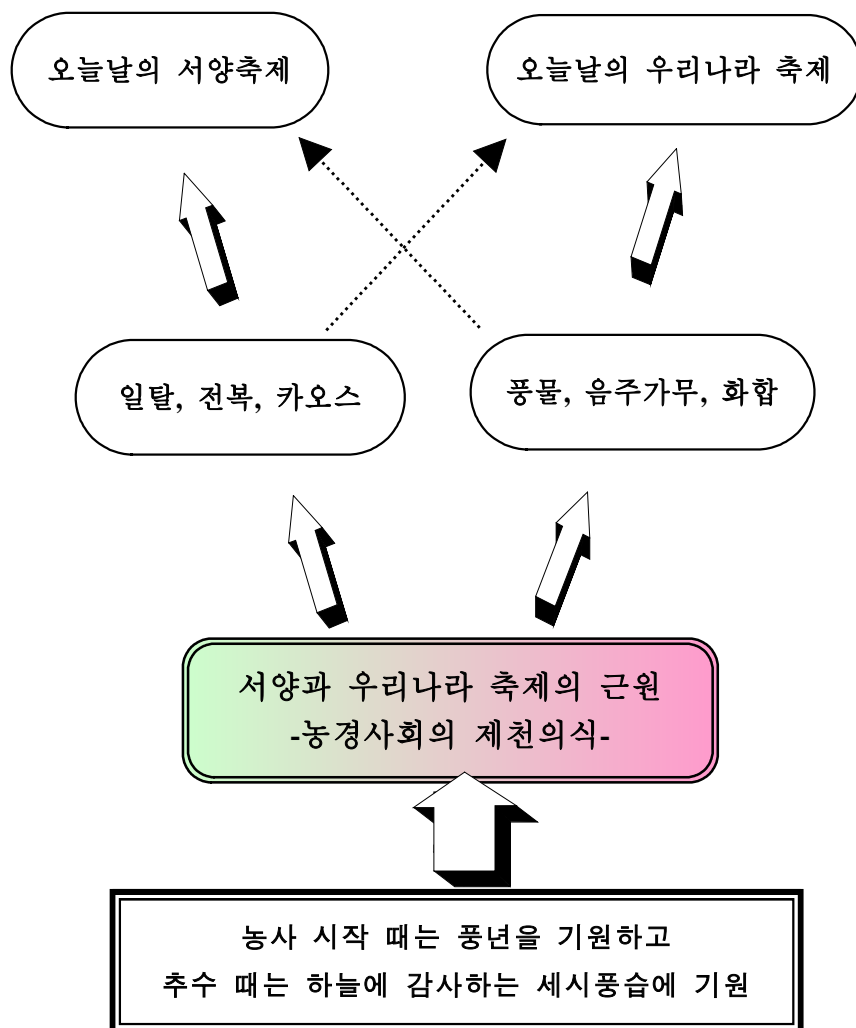
2) chi-square=174.184, df=18, Sig.=0.000

자료: 장병권. “한국지역축제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2000.

외에도 친환경적 요소인 자연과 동식물을 소재로 한 축제도 2000년대 2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역축제는 대중화와 규모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서양과 우리나라 축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공통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공통된 점은 서양의 카니발(농신제)과 우리나라의 제천의식은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추수감사에 대한 기복 신앙에서 출발했다는 점임을 알 수 있다. 즉, 동서양의 축제의 출발이 곧 농경문화와 함께 발전되어 왔고 단지 제천의식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음주와 가무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양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서양의 축제가 일탈과 전복, 카오스와 반전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 온 반면 우리나라의 축제는 서양축제와 같은 반전의 특성은 거의 없고 풍물과 음주가무 속에서 천지인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조화와 합일의 마당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축제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은 현재 난무하는 지역축제의 혼란 속에서 지역축제의 본질과 정체성을 되찾는 좌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축제의 기원과 변천 과정



## 2. 선행연구 검토

### 2.1. 관련 문헌 검토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물론 개별축제에 관해 전반적인 평가보고 형식의 분석은 많이 있으나 지역축제가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역 내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많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지역축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장병권(200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축제를 발굴하여 개최연대를 독립변수로 하여 시대별 지역축제의 특성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축제의 변화는 첫째, 지방형 축제의 양적 증가와 함께 도시형 축제의 급속한 확산이고 둘째, 지역내부의 축제에서 포괄적 축제로의 공간적 확산경향이고 셋째,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하고 넷째, 하계시즌으로 축제의 연중평준화와 국제 이벤트로 인한 개최기간의 연장화, 다섯째, 주민지향적 축제에서 관광지향적 축제로의 전환이고 여섯째는 축제의 경제성이 강화되는 반면 문화성이 약화되고 마지막 일곱째는 축제의 관광·홍보의 도구화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축제의 특성 변화를 시대별로 파악해 보는 데 유용한 연구이다.

뿐만 아니라 부소영(2003)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축제의 영향에 관한 국내외논문을 분석하여 이러한 논문들에서 지역축제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외논문은 축제

의 경제적 효과에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다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국내논문은 부정적 의미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축제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벤트와 지역축제의 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정강환(1996)의 연구, 주로 전남지역의 향토축제의 지역활성화 효과를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이병훈 등(2000)의 연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통해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김유태(2001)의 연구, 지역축제의 유형별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강릉단오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부산 국제영화제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권자경(2001)의 연구가 있다. 특히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천도자기축제를 분석한 오순환(1999)의 연구, 19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를 투입산출방법으로 분석한 조병훈(2000)의 연구,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고성보 등(2001)의 연구, 경주의 『한국의 술과 떡 잔치』를 경제적 효과와 방문자별 참여 특성을 분석한 강인원·고호석(2002) 연구, 그리고 최근 조건부 시장가치평가법의 적용으로 문화예술제의 가치평가를 한 이희찬(2003)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특정 사례 축제에 대해 경제적 효과만을 계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파급되는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축제에 대한 계량적 효과 분석 연구와는 대별되는 연구로 지역축제가 단순히 지역 활성화 효과 측면을 벗어나 “지역 재구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함평의 나비축제 사례를 통해 보여준 김준(2003)의 연구는 지역축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설정해 주었다. 지역축제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의 하나인 지역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정덕(1998)의 연구 또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전북의 대표적인 민속축제인 전주의 풍남제와 남원의 춘향제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새로 개설하고 주도하는 데는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하여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의 특정 상품을 부각시켜 자신의 지역에 대한 정체감을 강화시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 2.2.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연구 검토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WTO/DDA 농산물협상을 통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농촌의 경제는 더욱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요인으로 간주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강환(1996)에 따르면 지역축제가 지역활성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역에서 관광자원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절감효과’가 있어 관광자본에 한계를 가진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sup>11</sup> 기존의 지역개발 방식은 지역의 유희지나 관광지에 대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외부자본의 유치를 도모했고 지방자치단체도 도로, 전기, 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의 투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이러한 자본 투자도 적고 잘만하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가 지역개발 방식에 이용되고 있다.

둘째, 지역축제 개최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인한 관광소득의 ‘지역외 유출’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중대규모의 관광개발은 외

<sup>11</sup> 이때 관광자원의 개발의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 대부분 지역의 자연 및 환경 보전 방식의 개발이 아닌 하드웨어적인 개발이 주된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부 민간자본의 투자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개발 소득은 외부의 소수 개발업체에게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축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2</sup>

셋째, 지역축제는 경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발 잠재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 관광으로 개발할 축제가 잠재하고 있어 기존 관광자원과 지리적 시기적으로 잘만 연계한다면 지역축제는 지역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흔히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축제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강경 젓갈축제』의 경우 기존의 젓갈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젓갈축제라는 관광이벤트를 개발함으로써 관광과 지역시장의 활성화가 더욱 촉진되는 좋은 예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근 관광수요의 변화에도 지역축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관광수요패턴이 기존의 명승지나 유적지를 관람하는 단선적이고 정적인 형태를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체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즐기는 동적인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뿐만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하여금 재미와 흥미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의 관광문화상품 개발 전략으로써 적극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에서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민간단체가 지

<sup>12</sup>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처럼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 및 휴양단지 건설이다. 이러한 관광개발은 지역내 약간의 고용과 소비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변의 자연자원의 파괴와 경제적 발전 효과를 개별업체가 독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물론 지역축제 개최시 외부의 자본과 인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외부상인들의 유입으로 지역내 경제 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지만 축제 개최로 인한 지역내 경제 효과에 비한다면 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할 수 있다.

역특유의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낙후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발굴보존, 독특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집력을 유도해 내는데 지역축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3</sup>

이처럼 다양한 지역축제의 지역사회 영향들에 대해 연구자들도 이들 영향에 대한 범주화를 시도했는데 김유태(2001)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통해 이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 인식조사에서 지역축제의 지역사회 영향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을 했다. 또한, 권자경(2001)은 지역축제의 유형별 발전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지역축제의 지역사회 영향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이미지 향상 효과, 주민화합도모 효과, 주민 교육 효과, 지역문화 육성 효과, 지역의 장애요인 극복 효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 효과 등으로 분류해 각기 영향에 대해 측정했다.<sup>14</sup>

이들 연구에서 지역축제의 개최로 인해 지역활성화 효과는 항목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 환경적 효과로 대별된다.<sup>15</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범주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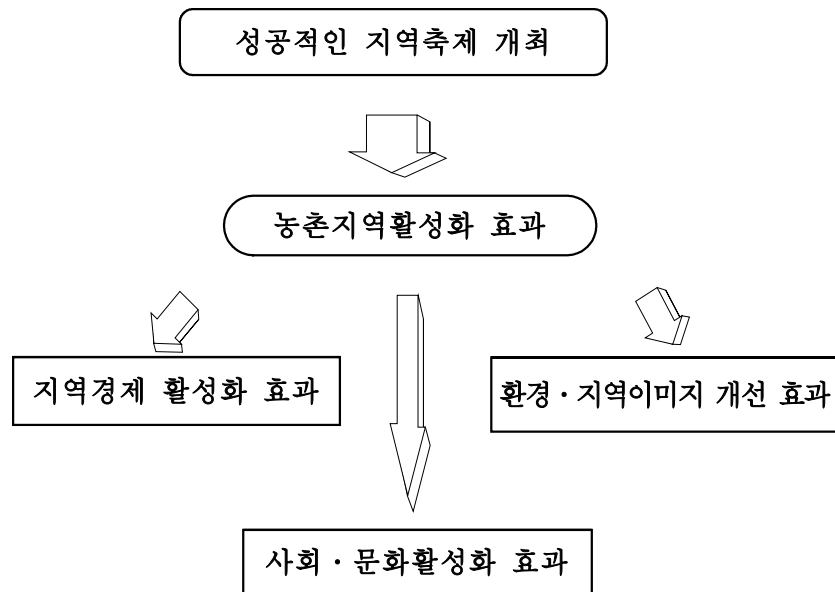
<sup>13</sup>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하다. 역사가 오래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적 마츠리는 사회변화에 따라 종교심은 쇠퇴한 반면,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과소화로 인해 피폐된 지역사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무라오코시운동(村起り)』으로, 이는 지역활성화운동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지역사회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요하며 이의 주역이 마츠리(김양주 1998)다는 것이다.

<sup>14</sup> 권자경(2001)의 지역축제 유형분류는 크게 주민화합형 전통축제, 주민화합형 현대축제, 지역경제육성형 전통축제, 지역경제 육성형 현대축제로 분류해 마지막 축제를 제외한 세 개 유형의 각기 대표되는 사례 축제를 선정해 측정했다.

<sup>15</sup> 김형국(2002)은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물



그림 2-3.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효과



근거해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영향을 측정했으며 단지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은 환경적 효과를 물리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아닌 지역과 환경에 대한 이미지 개선효과로 구분해 측정했다. 이 연구에서의 지역축제 영향 분류는 <그림 2-3>과 같다.

---

리·환경적 효과로 범주화했다.

하지만 지역축제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지역축제가 규모화 되어 가면서 예산의 낭비, 지방행정의 부재, 축제의 정략적 이용, 이해당사자간 경쟁 등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진(1995)은 이러한 지역축제로 인한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2-2. 지역축제의 지역사회 영향

|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sup>16</sup>                                                                                                                                                                                         |
|------------------|--------------------------------------------------------------------------------------------------------------------------------------------------------------------------------------------------------------|--------------------------------------------------------------------------------------------------------------------------------------------------------------------------------------------------------------|
| 경제적<br>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 획득</li> <li>◦ 고용 창출</li> <li>◦ 소득 증대</li> <li>◦ 경제구조의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유발</li> <li>◦ 타산업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성</li> <li>◦ 외지자본 의존에 의한 대외종속</li> </ul>                                                                               |
| 사회·문<br>화적<br>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적 효과</li> <li>◦ 정보교환 촉진</li> <li>◦ 상호이해 증진</li> <li>◦ 사회, 인종, 종교적 장벽 타파</li> <li>◦ 새로운 사상의 도입</li> <li>◦ 문화 교류</li> <li>◦ 전통문화예술의 발전</li> <li>◦ 향토애 고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갈등</li> <li>◦ 외국인 위화감 조성</li> <li>◦ 가치관의 혼란</li> <li>◦ 범죄의 증가</li> <li>◦ 도박 및 매춘</li> <li>◦ 알콜 및 약물 중독</li> <li>◦ 문화의 상품화로 인한 변질</li> <li>◦ 퇴폐 풍조 고조</li> </ul> |
| 환경적<br>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 환경의 보존</li> <li>◦ 하부구조의 개발에 따른 생활 환경 수준의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 오염</li> <li>◦ 대기 오염</li> <li>◦ 동식물의 생태변화</li> <li>◦ 쓰레기 처리 문제</li> <li>◦ 교통혼잡 및 소음공해</li> <li>◦ 건축공해</li> </ul>                                                  |

자료: 이광진(1995); 김자경(2001) 재인용.

<sup>16</sup> 이러한 지역축제의 영향은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관광에 의한 영향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축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표 2-2>와 같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축제가 점차 규모화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축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평가되더라도 축제 방문객 수나 경제적 효과면에서 지나친 과장이나 확대해석으로 지역축제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많다. 이처럼 지역축제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제 3 장

#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과 실태

## 1.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

### 1.1. 지역축제의 개최 수

문화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결과 2003년 말 기준 전국의 지역축제는 총 555개이고 그 중 농촌지역은 355개로 나타났다.<sup>17</sup>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전체의 13.3%인 74개(농촌지역 5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경상남도 69개, 경기도 60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3-1>. 강원도지역에서 지역축제가 가장 많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역축제를 개최할만한 소재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간오지의 낙후지역에서 쾌적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향토자원을 지역축제에 잘 활용해 지역활성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국의

<sup>17</sup> 여기서 농촌지역은 일반 군지역과 도농통합시를 말한다.

농촌지역만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65개(1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개최 현황, 2003년 기준

|       | 전체 지역  |       | 농촌 지역  |       |
|-------|--------|-------|--------|-------|
|       | 축제수(개) | 비율(%) | 축제수(개) | 비율(%) |
| 서울특별시 | 32     | 5.8   | -      | -     |
| 부산광역시 | 44     | 7.9   | 7      | 2.0   |
| 대구광역시 | 13     | 2.3   | 1      | 0.3   |
| 인천광역시 | 11     | 2.0   | 1      | 0.3   |
| 광주광역시 | 15     | 2.7   | -      | -     |
| 대전광역시 | 8      | 1.4   | -      | -     |
| 울산광역시 | 9      | 1.6   | 4      | 1.1   |
| 경기도   | 60     | 10.8  | 31     | 8.7   |
| 강원도   | 74     | 13.3  | 59     | 16.6  |
| 충청북도  | 35     | 6.3   | 33     | 9.3   |
| 충청남도  | 41     | 7.4   | 25     | 7.0   |
| 전라북도  | 32     | 5.8   | 26     | 7.3   |
| 전라남도  | 41     | 7.4   | 40     | 11.3  |
| 경상북도  | 56     | 10.1  | 56     | 15.8  |
| 경상남도  | 69     | 12.4  | 65     | 18.3  |
| 제주도   | 15     | 2.7   | 7      | 2.0   |
| 전체    | 555    | 100.0 | 355    | 100.0 |

## 1.2. 지역축제의 개최 시기

전국의 555개 지역축제 중 시기가 불명확한 3개를 제외한 552개 축제를 개최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농작물의 수확기라고 할 수 있는 10월이 가장 많은 171개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5월로 85개 15.4%를 차지하고 있다<표 3-2>. 5월과 10월의 축제 수를 합하면 전체 축제 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 축제의 계절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기라 할 수 있는 11월과 12월은 2.0%안팎에 지나지 않았고 도시지역을 보면 11월에 열리는 축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지역별 지역축제의 개최 시기

단위: 개,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도시<br>지역 | 계  | 12  | 9   | 5   | 21   | 32   | 3   | 8   | 17  | 22   | 68   | -   | 1   | 198   |
|          | 비율 | 6.1 | 4.5 | 2.5 | 10.6 | 11.2 | 1.5 | 4.0 | 8.6 | 11.1 | 34.3 | -   | 0.5 | 100.0 |
| 농촌<br>지역 | 계  | 14  | 15  | 18  | 39   | 53   | 18  | 25  | 28  | 30   | 103  | 7   | 4   | 354   |
|          | 비율 | 4.0 | 4.2 | 5.1 | 11.0 | 15.0 | 5.1 | 7.1 | 7.9 | 8.5  | 29.1 | 2.0 | 1.1 | 100.0 |
| 전체       | 계  | 26  | 24  | 23  | 60   | 85   | 21  | 33  | 45  | 52   | 171  | 7   | 5   | 552   |
|          | 비율 | 4.7 | 4.3 | 4.2 | 10.9 | 15.4 | 3.8 | 6.0 | 8.2 | 9.4  | 31.0 | 1.3 | 0.9 | 100.0 |

## 1.3. 지역별 지역축제의 개최 시작 연도

전체적인 지역축제 개최 시작 연도를 보면 총 548개의 축제 중에 1990년대 시작한 축제는 252개(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인 면에서도 농촌지역인 도농통합시와 일반군도 1990년대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지역축제 개최 시작 연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 증가속도는 1980년대보다 무려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지역축제의 개최 수는 농촌지역이 많지만 증가속도는 오히려 대도시(1990대비 1980년의 4.8배)에서 더 높았다. 이것은 축제의 농촌지역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도시지역으로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후에도 이어가고 있다

표 3-3. 지역별 지역축제 개최 시작 시기

|                  |            | 2000년<br>이후   | 1990년대        | 1980년대       | 1980년대<br>이전 | 합 계            |
|------------------|------------|---------------|---------------|--------------|--------------|----------------|
| 대도시<br>(특별시+광역시) | 계<br>(비율%) | 43<br>(36.4)  | 58<br>(49.2)  | 12<br>(10.2) | 5<br>(4.2)   | 118<br>(100.0) |
| 일반시              | 계<br>(비율%) | 24<br>(30.4)  | 33<br>(41.7)  | 13<br>(16.5) | 9<br>(11.4)  | 79<br>(100.0)  |
| 도농통합시            | 계<br>(비율%) | 34<br>(23.8)  | 68<br>(47.5)  | 18<br>(12.6) | 23<br>(16.1) | 143<br>(100.0) |
| 일반군              | 계<br>(비율%) | 59<br>(28.4)  | 93<br>(44.6)  | 28<br>(13.5) | 28<br>(13.5) | 208<br>(100.0) |
| 합 계              | 계<br>(비율%) | 160<br>(29.1) | 252<br>(46.0) | 71<br>(13.0) | 65<br>(11.9) | 548<br>(100.0) |

#### 1.4. 지역별 지역축제 예산 규모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예산규모는 5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은 35.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1~3억원이 25.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 이것은 영세한 소규모 축제가 많다는 뜻도 있겠지만 네 개 축제 중에 하나의 축제 예산이 1~3억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도 전체의 8.2%(29개)나 돼 적지 않은 예산이 지역축제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지역축제의 예산 규모, 2003년 기준

|      |       | 5천만원<br>이하 | 5천만원<br>-1억원 | 1-3억원 | 3-5억원 | 5억원<br>이상 | 계     |
|------|-------|------------|--------------|-------|-------|-----------|-------|
| 도시지역 | 계     | 72         | 46           | 46    | 13    | 21        | 198   |
|      | 비율(%) | 36.4       | 23.2         | 23.2  | 6.6   | 10.6      | 100.0 |
| 농촌지역 | 계     | 124        | 67           | 93    | 39    | 29        | 352   |
|      | 비율(%) | 35.2       | 19.0         | 26.4  | 11.1  | 8.2       | 100.0 |
| 전체   | 계     | 196        | 113          | 139   | 52    | 50        | 550   |
|      | 비율(%) | 35.6       | 20.5         | 25.3  | 9.5   | 9.1       | 100.0 |

### 1.5. 지역별 지역축제 방문객 수

전체 지역축제의 방문객 수를 보면 1-5만 명이 가장 많은 31.2%이고 도시와 농촌지역을 나눠서 보면 도시지역은 1만 명 이하가 가장 많고 농촌지역은 1-5만 명이 32.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교적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모은 지역축제는 도시지역이 22개(11.10%), 농촌지역이 26개(7.4%)로 나타났다<표 3-5>.

표 3-5. 지역축제의 방문객 수, 2003년 기준

|          |       | 1만명<br>이하 | 1-5만명 | 5-10<br>만명 | 10-30<br>만명 | 30-50<br>만명 | 50만명<br>이상 | 계     |
|----------|-------|-----------|-------|------------|-------------|-------------|------------|-------|
| 도시<br>지역 | 계     | 62        | 56    | 25         | 26          | 8           | 22         | 199   |
|          | 비율(%) | 31.2      | 28.1  | 12.6       | 13.1        | 4.0         | 11.1       | 100.0 |
| 농촌<br>지역 | 계     | 90        | 116   | 52         | 54          | 15          | 26         | 353   |
|          | 비율(%) | 25.5      | 32.9  | 14.7       | 15.3        | 4.2         | 7.4        | 100.0 |
| 전체       | 계     | 152       | 172   | 77         | 80          | 23          | 48         | 552   |
|          | 비율(%) | 27.5      | 31.2  | 13.9       | 14.5        | 4.2         | 8.7        | 100.0 |



## 2.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유형별 특성

우리나라 축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지역축제가 워낙 다종다양하고 그 기능과 의미가 세분화와 통합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틀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정근식(1998)은 축제의 분류항목을 소재, 목표, 운영방식, 형식으로 나눠 분류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축제의 유형은 <표 3-6>과 같다.

하지만 정근식의 분류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몇 가지로 단순화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윌슨(Joe Wilson)의 유형분류이다. 윌슨은 지역축제의 내용에 따라 독특한 문화에서 자생되거나 그 일부가 만든 토착화된 향토축제(indigenous festivals), ‘토착화된 향토축제’와 유사하나 집단의 성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한

표 3-6. 우리나라 축제의 유형

| 분류 항목    | 축제 유형                                                               |
|----------|---------------------------------------------------------------------|
| 소재       | 자연환경형 축제, 조형물형 축제, 역사 및 인물형 축제, 음식형 축제, 문화행사형 축제, 민속행사형 축제          |
| 목표       | 내부지향형 축제, 외부지향형 축제, 쌍방형 축제                                          |
| 운영<br>방식 | 국가중심형 축제, 지방자치단체 중심형 축제, 민간주도형 축제<br>주민중심형 축제, 대행사 중심형 축제, 네트워크형 축제 |
| 형식       | 설치/전시형 축제, 공연형 축제, 참가형 축제, 종합형 축제                                   |

진화된 향토축제(evolving indigenous festivals), 단체나 개인이 광범위한 관객을 동원할 목적으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의 전파적 효과를 거두는 상업성 향토축제(commercialized indigenous festivals), 문화 구성원들의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만든 비공동체 단일문화축제(non-community folk arts festivals),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많은 문화 요소를 가미한 다문화 민속예술축제(multi-cultural folk arts festivals)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한을경 등 1998). 윌슨의 이러한 분류는 축제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분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의 분류는 편의적인 방법이어서 현대사회의 축제 구분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어느 전통적인 토속문화축제가 세계적인 종합문화축제로 발전하기도 하고 비교적 최근에 조작적으로 창출된 공연과 예술문화축제 활동이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 축제 유형의 경계는 불분명해지고 있다.

## 2.1. 지역별 지역축제 유형

문화관광부의 분류기준에 따른 지역축제의 유형을 보면, 문화예술축제와 농수특산물축제가 같은 수인 176개 31.7%를 차지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문화예술축제가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세 개 축제 중 하나가 농수특산물축제일 정도로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축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지역축제의 유형별 구분(문화관광부 분류 기준)

|          |       | 문화예<br>술축제 | 전통민<br>속축제 | 농수특<br>산축제 | 종합<br>축제 | 관광<br>축제 | 기타<br>축제 | 계     |
|----------|-------|------------|------------|------------|----------|----------|----------|-------|
| 도시<br>지역 | 계     | 93         | 48         | 28         | 8        | 16       | 7        | 200   |
|          | 비율(%) | 46.5       | 24.0       | 14.0       | 4.0      | 8.0      | 3.5      | 100.0 |
| 농촌<br>지역 | 계     | 83         | 79         | 148        | 11       | 28       | 6        | 355   |
|          | 비율(%) | 23.4       | 22.3       | 41.7       | 3.1      | 7.9      | 1.7      | 100.0 |
| 전체       | 계     | 176        | 127        | 176        | 19       | 44       | 13       | 555   |
|          | 비율(%) | 31.7       | 22.9       | 31.7       | 3.4      | 7.9      | 2.3      | 100.0 |

주: 농수특산물축제의 문화관광부 분류는 관광특산축제로 되어있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농수특산물축제에 가깝기 때문에 농수특산물축제로 분류했음.

## 2.2. 지역별 지역축제의 소재 유형

지역축제를 구체적인 소재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한 축제가 가장 많은 39.5%를 차지해 지역축제의 본래적 특성인 지역을 토대로 한 제의성과 유희성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현재에도 그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자연 및 동식물을 이용한 축제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축제보다도 자연 및 동식물을 이용한 축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흔히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ies)로 정의되는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보존가치가 높은 동식물(곤충 등 포함)을 이용한 축제가 중요한 축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표 3-8. 지역축제의 소재 유형

|       |       | 농수산물 | 공예품 | 인물  | 자연 및 동식물 | 지역문화와 전통 | 역사와 유적 | 기타  | 계     |
|-------|-------|------|-----|-----|----------|----------|--------|-----|-------|
| 도시 지역 | 계     | 20   | 4   | 9   | 40       | 114      | 11     | 2   | 200   |
|       | 비율(%) | 10.0 | 2.0 | 4.5 | 20.0     | 57.0     | 5.5    | 1.0 | 100.0 |
| 농촌 지역 | 계     | 82   | 11  | 31  | 96       | 105      | 24     | 6   | 355   |
|       | 비율(%) | 23.1 | 3.1 | 8.7 | 27.0     | 29.6     | 6.8    | 1.7 | 100.0 |
| 합계    | 계     | 102  | 15  | 40  | 136      | 219      | 35     | 8   | 555   |
|       | 비율(%) | 18.4 | 2.7 | 7.2 | 24.5     | 39.5     | 6.3    | 1.4 | 100.0 |

### 2.3.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촌지역 축제 소재 유형

농촌지역 축제의 소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에 포함된 기장군과 울주군에서 농수산물을 이용한 축제가 각각 4개, 2개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가 지역문화와 전통을 이용한 축제가 가장 많고,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자연 및 동식물을 이용한 축제가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축제가 가장 많다. 충청남도는 지역문화와 전통 그리고 농수산물 소재를 이용한 축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9. 각 지역별 지역축제 소재 유형(농촌지역 축제)

|                |            | 농수<br>산물         | 공예<br>품   | 인물        | 자연<br>및<br>동식물 | 지역문<br>화와<br>전통 | 역사<br>와<br>유적 | 기타       | 계            |
|----------------|------------|------------------|-----------|-----------|----------------|-----------------|---------------|----------|--------------|
| 부산광역시<br>(기장군) | 계<br>비율(%) | 4<br>57.1        |           |           | 1<br>14.3      | 2<br>28.6       |               |          | 7<br>100.0   |
| 대구광역시<br>(달성군) | 계<br>비율(%) |                  |           |           | 1<br>100.0     |                 |               |          | 1<br>100.0   |
| 인천광역시<br>(강화군) | 계<br>비율(%) |                  |           |           |                |                 | 1<br>100.0    |          | 1<br>100.0   |
| 울산광역시<br>(울주군) | 계<br>비율(%) | 2<br>50.0        | 1<br>25.0 |           | 1<br>25.0      |                 |               |          | 4<br>100.0   |
| 경기도            | 계<br>비율(%) | 4<br>12.9        | 3<br>9.7  | 4<br>12.9 | 5<br>16.1      | 13<br>41.9      | 1<br>3.2      | 1<br>3.2 | 31<br>100.2  |
| 강원도            | 계<br>비율(%) | 11<br>18.6       | 1<br>1.7  | 6<br>10.2 | 17<br>28.8     | 20<br>33.9      | 2<br>3.4      | 2<br>3.4 | 59<br>100.0  |
| 충청북도           | 계<br>비율(%) | 5<br>15.21.<br>4 | 1<br>3.0  | 7<br>21.2 | 8<br>22.2      | 7<br>21.2       | 3<br>9.1      | 2<br>6.1 | 33<br>100.0  |
| 충청남도           | 계<br>비율(%) | 8<br>32.0        | 1<br>4.0  | 2<br>8.0  | 4<br>16.0      | 8<br>32.0       | 2<br>8.0      |          | 25<br>100.0  |
| 전라북도           | 계<br>비율(%) | 2<br>7.7         | 1<br>3.8  | 3<br>11.5 | 10<br>38.5     | 5<br>19.2       | 5<br>19.2     |          | 26<br>100.0  |
| 전라남도           | 계<br>비율(%) | 8<br>20.0        | 1<br>2.5  | 4<br>10.0 | 19<br>47.5     | 6<br>15.0       | 1<br>2.5      | 1<br>2.5 | 40<br>100.0  |
| 경상북도           | 계<br>비율(%) | 22<br>39.8       | 1<br>1.8  |           | 14<br>25.0     | 17<br>30.4      | 2<br>3.6      |          | 56<br>100.0  |
| 경상남도           | 계<br>비율(%) | 15<br>23.1       | 1<br>1.5  | 4<br>6.2  | 13<br>20.0     | 25<br>38.5      | 7<br>10.8     |          | 65<br>100.0  |
| 제주도            | 계<br>비율(%) | 1<br>14.3        |           | 1<br>14.3 | 3<br>42.9      | 2<br>28.6       |               |          | 7<br>100.0   |
| 전체             | 계<br>비율(%) | 82<br>23.1       | 11<br>3.1 | 31<br>8.7 | 96<br>27.0     | 105<br>29.6     | 24<br>6.8     | 6<br>1.7 | 355<br>100.0 |

### 3. 문화관광축제 현황과 실태

#### 3.1. 문화관광축제 선정 배경

정부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지역축제의 관광코스화, 관광행사의 개발, 민속문화행사의 개최 등에 점차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상품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1995년 지방화시대와 함께 지방축제를 문화관광상품화 하려는 시도로 매년 전국의 지역축제 중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5년 이천 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1996년 금산인삼축제, 진도영등제, 광주김치축제 등 8개의 지역축제를 '96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21개, 2001년에는 30개 2004년에는 37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했다<표 3-10>. 이를 통해 해당지역 축제의 재정적 지원과 국가적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축제의 붐을 조성하고 있다.

표 3-10.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변화 추이

| 연 도                 | 단 위 : 개 |      |      |      |      |      |
|---------------------|---------|------|------|------|------|------|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전 체                 | 21      | 25   | 30   | 29   | 30   | 37   |
| 그 중 농수산물<br>관련 축제 수 | 11      | 13   | 17   | 17   | 19   | 24   |
| 비 율(%)              | 52.4    | 52.0 | 56.7 | 58.6 | 63.3 | 64.9 |

문화관광축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육성, 예비축제로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다르게 하고 있다.<sup>18</sup> 이중 농촌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수특산물(자연 자원 포함) 소재 축제의 수와 비율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축제가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위주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육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작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1999-2003년까지 선정된 축제의 유형과 통계자료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2. 문화관광축제의 연도별 방문객수 추이

매년 선정된 문화관광축제 종류가 다르고 축제일수도 늘어나 전체적으로 축제 방문객이 매년 평균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축제별로 살펴보면 방문객수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에서 방문객수 100만 명이 넘는 축제로는 부산 자갈치축제, 보령 머드축제, 함평 나비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4개 축제(부산 자갈치축제를 제외하면 농촌지역의 축제는 3개)이다. 그리고 최근 지역축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지역으로는 광주 김치축제, 충주 세계무술축제, 보령 머드축제, 한산 모시축제, 함평 나비축제, 하동 야생차축제, 청도 소싸움축제로 충주 세계무술축제

<sup>18</sup> 2004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축제로 총 37개가 선정되었고 선정 등급별로 보면 최우수 3개, 우수 9개, 육성 11개, 예비 14개 축제이다. 지원액은 최우수 1억6천만 원, 우수 9천5백만 원, 육성 5천5백만 원이고 예비축제에는 지원금이 없다(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http://www.mct.go.kr). 참고).

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농촌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축제임을 알 수 있다.

표 3-11. 주요 문화관광축제의 방문객 증가 추이

단위: 명

| 지역    |    | 축제명      | 연 도     |         |         |           |           |
|-------|----|----------|---------|---------|---------|-----------|-----------|
|       |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광주직할시 |    | 광주김치대축제  | 293,000 | 340,000 | 324,000 | 315,000   | 605,000   |
| 충청북도  | 충주 | 충주세계무술축제 | 84,058  | 544,000 | 670,000 | 502,800   | 801,716   |
| 충청남도  | 서천 | 한산모시문화제  | 250,000 | 350,000 | 401,000 | 290,980   | 450,150   |
|       | 보령 | 보령머드축제   | 385,000 | 540,000 | 750,000 | 1,065,000 | 1,363,000 |
| 전라남도  | 함평 | 함평나비축제   | -       | -       | -       | -         | 1,430,000 |
| 경상북도  | 청도 | 청도소싸움축제  | 209,679 | 403,000 | 305,000 | 593,480   | -         |
| 경상남도  | 진주 | 진주남강유등축제 | -       | -       | -       | -         | 2,033,000 |
|       | 하동 | 하동야생차축제  | -       | 85,140  | 100,600 | 110,800   | 149,940   |

주: 방문객 수는 문화관광부가 해당 시군에 의뢰해 파악한 수치로 그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음.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문화관광축제 각 연도 통계자료 재정리.

## 4.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실태

### 4.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일반적으로 지역축제의 효과를 설명할 때에는 먼저 경제적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특정지역의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인해 그 지역의 관광상품 및 특산물의 판매,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 관광객 지출 효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효과, 축제 준비와 투자로 인한 노동력의 고용 증대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들이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역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그 측정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은 관광객의 지출 수준으로 파악되고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효과는 승수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 등이 있다.

표 3-12. 국내 관광산업의 업종별 유발계수의 예(전국)

| 구분         | 생산유발<br>계수 | 수입유발<br>계수 | 부가가치<br>유발계수 | 소득유발<br>계수 | 순간접세<br>계수 | 고용유발<br>계수 | 영향력<br>유발계수 | 감응도<br>계수 |
|------------|------------|------------|--------------|------------|------------|------------|-------------|-----------|
| 소매업        | 1.6915     | 0.0536     | 0.9464       | 0.3896     | 0.0512     | 0.0270     | 0.7363      | 0.6170    |
| 음식업        | 1.9879     | 0.0989     | 0.9010       | 0.4582     | 0.0990     | 0.0893     | 0.8653      | 0.6952    |
| 숙박업        | 1.7831     | 0.080      | 0.9199       | 0.4704     | 0.0700     | 0.0880     | 0.7762      | 0.5508    |
| 도로여객<br>운송 | 1.8661     | 0.1406     | 0.8594       | 0.5430     | 0.0869     | 0.0263     | 0.8123      | 0.5941    |
| 기타문화<br>오락 | 2.1132     | 0.090      | 0.9100       | 0.4906     | 0.0620     | 0.044      | 0.9200      | 0.4436    |

자료: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999.

#### 4.1.1. 지역경제적 효과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1995년 정부에서 지역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축제들을 선발해 지원을 점점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축제에 대한 선발 과정의 하나로 지역축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고 평가기관은 전문 연구소나 대학이 의뢰를 받아 평가하였다.<sup>19</sup> 문화관광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모두 15개 지역축제가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라남도 4개,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 4개 축제, 충청남도, 경상북도가 각각 3개 축제, 충청북도가 2개 축제,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1개 축제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축제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 축제는 1개밖에 되지 않는다.

2003년도 기준으로 각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풍기 인삼축제가 804여억 원, 함평 나비축제가 694여억 원, 금산 인삼축제가 651여억 원으로 나타나 농산물과 자연자원을 이용한 축제가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0</sup>

<sup>19</sup>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문화관광축제의 가장 큰 기준 요건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다.

<sup>20</sup> 일반적으로 볼 때, 금산 인삼축제가 풍기 인삼축제보다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크며 축제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풍기인삼축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금산 인삼축제가 외형에 비해 실속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평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 분석에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두 지역축제가 인삼이라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통해 최고의 경제적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표 3-13. 주요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sup>21</sup>

단위: 백만 원

| 지역    |    | 축제명        | 연 도    |        |        |        |        |
|-------|----|------------|--------|--------|--------|--------|--------|
|       |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부산직할시 | —  | 부산자갈치축제    | 10,000 | 12,500 | 12,800 | 45,389 | 15,729 |
| 강원도   | 양양 | 양양송이축제     | 200    | 3,300  | 5,491  | —      | 11,700 |
| 충청북도  | 영동 | 난계국악축제     | 5,000  | 12,000 | 13,000 | —      | 58,000 |
|       | 충주 | 충주세계무술축제   | 700    | 8,450  | 7,358  | 7,479  | 10,630 |
| 충청남도  | 보령 | 보령머드축제     | 5,000  | 17,400 | 11,766 | 27,472 | 26,894 |
|       | 금산 | 금산인삼축제     | 40,000 | 20,600 | 55,200 | 62,692 | 65,190 |
|       | 논산 | 강경전통맛갈짓축제  | —      | —      | —      | 21,300 | 22,344 |
| 전라북도  | 남원 | 남원춘향제      | 1,500  | 19,800 | 20,451 | 20,925 | 24,156 |
| 전라남도  | 영암 | 영암왕인문화축제   | 3,800  | 5,000  | 76,500 | 22,719 | 34,900 |
|       | 진도 | 진도영등축제     | 2,900  | 2,100  | 1,995  | 2,202  | 52,100 |
|       | 함평 | 함평나비축제     | —      | —      | —      | —      | 69,424 |
|       | 무안 | 무안연꽃축제     | —      | —      | 20,832 | 11,785 | —      |
| 경상북도  | 경주 |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 2,000  | 13,700 | 44,100 | 42,500 | 23,720 |
|       | 안동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2,650  | 5,000  | 25,852 | 27,087 | 22,384 |
|       | 영주 | 풍기인삼축제     | —      | —      | 71,455 | 31,500 | 80,424 |

주: 경제적 효과는 문화관광부가 해당 시군에 의뢰해 파악한 수치로 그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음.

자료: 문화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문화관광축제 자료 재구성.

<sup>21</sup> 각 축제별 경제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집계내지 외부 용역을 통한 평가 내용을 문화관광부에서 취합한 통계이며 동일한 기준의 평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간 다소 평가치가 상대적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외부자적인 입장에서 지역축제를 평가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고 있다. 현재까지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문화관광부가 매년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주로 편리성과 지역화합성 위주로 실시해 왔지만 최근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전체 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주간 매경이코노미(2004. 9. 29. 제1274호)가 지역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지역축제를 평가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매경이코노미의 평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2004 최우수 축제로 금산 인삼축제, 보령 머드축제, 함평 나비축제가 선정됐다. 금산 인삼축제와 보령 머드축제는 특산품 부문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함평 나비축제는 비특산품 부문에서 최우수축제로 평가 받았다. 그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축제는 특산품 부문에서 양양 송이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강경 젓갈축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가 우수 축제로 평가되었고 비특산품 부문에서는 진도 영등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우수 축제로 평가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3-14, 3-15>와 같다.<sup>22</sup>

<sup>22</sup> 평가대상 축제는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23개(최우수, 우수, 육성)이며 2003년 축제 개최 결과를 토대로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동시에 시도했다. 정성적인 평가로는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23개 축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축제를 특산품 부문과 비특산품 부문으로 나눠 각각 3개씩 추천하도록 해 추천 횟수가 많은 축제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정량적인 평가 자료로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1인당 지출액을 사용했다. 축제 성격에 따라 1인당 지출액에 차이가 커 특산품과 비특산품으로 나눠 평가했다. 결국 평가위원단이 평가한 추천 횟수에 따른 순위와 1인당 지출액 순위를 합산해 종합 순위를 매긴 것이다.

표 3-14. 최우수·우수 지역축제: 특산품 부문

| 축제명      | 등급  | 전문가평가 순위 | 1인당지출액 순위 |
|----------|-----|----------|-----------|
| 금산 인삼축제  | 최우수 | 1(4)     | 3(76,631) |
| 보령 머드축제  | 최우수 | 2(3)     | 2(89,453) |
| 양양 송이축제  | 우수  | 5(1)     | 1(93,087) |
| 강진 청자문화제 | 우수  | 3(2)     | 4(63,024) |
| 강경 젓갈축제  | 우수  | 5(1)     | 5(54,186) |
| 경주 한국의 술 | 우수  | 5(1)     | 6(34,048) |

주 1) 종합순위는 전문가평가 순위와 1인당 지출액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됨.

2) 전문가평가 순위의 ( )은 전문가 추천 횟수.

3) 1인당 지출액(단위: 원)은 2003년 기준. 문화관광부 자료 참조.

자료: 매경이코노미, 2004. 9. 29, 제1274호.

표 3-15. 최우수·우수 지역축제: 비특산품 부문

| 축제명       | 등급  | 전문가평가순위 | 1인당지출액 순위 |
|-----------|-----|---------|-----------|
| 함평 나비축제   | 최우수 | 2(3)    | 2(49,388) |
| 진도 영등축제   | 우수  | 2(3)    | 3(46,474) |
| 무주 반딧불축제  | 우수  | 4(1)    | 1(76,833) |
| 안동 국제탈춤축제 | 우수  | 1(4)    | 5(23,460) |
| 진주 남강유등축제 | 우수  | 4(1)    | 4(40,525) |

주 1) 종합순위는 전문가평가 순위와 1인당 지출액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됨.

2) 전문가평가 순위의 ( )은 전문가 추천 횟수.

3) 1인당 지출액(단위: 원)은 2003년 기준. 문화관광부 자료 참조.

자료: 매경이코노미, 2004. 9. 29, 제1274호.

또한, 세계의 축제 중에서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높은 축제가 많이 알려져 있는 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뮌헨의 맥주축제(흔히 '10월 축제'로 불리며 독일어로는 Oktoberfest라고 함)이다. 1999년도 뮌헨 맥주축제의 예산은 650만 마르크(약 42억 3천만 원)인데 축제기간 16일 동안 약 650만 명이 이 축제에 방문해 엄청난 경제적 소득을 가져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맥주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13억 9천 마르크(한화 약 9,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sup>23</sup> 여기에는 경제적 효과만 포함되어 있고 축제로 인한 홍보 효과는 고려되지 않는 수치라고 한다(김춘식·이남호 2002). 뿐만 아니라 맥주축제로 지역에 미치는 고용효과는 12,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뮌헨 맥주축제 방문객의 지출 규모는 <표 3-16>과 같다.

표 3-16. 뮌헨 맥주축제 방문객의 지출 규모, 1999

| 구분                       | 지출액                 |
|--------------------------|---------------------|
| 축제장에서의 음식, 주류, 오락 등      | 4억5천 마르크(2,900억 원)  |
| 뮌헨과 뮌헨 주변에서의 쇼핑, 교통, 식사비 | 3억8천 마르크(2,470억 원)  |
| 호텔 숙박비                   | 5억6천 마르크(3,640억 원)  |
| 계                        | 13억9천 마르크(9,100억 원) |

자료: 뮌헨 관광사무소.

<sup>23</sup> 하지만 이 수치는 다른 보고서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 1993년 뮌헨 맥주축제로 벌어들인 수입만은 약 1백억 마르크(약 5조원) 수준으로 1993년 우리나라에 전체 외국관광객들이 쓰고 간 관광지출의 약 2배 수준이라고 한다(정강환 1996).

#### 4.1.2. 지역경제 재구조화 효과

지역축제를 통해 그 지역에 파급된 효과를 가장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인데 그 중에서도 지역축제로 인해 단기간에 창출되는 직접이나 간접소득이 아닌 지역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많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인한 효과는 축제 자체의 물리적 규모 확대도 가져오겠지만 그 지역사회 전체의 하부구조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준다. 특히 가장 매력적인 관광상품의 하나인 축제의 개최로 인해 그 지역의 교통시설, 문화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그 지역의 미화를 위해 환경 및 조경시설들이 들어와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것은 지역축제와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교류와 소통하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축제의 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시가 대표적이다.<sup>24</sup> 인구 45만 명에 불과한 에딘버러 시는 축제 전략으로 연간 1천 2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럽의 꽃’으로 불리는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김춘식, 남치호 2002). 에딘버러 시에서는 일년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데 가장 유명한 군악대축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예술축제(the

<sup>24</sup> 이렇게 에딘버러 시가 축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룩하게 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출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산업의 중심이 미국 등 유럽 이외의 국가로 이동하면서 지역산업의 침체를 겪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합심하기 시작했고 그 출발점이 지역문화자원과 전통을 이용한 축제의 개최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축제를 통해 한 지역이 재구성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Largest arts festival on the planet)’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프린지 축제, 재즈블루스축제 등을 포함해 국제 축제, 영화축제, 어린이축제, 책축제, 과학축제, 새해맞이축제 등이 열린다. 축제만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노후한 중세건물들이 일약 유명관광지화 되어 전세계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게 만든 것이 이 지역의 축제 때문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다.

농업부문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농산물을 이용해 지역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가 프랑스 망똥 레몬 축제이다. 원래 이곳 망똥의 레몬은 아주 먼 옛날 이브가 낙원에서 레몬을 하나 훔쳐 이곳 망똥에 심었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이 지역 사람들의 레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들은 주변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고 코르시카의 그것과는 현격히 구별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송미령 2003). 그러나 레몬 가격의 하락과 이로 인한 생산면적의 감소로 이곳 레몬은 한참동안 쇠퇴일로를 걷다가 최근에 회복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망똥 레몬 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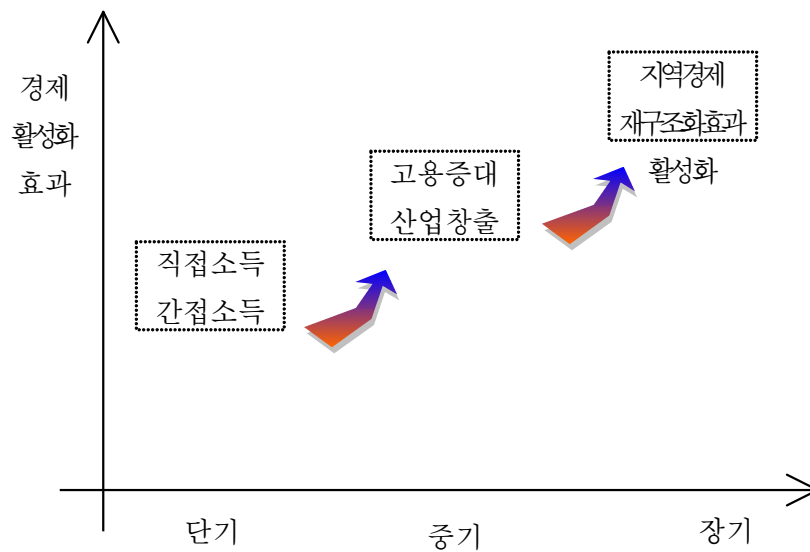
망똥 레몬 축제에 의해 지역의 특산물인 레몬의 판매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도시 망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망똥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망똥 레몬이 세계적인 브랜드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세 가지인 축제의 방법에 관한 훌륭한 아이디어,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상징성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한다(김춘식, 남치호 2002).<sup>25</sup>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명소를

<sup>25</sup> 망똥 레몬 축제는 매년 주제를 정하는데 주제가 정해지면 감귤 재배농가, 정원사, 디자이너, 금속작업가 등 300명 이상의 인원이 주제에 맞는 조형물을 만든다.



그림 3-1. 단계별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만든 일본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는 구마모토 현 오구니 마찌(小國町)의 ‘스키토피아(杉Topia) 오구니축제’이다. 조그마한 산간지역이었던 이곳은 1985년부터 지역활성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특히 이 지역의 명물인 삼나무를 이용해 특색있는 목조건물들 즉, 유우 스테이션(버스터미널과 전시관), 오구니 돔(목조로 된 지역 체육관), 물산관(物産館), 목훈관(木魂館) 등을 지어 오구니의 이미지를 일본 전국에 퍼뜨렸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활용해 각종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나중에는 연간 70여 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1988년 6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38개의 크고 작은 지역이벤트가 개최되었다고 한다(김일철 1994).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의 경제활성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보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2. 사회 · 문화적 효과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만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역축제 평가와는 달리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 ·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비용과 편익과 같은 단순한 경제학적 측정방법 몇 가지를 가지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되고 그 결과가 수치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료하다고 본다. 그 외 축제의 사회 ·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과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는 측정요소와 방법도 문제이지만 그 개념과 범주 자체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축제의 사회 · 문화적 영향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경향이 생겼다. 예를 들어 매년 지역의 우수한 축제를 평가 선정하여 육성 · 지원하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평가에서는 공통평가 기준과 선택평가 기준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그런데 중요 기준은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 지역주민 여가 기회 확대 등 사회문화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또한 정강환(1996)의 경우도 지역축제가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사회 · 문화적 효과를 다양하게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찬양, 여가추구 촉진과 오락 시설 증진, 지역사회 발전, 경제적 활력, 복지, 문화, 건강(위생) 향상 효과 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축제의 사회 · 문화적 효과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크게 지역애착도 향상 효과와 문화활동 기회 향상 효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겠다.

#### 4.2.1. 지역사회 애착도 향상 효과

원래 애착도의 개념은 주로 유아와 부모 또는 가족,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지만 인간과 환경의 관계 즉, 특정 장소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강신겸 2001).

주로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심리학, 인문지리학, 관광학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 지역사회 ‘친밀도’ 혹은 ‘애착도’(community attachment)는 사회가 점점 산업화,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개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박경철 2002). 즉, 지역개발 정책의 최종 수혜대상이 지역주민이고 그들이 자신의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불만과 무관심이 팽배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궁극적인 발전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지역사회 애착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애착도는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될 수 있는가? 지역사회 개념을 처음으로 다차원적으로 규정한 Kasarda와 Janowitz(1974)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사회 애착도는 지역적 사회 유대망(local social bonds), 공동체 정서(community sentiment)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조직에의 참여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내창·이성전(1999)은 이러한 지역사회 애착도는 크게 태도적 애착(affective attachment)과 행동적 애착(behavioral attachment)으로 구분해 애착도를 측정하기도 했다. 여기서 태도적 애착은 ‘나는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다’든가 ‘나는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데 만족한다’와 같은 정성적인 태도를 말하고 행동적 애착은 ‘나는 이웃과 자주 교류한다’든가 ‘나는 지역사회 모임에 잘 참여한다’와 같은 지역사회 행동(community actions)을 말한다. 지역축제

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만족과 관심,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참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 축제와 지역사회 애착도는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할 수 있다. 또한, 강신겸(2001)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지역사회 애착도 구성요인과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는 다음 <표 3-17>과 같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또는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뭉쳐서 지역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축제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개별적인 인간을 초월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자극한다고 한다(이정덕 1998).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집중적인 개발방식으로 인해 그동안 경제적 낙후와 지역적 소외가 진행되어 왔던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외부 경제에 지나친 의존 없이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이용한 자립적인 지역개발 방식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과거 중앙

표 3-17. 지역사회 애착도 구성요인 및 개념

| 구성요인                             | 개념(concept)                                                   | 종합적 개념                                  |
|----------------------------------|---------------------------------------------------------------|-----------------------------------------|
| 의존성<br>(dependence)              | 개인의 요구와 목표를 만족시키는 특정장소의 잠재력과 관련성 즉, 특정장소 또는 환경에 대해 갖는 기능적인 애착 | 지역주민이<br>지역사회에<br>대해 느끼는<br>심리적 연대<br>감 |
| 정체성<br>(identity)                |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한 개인의 감성적 또는 상징적인 애착. 장소에 대한 소속감                   |                                         |
| 사회적 친분<br>(social<br>friendship) |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친분과 유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을 의미                     |                                         |

집권적인 관리체계하에서 실시됐던 하향식 지역개발 정책이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을 정책에 참여시킬 것인가가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지역민들을 아우르고 지역민의 협력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는 지역축제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sup>26</sup> 그래서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자원, 농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가장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어 경제적 효과도 높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지역의 일체감과 애착심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축제를 이러한 목적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 4.2.2. 문화활동 기회 향상 효과

지역축제의 또 다른 역할은 지역문화의 부흥과 함께 다양한 지역행사의 관람과 참여로 인한 문화적 향유 기회의 확대이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제의 중앙 집중이 이뤄져왔다. 경제이외에도 교육, 문화, 예술 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앙 집중이 이뤄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은 그동안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산업부분은 제조업(42.4%)이나 서비스업(56.6%)보다 훨씬 넘어 약 90%가 수도권집중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

<sup>26</sup> 이정덕(1998)도 축제가 지역정체감을 어떻게 유인하고 강화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대의 지역정체성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정치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으며 이는 또한 문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간 문화격차가 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관광부 국무회의 자료 2004). 그나마 근근이 전해 내려온 지역문화활동도 후계자가 없어 그 명맥을 잇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축제는 지역문화 부흥을 촉진하고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신명을 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축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기회의 확대는 결국 주민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산업 격차만큼이나 교육 격차가 심한 농촌지역에서의 축제는 지역민에게는 인식의 장과 사고의 장을 넓혀주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현대의 축제가 종합예술축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축제에서는 도시와 농촌, 과거와 현재, 산업과 문화, 자연과 사람, 민과 관 등이 서로 어우러져 상호소통이 되는 교류의 장소가 된다. 이곳에서 지역민들은 폐쇄적이고 소자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에 대해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지역축제의 중요한 교육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축제를 통해 문화적 향유 기회를 증대시킴에 따라 지역 주민은 생활의 재생성(refreshment)을 얻게 된다. 즉, 축제로 인해 지역주민은 일시적인 생활의 일탈을 통해 황홀경이나 흥미를 느끼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다시 생활로 돌아왔을 경우 생활의 활기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이정재(1998)는 축제가 소비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산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황홀과 망아 그리고 일체성은 그를 통한 최고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 망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면서 축제를 통한 삶의 재충전 효과를 설명했다. 결국 지역축제가 문화의 한 요소로서 그리고 하나의 문화장치로서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효용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지역축제를 계기로 지역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해 그 문화적 효용성을 향유하고 나아가 의식의 변화까지 가져다준 사례로는 남원춘향제가 있다. 남원춘향제는 정절과 절개가 있는 춘향이의 이미지를 춘향제를 통해 외부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기에 판소리와 같은 문화적 요소까지 가미해 남원을 문화와 인물의 고장으로 그 이미지를 적극 고양시켰다. 그래서 남원사람들은 춘향이라는 좋은 이미지와 결합된 남원에 대해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춘향제 개최 시 지역의 문화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데 강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sup>27</sup>

### 4.3.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 4.3.1. 환경이미지 개선 효과

오늘날에 ‘환경’이라는 용어만큼 우리 주변에 남용되는 용어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지역의 총체적 아우라(Aura)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지역문제에 있어 환경을 빼놓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을 만큼 환경은 우리 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지역이 환경적으로 깨끗하다함은 과거 단순히 자연이 잘 보존되어 경제발전의 궤도에서 벗어난 낙후지역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 들어와서의 친환경지역은 자연적으로도 보존이 잘 될 뿐

<sup>27</sup> 어떤 남원사람들이 실제 외부로 나갔을 때 전라도에서 왔다고 하면 시큰둥하던 반응이 남원에서 왔다고 하면 춘향으로 유명한 곳에서 왔으며 정절을 지키고 믿을만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잘 해주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고 한다(이정덕 1998).

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어 그 가치가 점점 증대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양평군의 경우 『양평환경농업21』이라는 군차원의 대대적인 환경농업 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양평군의 농업 부가가치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환경개선으로 인한 지역 부가가치도 증진시켰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지역정책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이 시·군 전체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오늘날 각 지역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최근 들어 지역축제가 지역의 환경이미지를 증진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축제 그 자체가 대부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적인 자원을 이용하고 여기에 관광과 예술활동이 결합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지역축제만큼 지역의 환경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널리 평가되듯 함평 나비축제와 무주 반딧불이축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현재는 생태적으로 가장 깨끗한 지역 이미지로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가 <표 3-18>에 나타났다. 일반군지역에서 특히 지역축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환경적·문화적 이미지 제고가 가장 높은 33.1%를 차지했고, 도농통합시에서는 31.8%로 주민의 참여와 화합의 34.8%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즉, 농촌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도 지역의 환경 및 문화적 이미지 제고는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문화, 축제와 지역 농특산물을 잘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지역축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보성군의 보성다향제이다. 보성군은 전국 녹차 생산량의 4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차주산지이며 차산업의 발상지로서 전통 차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지역축제와 잘 연계하여 녹차산업을 일약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실 보성의 녹차의 품질은 인근의 하동, 지리산 등 여타 지역에 비해 품질면에서 결코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보성이 녹차의 대명사가 된 것은 보성 녹차밭의 경관적 이미지 홍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원의 아름다운 경관은 곧 보성의 환경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최근 들어 이러한 환경이미지 홍보가 잘 되어 보성과 녹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보성 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에 보성차밭이 선정되었을 정도로 관광 명소화 되었다. 그리고 영화와 CF촬영지로 각광받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성의 친환경적 이미지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표 3-18. 지역축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단위: 명, %

| 구분                 | 도농통합시      | 군           | 전체         |
|--------------------|------------|-------------|------------|
| 지역의 환경적·문화적 이미지 제고 | 21 (31.8)  | 42 (33.1)   | 63(32.6)   |
|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 11 (16.7)  | 27 (21.3)   | 38(19.7)   |
| 행사를 통한 경제적 수익      | 11 (16.7)  | 25 (19.7)   | 36(18.7)   |
| 주민의 참여와 화합         | 23 (34.8)  | 31 (24.4)   | 54(30.0)   |
| 기타                 | -          | 2 ( 1.6)    | 2(1.0)     |
| 합계                 | 66 (100.0) | 127 (100.0) | 193(100.0) |

자료: 설문은 도농통합시와 군지역 지역축제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임.

또한 최근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축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농작물을 이용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연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석문화제, 무안 백련대축제 등이 있고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한 고창의 청보리밭축제와 청원의 청원생명쌀유채꽃축제 등이 있다. 경관작물을 이용한 축제의 장점은 우선 사라져가는 농작물의 복원을 통해 농촌전원의 풍경을 되살리고 그림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축제 개최가 가능해(고창군의 경우 2004년도 제1회 청보리밭축제가 4월 4일에서 5월 16일까지 지역축제기간으로써는 가장 긴 43일간 축제를 개최했음)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할 수 있다는 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각인시켜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경관작물을 이용한 지역축제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처음 개최한 청보리밭축제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고무되어 이러한 경관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창군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해 군에서 지정한 품목과 지역에 경관작물을 재배한 농가와 단체에 직접지불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원과 내년부터 농림부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관작물의 재배가 확대될 것이고 이를 이용한 지역축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 보성군청 앞의 다향제  
홍보 현수막



그림 3-3. 자연경관이 뛰어난  
보성의 한 녹차밭



표 3-19. 지역축제를 통한 환경 및 농업이미지 개선 효과

| 구분                       | 거의<br>나아지지<br>않았다. | 별로<br>나아지지<br>않았다. | 그저<br>그렇다.   | 조금<br>나아졌다   | 많이<br>나아졌다   | 무응답         | 합계             |
|--------------------------|--------------------|--------------------|--------------|--------------|--------------|-------------|----------------|
| 지역의 대외적인<br>깨끗한 자연환경 이미지 | 3<br>(1.5)         | 11<br>(5.7)        | 30<br>(15.5) | 84<br>(43.3) | 49<br>(25.3) | 17<br>(8.7) | 194<br>(100.0) |
| 지역주민들의 자연과<br>환경보존 의식    | 4<br>(2.1)         | 7<br>(3.6)         | 60<br>(30.9) | 78<br>(40.2) | 28<br>(14.4) | 17<br>(8.8) | 194<br>(100.0) |
| 지역 생산 농수특산물<br>브랜드 이미지   | 4<br>(2.1)         | 4<br>(2.1)         | 31<br>(16.0) | 88<br>(45.4) | 58<br>(29.9) | 9<br>(4.6)  | 194<br>(100.0) |

자료: 지방자치단체 축제담당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표 3-19>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도 ‘지역축제를 통한 환경 및 농업이미지 개선 효과’에 대한 질문에 조금 나아졌다와 많이 나아졌다가 68.6%로 나아지지 않았다 7.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지역축제를 통한 자연과 환경보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나아졌다가 54.6%로 그렇지 않다 5.7%보다 훨씬 높았다. 위의 두 질문의 응답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축제로 인한 해당 지역의 대내 외적인 자연·환경인식의 개선 효과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질문인 ‘축제를 통한 해당 지역 생산 농수특산물브랜드 이미지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75.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2%보다 무려 18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지역축제를 통한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효과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축제 개최 목적이 점차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등과 같이 경제적 측면이 우선시 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농특산물을 이용한 축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4.3.2.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지역축제를 통한 효과들에 대해 단순히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핵심 용어로 기술하자면 바로 장소(지역) 판촉(place-marketing) 효과라 할 수 있다. 김형국(2002)에 따르면 장소판촉은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근거하는 터전의 의미를 대내적으로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감동과 가치를 확산해서 결국에는 내 고장의 번영을 가져오는 노력이 장소판촉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크고 작은 고장이 현지 생산물을 외부로 판촉하거나, 또는 현장이 갖고 있는 생활여건이나 관광자원 등을 잘 가꾸고, 또 경쟁력 있는 볼거리와 좋은 생활여건을 새로 만들어 외부 사람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거나 다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장소판촉의 노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장소판촉은 문화에서 경제적 번영의 가능성을 찾는 노력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고장 이름과 더불어 그 품질

과 가격이 인정된다면 그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며 여기에 각종 문화·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 볼거리·감동거리와 같은 문화적 수단이 사용된다면 농촌에도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오면서 그 지역 나름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자원이 관광 상품화됨으로써 그 지역을 명소화로 만드는 것이 장소판촉의 효과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장소판촉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종합 예술 활동인 성공적인 지역 축제의 개최이다.

이러한 지역축제의 예로 『금산 인삼축제』, 『양양 송이축제』, 『청도 소싸움축제』, 『대구 약령시 및 한방문화 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그 사례 지역축제는 무수히 많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통과 유산은 아니지만 현대에 와서 지역의 독특한 소재를 이용하거나 지역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발견해 내어 새로운 지역이미지를 창조하는 지역도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 『장성 홍길동축제』, 『무안 백련대축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3-20.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 구분                    | 거의<br>나아지지<br>않았다. | 별로<br>나아지지<br>않았다. | 그저<br>그렇다.   | 조금<br>나아졌다.  | 많이<br>나아졌다.  | 무응답         | 합계             |
|-----------------------|--------------------|--------------------|--------------|--------------|--------------|-------------|----------------|
| 지역의 대외적인<br>역사·문화 이미지 | 2<br>(0.1)         | 12<br>(6.2)        | 41<br>(21.1) | 74<br>(38.1) | 50<br>(25.8) | 15<br>(7.7) | 194<br>(100.0) |
| 지역주민들의<br>문화·역사의식     | 2<br>(1.0)         | 9<br>(4.6)         | 53<br>(27.3) | 81<br>(41.8) | 33<br>(17.0) | 16<br>(8.2) | 194<br>(100.0) |

자료: 지방자치단체 축제담당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표 3-2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축제를 통해 해당 ‘지역의 대외적 역사·문화이미지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 담당공무원의 대답에서 조금 나아졌다가 38.1%, 많이 나아졌다가 25.8%로 설문대상 공무원의 2/3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에서 조금 나아졌다가 41.8%, 많이 나아졌다가 17.0%로 대체로 지역주민이 축제를 통해 지역에 대한 문화와 역사의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축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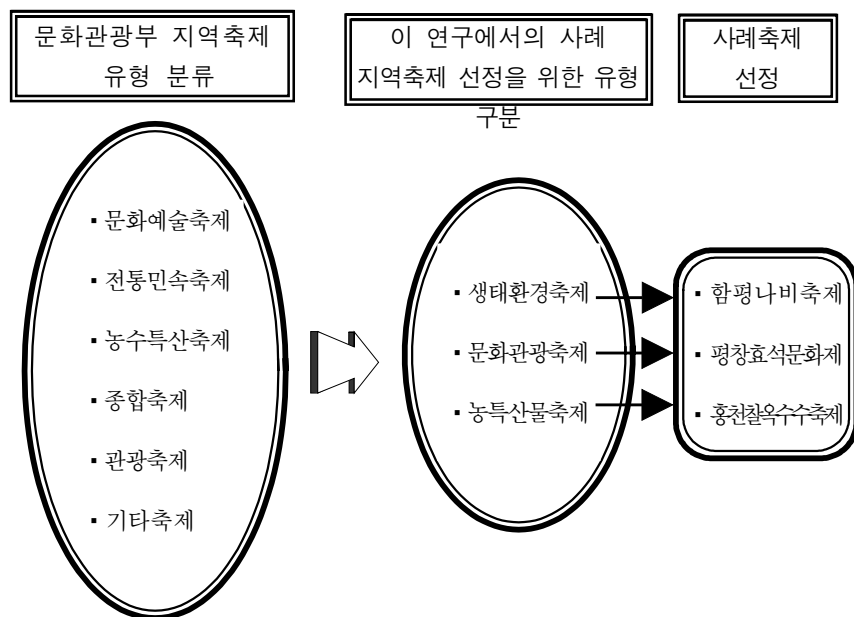
## 제 4 장

###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

본 장에서는 사례 지역축제를 통해 이 축제가 구체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사례 지역축제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현재 동제까지 포함하면 천 여 개가 넘는 지역 축제 중에서 어느 축제를 사례축제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 활성화 내용 파악의 관점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장에서 지역축제의 유형구분을 문화관광부의 6개 유형 기준을 통해 구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6개의 기준을 통해 사례 지역축제를 선정하기에는 그 내용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들 유형을 다시 세 가지로 압축했다. 이들 여섯 개의 축제를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통해 다시 세 가지로 압축하면 생태환경축제, 문화관광축제, 농특산물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의 압축은 연구자가 선행연구의 참조와 직접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농촌지역을 특징짓는 축제의 기준에 맞게 선정했다. 사례 지역축제로는 각각 함평 나비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홍천 찰옥수수축제이며 사례 지역 축제의 선정을 위한 유형을 <그림 4-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4-1. 지역축제의 유형 분류와 사례 지역축제 선정



## 1. 함평 나비축제

### 1.1. 나비축제의 개최 배경

함평군의 나비축제가 시작한 배경에는 농업소득이 주소득원인 함평군의 어려운 여건에서의 절박한 상황과 이 시기에 맞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과 같이 한다. 군민의 71%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함평군으로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특히 민선자치



2기 출범시기인 1998년 7월 함평군은 12%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5만 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계속되는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통계를 보면, 1980년 96,344명이 1990년에는 63,081명으로 약 35%가 줄었고 2000년에는 45,369명으로 1980년에 비해 무려 53%가 줄었다. 또한 농업의 쇠퇴로 인해 농가인구와 농가수도 감소 되었는데 1980년에 농가수의 비중은 77%에서 2000년도에는 55%로 줄었다. 이 때문에 군민의 71%가 농업에 종사하는 함평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서의 획기적인 소득증대 사업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래야만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1. 함평군 인구 및 가구수 추이

단위: 명, 호

|      | 전체 인구  | 가구수    |        |
|------|--------|--------|--------|
|      |        | 전체 가구수 | 농가수    |
| 1980 | 96,344 | 20,001 | 15,404 |
| 1985 | 78,173 | 18,906 | 15,252 |
| 1990 | 63,081 | 17,304 | 12,304 |
| 1995 | 51,703 | 17,220 | 10,052 |
| 2000 | 45,369 | 17,398 | 9,554  |
| 2002 | 42,123 | 17,114 | 8,337  |

자료 1) 함평군. 2003. 『함평통계연보』.

2) 이석형. 2001.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관광개발 전략』.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51.

사실 이러한 지역의 위기를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느끼는 곳이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의 인구감소와 산업의 침체는 곧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함평군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sup>28</sup>

이러한 상황에서 함평군은 이제까지 개발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었고 이러한 자연 환경이 청정 농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적 요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sup>29</sup> 친환경농업을 함평군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이때 창안해 낸 것이 나비축제였다.<sup>30</sup>

<sup>28</sup> 최근 함평군 인근 ○○군의 경우 군인구가 2만7천명까지 줄어들자 군청의 조직 가운데 일개 과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들도 주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공무원들 자신도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광특구 조성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였다고 한다.

<sup>29</sup> 그러나 이석형 군수는 농업이 이전처럼 생산량을 향상시켜 소득을 올리는 농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중국은 WTO 가입 예정이어서 농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이 함평군은 뚜렷한 농업자원은 물론이고 산업, 문화자원은 더더욱 없었다. 그저 다른 지역과 이렇다할 특색이 없는 평범한 군에 지나지 않았다(이석형 군수와의 인터뷰 내용).

<sup>30</sup> 그러던 중 이석형 군수가 군수로 당선되고 나서 함평군청의 뒷산인 기산봉에 올라 함평천을 내다보며 아, 저 넓은 함평천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그곳을 꽃으로 뒤덮으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나비전문가와 의논을 통해 그 넓은 함평천에 나비를 풀어 나비축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 군수는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평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비는 친환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생물로 친환경농업과 나비가 결합한 나비축제를 개최하면 함평군이 친환경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비축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석형 군수와의 인터뷰 내용).

## 1.2. 나비축제의 추진 과정

나비축제의 시작은 함평들판을 가로지르는 함평천의 정비사업에서 출발했다. 민선 자치 2기가 시작된 이후 함평군은 함평읍내를 가로지르는 함평천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하고 유채 10만 평과 주변농경지 24만 평에 환경농업을 상징하는 자운영 꽃단지를 조성하고부터 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때 다양한 나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 곤충연구가 정현천씨가 함평군의 나비축제 계획에 동참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함평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곤충연구소를 설립하고 나비와 곤충을 부화시키는 일을 계속 추진하였다.<sup>31</sup>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전반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축제추진위원회와 군청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나비축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김성학 2003). 결국 친환경농업군을 조성하려는 군정의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들이 점차 환경적인 요소와 결합하면서 함평군은 관과 민의 절묘한 결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나비축제를 기획해 추진해 왔던 것이다.

## 1.3. 나비축제의 내용

<sup>31</sup> 정현천 씨는 전남 무안출신으로 20여 년 동안 나비와 곤충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수집한 나비와 곤충 2천8백5십종에 2만8천여 마리의 표본을 제작하여 나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나비의 부화와 생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 우리나라 나비와 곤충의 증식과 복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은 함평농업기술센터 산하 곤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나비축제에 공급할 나비생육과 표본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준 2003).

1999년 5월에 처음 시작한 함평 나비축제는 2004년 현재 총 6회째 개최되었다. 나비축제의 프로그램 구성은 나비의 신선한 이미지를 통한 환경농업, 문화, 관광, 경제가 결합된 형태로 제1회 때부터 지금까지 큰 틀은 변함없지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왔다. 함평 나비축제의 특징은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라는 단일한 주제를 설정하고 매년마다 부제를 설정해 축제의 시의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양성은 나비라는 주테마에서 시작해 꽃, 천연염색, 문화예술, 그리고 농촌어메니티라는 농촌의 종합적인 특성을 소재로 한 범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표 4-2. 함평 나비축제의 개최 연혁

| 개최 횟수 | 개최 기간            | 주제(부제)                                   |
|-------|------------------|------------------------------------------|
| 제1회   | 1999. 5. 5-5. 9  |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                          |
| 제2회   | 2000. 5. 5-5. 9  |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br>(새천년을 함평나비와 함께!)      |
| 제3회   | 2001. 5. 4-5. 13 |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br>(한국방문의 해를 함평나비와 함께!)  |
| 제4회   | 2002. 5. 4-5. 12 |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br>(나비와 꽃, 천연염색의 만남!)    |
| 제5회   | 2003. 5. 3-5. 11 |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br>(자연과 인간, 문화예술의 만남!)   |
| 제6회   | 2004. 5. 1-5. 9  | 함평으로 나비 보러 오세요!<br>(나비와 꽃으로 일군 농촌 어메니티!) |

자료: 함평군, 『함평 나비축제 성과 보고서』, 2000-04.

나비에서 시작한 축제가 지금에 와서는 농촌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함평 나비축제는 행사프로

그럼도 농업과 농촌에 친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내용은 공간적인 구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각각의 공간에서는 그 주제 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나비축제 행사장은 생태자연학습 마당 등 모두 9개의 행사장에서 각각 분산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군청의 해당 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군내의 다른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함평 나비축제의 특징은 이처럼 행정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군청과 군청산하 기관들도 나비축제에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행사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의 참여과정에서 나오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채워지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에 반영되는 축제 추진과정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군청직원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표 4-3. 함평 나비축제 행사장별 주요 프로그램 목록

| 구분               | 행사내용                                             | 주관                          |
|------------------|--------------------------------------------------|-----------------------------|
| 수생식물 관찰마당        | 수생식물 자연학습장 운영                                    | 농업기술센터                      |
| 종합생태체험마당         | 나비생태관 운영(1,2)<br>표본전시관, 누에학습체험장                  | 농업기술센터,<br>사회경제과,           |
|                  | 천연염색체험 코너<br>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장                       |                             |
| 민속놀이마당           | 전통민속놀이 체험장<br>전통짚공예 전시<br>나비도예학습 체험장<br>나비쌀 떡메치기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br>다면, 의회사무과 |
| 생태자연학습마당         | 양서·파충류 자연학습장<br>투계장 운영, 반달곰 전시장                  | 환경보전과, 산림축수산<br>과, 농업기술센터   |
| 친환경농업 체험마당       | 친환경농업관<br>양생차 제다 시연장<br>남도노동요시연 및 체험장 운영         | 농산과, 읍다면                    |
| 추억만들기 놀이마당       | 환경퀴즈 및 전통가죽물이<br>미꾸라지잡기 체험장<br>보리·완두그스름 체험장      | 산림축수산과, 농산과                 |
| 전시마당행사           | 학생작품전시회, 꽃꽂이 전시회<br>나비·환경 우표 전시                  | 자치민원봉사와<br>보건소              |
|                  | 나비·곤충조형물 전시관                                     |                             |
|                  | 노인작품 전시회                                         |                             |
| 관광객 특별체험마당<br>행사 | 나무곤충만들기 체험                                       |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나<br>산면상수도사업소  |
| 문화예술놀이마당         | 품격높은 문화예술공연                                      | 재무과,<br>자치민원봉사와, 총무과        |

자료: 함평군. 제6회 함평나비축제 연구결과 보고서. 2004. 6.

## 1.4. 함평 나비축제의 지역사회 활성화 영향

### 1.4.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가. 직간접 수입 효과

함평군 집계에 따르면 2003년 나비축제의 수입은 직접수입과 간접수입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직접수입은 행사장 입장료로 3억7천4백만 원, 관광기념품(나르다 상품) 판매수입 9천1백만 원, 군민참여소득 4억7천1백만 원의 수입을 올려 총 12억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수입으로는 기타 함평읍 등 인근음식, 슈퍼, 주유소, 대중교통 등에서 13억1천만 원과 군이미지 제고 및 지역알리기 홍보로 환경농업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농축수산물의 판매가 상승효과로 77억1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따라서 축제로 인하여 얻은 직간접소득은 총 102억3천1백만 원으로 직간접적인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나비축제의 총 개최비용이 6억 6천만원이기 때문에 투입에 의한 산출 효과는 약 15.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 나. 환경농업의 상품화를 통한 주민 소득 개발

함평 나비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집계한 직간접 소득과 연구자들에 의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계량적 분석에 의한 경제적 소득 효과만을 주로 다루는

<sup>32</sup> 이것은 순수한 투입 산출에 의한 소득효과 분석 방법으로 함평군청 공무원들의 행정비용, 군민들의 자원봉사비용 등은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투입액에 넣어 산출하면 실제 소득 효과는 훨씬 적어질 수 있다.

경향이 있으나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 활성화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계량적 분석에 의한 함평 나비축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함평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소득개발 활동과 그 효과들을 파악했다.

#### ①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현재 함평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에는 ‘나비상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평군의 환경농업이미지 향상 노력의 결과가 농민들에게 인식되었다는 반증이다. 현재 함평군에서는 환경농업을 통해 자운영쌀, 나비쌀 등 브랜드쌀이 점점 더 확대돼 가고 있다.

2003년 현재 함평군에서 친환경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는 338호이고 총 면적은 234.92ha로 조수익은 약 27억 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운영쌀, 나비쌀브랜드로 유명한 함평군 친환경쌀의 재배 방법을 살펴보면 오리농법과 쌀겨농법이 각기 80여 ha안팎으로 거의 비슷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게르마늄농법도 약간 실시되고 있다. 쌀에 비해 채소류와 과수는 아직 많지 않는 편이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아직까지는 쌀이 178.10ha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채소 16.20ha, 과수 38.83ha, 기타 1.77ha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증농가의 대부분이 저농약 단계에 머물고 있어 향후 고품질, 청정 농산물 생산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군청,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물생산조합 등 관련 주체들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4-4. 함평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득

단위: 호, ha, 톤, 백만 원

| 구분  |        | 농가수 | 면적    | 생산량   | 조수익   |
|-----|--------|-----|-------|-------|-------|
| 벼   | 오리농법   | 134 | 84.9  | 306   | 918   |
|     | 쌀겨농법   | 142 | 89.5  | 403   | 806   |
|     | 게르마늄농법 | 5   | 3.7   | 14    | 42    |
|     | 소계     | 281 | 178.1 | 723   | 1,766 |
| 채소류 |        | 22  | 16.2  | 567   | 405   |
| 과수  |        | 33  | 38.8  | 630   | 520   |
| 기타  |        | 1   | 1.8   | 1     | 4     |
| 계   |        | 338 | 234.9 | 1,921 | 2,695 |

자료: 함평군청 농산과 내부자료(2003).

표 4-5. 함평군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단위: 호, ha

| 구분     |     | 계   |        | 쌀   |        | 채소 |       | 과수 |       | 기타 |      |
|--------|-----|-----|--------|-----|--------|----|-------|----|-------|----|------|
|        |     | 호수  | 면적     | 호수  | 면적     | 호수 | 면적    | 호수 | 면적    | 호수 | 면적   |
| 인증     | 무농약 | 22  | 22.78  | 14  | 14.46  | 7  | 6.55  | -  | -     | 1  | 1.77 |
|        | 저농약 | 162 | 116.22 | 124 | 74.63  | 5  | 2.76  | 33 | 38.83 | -  | -    |
|        | 계   | 184 | 139.00 | 138 | 89.09  | 12 | 9.31  | 33 | -     | 1  | 1.77 |
| 예비인증면적 |     | 153 | 95.90  | 143 | 89.01  | 10 | 6.89  | -  | -     | -  | -    |
| 계      |     | 337 | 234.90 | 281 | 178.10 | 22 | 16.20 | 33 | 38.83 | 1  | 1.77 |

자료: 함평군청 농산과 내부자료(2003).

##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확대

함평군은 이미 전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농업예산에서 환경농업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나비축제 기간 중에 큰 호응을 얻었던 친환경 농업관은 농림부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아 상설화를 위해 설계 중에 있을 정도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함평군은 나비축제를 통해 가꾸어진 지역의 깨끗한 환경이미지를 농업 생산소득과 연계시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2004년도 군청 내부자료를 보면, 올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크게 자운영벼 수매 및 직불금 지급, 청정미생산단지 확대 조성,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촉진교육,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 등 크게 4가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함평군 친환경농업 사업 현황

|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
| 자운영벼 수매<br>및 직불금<br>지급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350,000천원 (전액 군비)</li> <li>자운영 재배: 1,790ha</li> <li>자운영벼 수매: 수매물량 - 36,000가마/조곡40kg</li> </ul>                             |
| 청정미생산단지<br>확대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량: 240.5ha/30개소/377농가</li> <li>사업비: 257,787천원(군비 및 자부담)</li> <li>사업내용: 오리, 쌀겨, 게르마늄, 키토산농법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li> </ul> |
| 친환경농산물<br>소비자 촉진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10,000천원(전액 군비)</li> <li>사업대상: 5개소/1,000명</li> <li>지원내용: 오리농기 등 친환경영농 체험교육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식사, 간식비, 기타 제경비의 일부 지원</li> </ul>   |
| 친환경농산물인<br>증농가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량: 139ha/171농가</li> <li>사업비: 118,020천원(보조 및 자담)</li> <li>사업내용: 친환경인증농지에 대한 유기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li> </ul>                         |

자료: 함평군청 농산과 내부자료(2004).

그림 4-2. 함평 나비철쭉산



함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비 상징물임. 그 아래 눈에 자운영이 심겨져 있음.

그림 4-3. 함평천지 자운영들판



자운영은 좋은 경관작물이자 녹비작물로 쓰임.

이들 사업 중에서 특히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촉진 교육사업은 최근에 만들어진 사업으로 그 비중이 높다. 이 사업은 함평군의 친환경농산물을 간접적인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축제 등을 통해 이곳을 찾는 도시소비자들에게 함평군의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함평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와 유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도시소비자들이 제2의 함평군민으로 발전해 그들이 함평을 선전하고 홍보하게 하는 전략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이미 홍성군이나 화천군 등 선진 친환경농업지역에서 이미 도입된 사업이기도 하다.

연도별 함평군청의 친환경농업분야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3년도에 들어와 사업비는 그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반해 사업량은 2002년도에 다소 줄었다가 2003년도에 다시 증가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직불제, 인증농가지원, 청정미생산단지사업 규모는 최근에 대폭

증가한 반면, 토양개량, 자운영직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초반에 어느 정도 기반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현상유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4-7. 친환경농업분야 지원 현황

단위: ha, 천원

| 사업명           |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8,744 | 1,203,876 | 6,782 | 1,317,876 | 9,022        | 1,637,931 |
| 토양개량          | 5,345 | 367,834   | 5,292 | 343,449   | 5,981        | 411,085   |
| 푸른들가꾸기        | 1,680 | 244,658   | 1,000 | 160,000   | 1,790        | 286,400   |
| 친환경직불제        | 15    | 8,384     | 43    | 22,427    | 63           | 34,996    |
| 인증농가지원        | -     | -         | 16    | 32,000    | 48           | 81,500    |
| 청정미생산단지       | 22    | 33,000    | 80    | 160,000   | 139          | 203,100   |
| 자운영답직불        | 1,680 | 350,000   | 350   | 350,000   | 1,000        | 350,000   |
| 친환경농업지구<br>구성 | 2     | 200,000   | 1     | 250,000   | 1            | 250,000   |
| 소비자촉진교육       | -     | -         | -     | -         | 2,085<br>(명) | 20,850    |

자료: 함평군청 농산과 내부자료.

이들 사업 중에서 농민들로부터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이 푸른들가꾸기사업이다. 이 푸른들가꾸기사업에서는 농민들에게 자운영을 보급하고 있는데 자운영에 대한 농민수요가 대폭 늘어나 현재는 현재 군비로 다 보전해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운영이 친환경농업에 주는 다양한 혜택들은 아래의 주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자운영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sup>33</sup> 그러나 함평군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향후 농림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농업경관보전직불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sup>33</sup> 자운영의 경제적 가치

함평군이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푸른들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자운영심기이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 자운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3월초에는 나물로 이용되고, 둘째, 성장 중간에는 예초해서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셋째, 자운영꽃은 양봉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넷째, 자운영의 아름다운 꽃은 나비축제 개최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제공해 주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장을 마친 후에는 퇴비로 이용돼 토양지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많은 역할을 하는 자운영을 함평군청에서는 종자의 보급과 파종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함평군을 친환경농업지역과 나비축제의 본 고장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5월초 나비축제가 시작되기 전인 4월말에는 함평나비축제의 부대행사의 하나로 함평나비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약 6,000명의 참가자가 쇄도했는데 전국 군지역 마라톤대회에 이렇게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마라톤행사는 드물다고 한다. 이는 함평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자운영이 지천으로 널린 아름다운 함평들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나비축제 기간 중에 함평을 방문할 때도 함평 들판에 깔려 있는 자운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나올만큼 잘 가꾸어져 있었다.

### ③ 나비를 통한 농가소득 촉진

지역축제의 이동 개최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대중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축제가 해당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초청되어 이동 개최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소의 소싸움이 유명하게 되자 청도의 소들은 서울 등 외부의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소싸움을 벌임으로써 청도라는 지역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참가료 및 대전료, 소의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함평의 나비축제도 이러한 지역축제의 이동 개최로 적지 않는 경제적 소득 창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청 한 직원에 따르면, 2004년 여름에 서울 ○○동 ○○백화점에 함평의 나비와 곤충을 전시해 주는 대가로 함평농산물 판매코너를 무료로 개설해 함평군 농산물만 1억5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백화점에 자기 지역농산물홍보, 판매코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으나 함평의 경우에는 나비곤충전시관과 홍보 및 판매코너를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sup>34</sup> 그는 이러한 홍보 및 판매 활동에 상당히

<sup>34</sup> “천호동 ○○백화점 로얄층에 1천5백만 원을 나비곤충 전시료로 받고 전시했는데 약 2만 명의 관람객(백화점측에서는 1명당 5만원의 소비를 예상하고 있음)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년간 순회전시로 함평군 농산물은 약 12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결혼식 때 나비를 방사하는 게 부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함평군도 이러한 점에서 힌트를 얻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생명력이 비교적 긴(5개월) 외국산 나비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비는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3회 축제 때 동남아쪽의 나비를 가져와 전시하다가 식물검역소 직원이 알게 돼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 때 함평군청 직원의 아이디어로 우연찮게 청와대에서 나비날리기 행사를 가졌는데 이 행사에

그림 4-4. 나비 생태관 입구



그림 4-5. 자연생태관 내부



고무되어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 함평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하나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지역축제가 보통 일년에 한 번 열리는 단시간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그 시설과 소재들이 대부분 방치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략 사업이다. 즉 지역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외에서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강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함평 나비축제도 이제 새로운 차원의 축제 경영을 통해 나비축제를 통해 지역민들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백화점 전시 판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호응이 좋아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2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나비생태관 등을 건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이순영 과장과의 인터뷰 내용)."

그림 4-6. 나비표본전시관 내부      그림 4-7. 나비생태관 나비 구경



#### ④ 곤충상품 판매로 인한 소득 촉진

최근 들어 나비를 비롯한 곤충이 어린이들에게 학습을 위한 좋은 소재가 됨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문에 나비와 곤충이 좋은 상품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함평나비축제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축제 기간동안 누에의 고치 만드는 과정 등을 소재로 한 상품을 만들어 약 8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또한 함평천지나비영농조합법인에서 현재 장수풍뎅이를 사육하고 있는데 표본 한 쌍에 3만5천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꽤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나비축제 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자원봉사활동가들이 곤충의 생리생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 특히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흥미는 곧 사육곤충 판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 애완용곤충 사육이 인기를 끌어 곤충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다.



### ⑤ 지역투자 촉진 효과

함평 나비축제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가 널리 홍보되어 현재 새로 여러 업체들이 투자를 문의해 오고 있는데 최근 7군데의 골프회사가 함평군에 투자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sup>35</sup> 이외에도 복분자주, 아이스홍시, 호박, 무화과, 창포, 염색 등 농산물을 소재로 한 가공업체들이 이미 투자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

더욱이 함평 나비축제가 이제 6회째에 접어들면서 점차 지역 내 안정적인 틀을 구축함에 따라 지역민들은 이를 통한 다양한 요구가 성취되길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의 나비축제로 인한 지역부가가치 창출에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사실 나비축제는 함평군이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구요. 하지만 이제 올해로 나비축제가 6회째가 되었고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도 어느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비축제를 통해 함평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미지개선 더하기 무엇이(주로 경제적 효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죠. 그래서 축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경제·사회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여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

<sup>35</sup> 함평군에 대한 골프사업의 투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3,790억원 대의 골프장 건립에서부터 골프대학, 골프텔, 그리고 인근의 해수온천장이 연계되어 개발되었거나 개발될 예정임(매경이코노미 2004. 9. 29).

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아이스홍시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입니다. 현재 ○○기업에서 아이스홍시에 ○○억을 투자하고 있고 향후 ○○○억까지 투자할 계획이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가 있지만 5개의 골프장이 함평에 투자된다는 것도 함평군민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축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청정한 함평의 이미지 효과로 오리쌀, 나비쌀 등 함평의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함평군민들은 이제 함평군이 가난과 피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함평문화원 김창훈 사무국장의 인터뷰 내용).

위의 인터뷰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최근 함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함평 복분자주 생산과 감클러스터사업이다. 이들 사업도 함평군이 축제를 통한 외부투자자본의 유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지역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나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와 함평에 대한 지역이미지의 상승은 많은 환경친화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동인이 되고 있다.<sup>36</sup> 그 세부 경위는 다음 내용과 같다.

---

<sup>36</sup> 이석형 군수는 이러한 친환경, 친농업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해 환경과 농업을 동시에 살리면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소득 향상을 가져오는 모델을 개발해 가고 있으며 향후 3-5년이 지나면 함평군이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확신했다.

### ◎ 함평의 복분자주 “레드마운틴”

함평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는 와인으로 상표명은 “레드마운틴(Red Mountain)”이다. 일반적으로 복분자라고 하면 과실주가 대부분이나 함평군에서는 복분자를 다른 차원에서 상품화했다. 병 모양도 가느다랗고 가볍게 했으며 특히 여성들 취향에 맞게 디자인했다.

최근 복분자주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에서 유행처럼 복분자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함평군의 복분자주 개발도 그러한 시류의 일환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함평도 나름대로의 대책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함평군청 관계자는 “복분자주로 유명한 인근 ○○군의 경우에는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전부 농민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에서는 복분자 생산만 농민이 할뿐 가공과 유통은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가공분야에서도 연봉 ○억여 원을 들여 전문가를 영입했고 유통면에서도 유통자산이 ○○○억 넘는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에 공학을 접목하고 농업에 CEO마인드를 접목해야 우리 농업이 살아납니다”라며 함평군의 복분자주인 레드마운틴의 성공을 자신했다.

### ◎함평의 감 클러스터 계획

함평군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감 클러스터사업으로 현재 농림부의 농업클러스터사업에도 신청 중에 있다. 함평군에서 감을 이용한 가공품 중 가장 돋보이는 제품은 아이스홍시이다. 이외에도 감잎차, 감염색, 감나무뿌리공예 제품 등이 생산되고 있고 감이 함평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이스홍시제조업체는 함평군이 적극 유치한 외부기업으로 함평의 깨끗한 자연환경이미지 때문에 함평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스홍시의 인기는 대단한데 보통 한 개에 4천원에 팔리는 이것이 골프장에서는 1만2천 원에 팔리기도 한다. 생으로 팔면 3~5백 원인 것이 가공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함평군은 감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이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 1.4.2. 사회·문화적 효과

앞에서 함평 나비축제로 인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인 효과와도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함평 나비축제에서의 사회·문화적 효과는 보통 수치로 나타내는 경제적 효과와는 달리 그 측정 요소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서는 주로 앞 장에서 서술한 지역사회 애착도와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 주로 심층면접과 축제 시 관찰 내용을 통해 서술하겠다.

#### 가. 지역사회 애착도의 증대

앞 장에서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중에서 사회·문화적 활성화 효과의 하나로써 지역사회 애착도(community attachment)의 증대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지역사회 애착도는 크게 사회심리적인 효과와 사회활동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심리적인 효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애향심, 행복도, 이주에 대한 거부 의사로 측정되며 사회활동적인 효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과의 교류 증진,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의 참여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 나름대로 나비축제의 사회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나비축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큰 변화는 지역에 대한 희망적 요소의 발견이다. 연구자가 함평을 방문해 면담한 대부분의 이 지역 사람들은 함평 나비축제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비축제를 통해 함평군도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지역민들의 희망에 대한 의지이다. 사실 함평 나비축제는 관주도형의 대표적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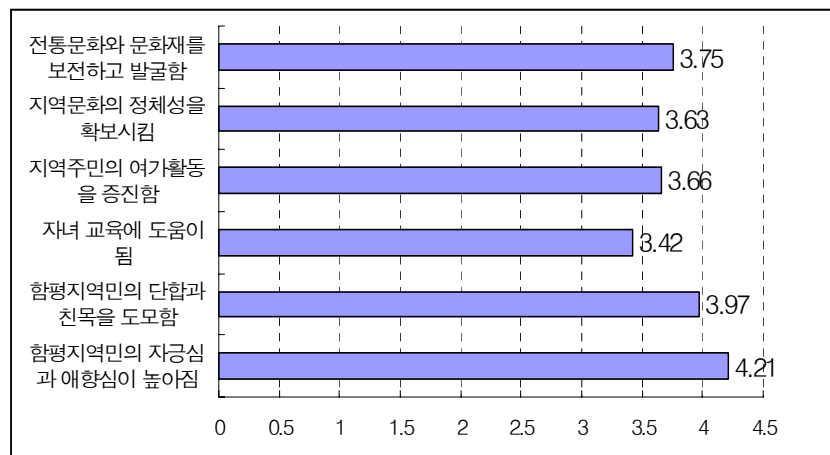
공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성과가 군청과 그 주변부에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효과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 함평군은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의지는 지역주민들보다 행사를 담당하는 군청직원과 관계자들이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즉, 일선 지역민들에게는 그러한 희망적인 요소가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효과는 나비축제를 통해 무엇보다 주민화합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민화합은 어느 다른 지역축제에서도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특히 함평군은 나비축제를 통해 그 효과를 강화했다. 이러한 효과를 반증이라도 하듯 함평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약 97%가 나비축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비축제를 통해 함평지역민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했나’는 질문(5점 척도)에 대한 결과치도 3.97로 꽤 높게 나타났다(함평군 2004).

셋째,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의 증대이다. 6회 동안 나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의 응집력과 화합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함평의 자연과 역사·문화, 그리고 총체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해 강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4-8>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함평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에 대한 결과치는 4.21로 사회·문화적 효과 측정항목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다. 함평나비축제가 관주도로 진행되고 축제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주민참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축제 때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37</sup> 일반적으로 자원봉사가 축제주변의 환

그림 4-8. 함평 나비축제의 사회·문화적 효과



자료: 함평군. 2004. 『함평나비축제의 지역경제 연계 방안』연구 내용 재구성.

경정리, 질서유지, 관광안내가 대부분인 다른 축제와는 달리 나비축제에서는 약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나비생태관 등의 나비곤충에 관한 설명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뤄진다.<sup>38</sup>

<sup>37</sup> 향후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할 것은 이양할 것이지만 아직은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공무원들도 나비축제에 대한 사명감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주도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그리고 무대와 조명설치만 이벤트사의 도움을 좀 받지만 웬만한 행사준비는 공무원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sup>38</sup> 연구자가 나비축제 기간 동안에 나비생태관에 들러 곤충의 부화와 변태 과정에 대해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계속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반복되는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친절히 설명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이 끊이지 않았다.

### 나. 문화활동 기획의 증대 효과

나비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기획의 증대 효과를 우선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림 4-8>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보전하고 발굴했다’가 3.75,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보시켰다’가 3.63,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증진했다’가 3.66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친목과 단결력 등으로 파악되는 사회적 효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나비축제 기간동안 문화예술 활동은 다른 행사프로그램에 비해 많지 않다. 특히 전통민속놀이와 농경문화 체험 그리고 남도노동요시연회 등 몇몇 프로그램을 빼면 문화예술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나비축제가 처음부터 나비라는 자연자원을 소재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전통을 토대로 하는 향토색이 강한 문화예술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은 아무리 군청에서 나서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다행히도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지역 주민들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나비축제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 못지않게 지역문화의 복원과 창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 면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지역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민·관이 함께 가야하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역할이 존재한다. 즉, 축제의 기획은 군청 주도로 하되 문화예술 활동, 교통정리, 청결 유지, 향토음식 개발 등은 주민 주도로 진행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으로만 역할을 분담하지는 않는 게 함평군의 독특한 분위기이다. 결국 함평의

나비축제는 민과 관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일체된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sup>39</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함평의 문화예술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함평문화원의 김창훈 사무국장은 향후 지역축제를 통한 함평의 문화예술활동의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축제의 문화와 역사성 향상을 위해 함평군문화원과 부설 향토 사연구소가 문화컨텐츠 구축과 문화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는 곧 1.2.3차 산업 발전의 분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평문화원에서는 나비와 접목된 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데 특히 백남준의 예술작품(나비 소재), 장자의 ‘호접몽’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여전히 함평군 전통의 전승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계획은 일면 참신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복원과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거리가 있어 향후 이러한 문화활동과 지역성(地域性)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괴리를 줄일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함평군 나비축제의 본질이 생태자연 환경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친환경농업 부가가치 향상이기 때문에 이를 문화와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역사와 문화, 문화 차원에서 관광자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함평군의 경우 나비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은 말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은 상태인 것이

<sup>39</sup> 실제로 함평군청의 직원들과 주민들을 만나 축제에 관한 면담을 해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다. 하지만 함평지역 주민들은 나비축제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지역문화의 진흥이 지역 축제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함평 나비축제의 관심의 영역이 서서히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점차 지역문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1.4.3. 환경 ·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함평 나비축제의 가장 큰 소득은 맑고 깨끗한 “농촌의 자연환경만으로도 축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함평을 상징할 만한 세계 최대 규모의 나비철쭉동산 조성, 행사장 주변의 함평고나비 이미지 통합사업과 나비벽화, 그리고 꽃아치와 어우러진 나비 조형물 등을 통해 함평군의 자연과 문화적 측면을 대내외에 알렸고 축제현장의 자전거도로, 무궁화동산,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공원화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의 불모지인 함평을 관광 함평으로 이미지를 변신시켰다. 또한 함평군의 깨끗한 자연이미지는 그대로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함평 나비축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함평군이 축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하는 것은 나비축제를 통해 유형의 가치보다 무형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함평군은 날아다니는 나비를 끌어들여 함평군을 환경 농업의 중심적 이미지로 부각시켰다. 그래서 이석형 함평 군수는 나비축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그림 4-9. 버스의 나비캐릭터



그림 4-10. 대형 나비조형물



“흔히 농산물축제로는 금산의 인삼축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인삼은 생산면에서 ○○군이 현재 금산군을 앞서지만 ○○군의 인삼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에도 브랜드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평의 나비축제는 함평군의 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줍니다.”<sup>40</sup>

나비축제의 활성화로 함평군 지역은 어디를 가나 나비와 마주칠 수 있을 만큼 나비는 이미 함평군 사람들에게는 생활이 되고 있다. <그림 4-9> 버스의 표지판의 나비그림과 함평입구의 나비시계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표지(sign)는 함평을 찾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함평은 나비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준다.

<sup>40</sup> 이석형 군수가 어느 한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들은 얘기로 ○○○조합의 정○○ 사장은 함평의 브랜드가치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함평의 나비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초창기 나비축제의 성공을 발판으로 ‘나비’를 이용한 함평군의 나비브랜드 디자인개발이다. 함평군수 및 군청 공무원들은 나비축제를 지역 외부로 홍보할 수 있는 판촉 수단으로 나비 심벌과 다양한 매체(로고, 캐릭터, 상품, 포장, 디자인 등)의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때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립했다. 그러나 함평군 내에서 이와 같은 디자인을 개발할 여건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산업디자인업체인 (주)누브티스를 선정해 디자인개발을 착수했다(송희정 2003). 함평군에서는 2000년부터 디자인개발에 1억5천만 원을 투자해 나비캐릭터상품인 ‘나르다’를 개발했는데 처음엔 약간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개발된 캐릭터 상품이 중앙부처의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해 상금만으로도 개발비를 충분히 보전했다. 현재까지 나비캐릭터상품의 판매액은 약 4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함평의 나비브랜드효과는 함평지역의 이미지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까지 증대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sup>41</sup>

<sup>41</sup> 하지만 송희정(2003)은 함평군이 나르다 상품을 판매해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나르다 브랜드는 애초부터 함평 지역의 나비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보다는 나르다 상품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평지역의 이미지나 지명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개별 브랜드 전략에 의한 네이밍이라고 비판했다. 즉 전략의 이점으로 나르다 상품의 매출과 브랜드 라이선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방 정부의 새로운 가치 경영수익의 모델로까지 제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함평 나르다”와 같은 직접적인 지명의 명사사 아닌 나비심벌을 통한 간접적인 지역 전달 방식은 “나비의 고장 = 함평”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 외부로 홍보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르다 상품 개발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송희정(2003)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4-11. 나르다 상품점 1호점



그림 4-12. 행사장내 나르다 상품 판매점



<그림 4-11, 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함평군의 나르다브랜드 상품 개발은 이미 수십여 가지가 넘어서고 있고 그 상품들은 전문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sup>42</sup> 왼쪽 사진은 함평군 읍내에 개설된 함평나르다 1호점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일상용품의 나르다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나비축제 기간 동안 나비생태관 앞에 개설한 나르다 상품 판매전시장으로 각종 나르다 브랜드가 전시·판매되고 있다.<sup>43</sup>

<sup>42</sup> 함평군청 나르다 상품점 판매담당 이○○ 씨(사회경제과)의 말에 따르면 나르다 브랜드점은 전국에 77개소가 있고 이들은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군청에서 디자인 업체를 선정해 로열티를 받고 자기, 넥타이, 스카프, 악서사리 등을 주문 생산, 판매한다. 2003년 총 매출은 6억원이고 1999-2003까지는 총 3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sup>43</sup> 그 중에서도 특히 즉석에서 나비그림을 옷에 새겨 넣어 만든 티셔츠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 1.5. 함평나비축제의 문제점 및 과제

함평의 나비축제가 짧은 기간동안에 일약 우리나라의 생태환경축제의 대표적인 모범 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여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도 다분히 잠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짚어봄으로써 향후 지역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sup>44</sup>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논의의 대상은 함평 나비축제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함평나비축제는 ‘나비’라는 자연친화적이고 참신한 소재를 지역축제에 끌어들여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 지역환경이미지 부각, 친환경농산물판매의 증대를 가져온 가장 성공적인 친환경축제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sup>45</sup> 그러나 많은 지역축제가 그렇듯 함평 나비축제에 있어서도 ‘축제’와 ‘관광’을 명확히 구분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앞서 2장에서도 설명했듯 ‘축제’는 축(祝)과 제(祭)로 구성되며 그 뜻은 유희성(遊戱性)과 제의성(祭

<sup>44</sup> 함평 나비축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고 문제점 또한 지적되어 왔다. 김성학(2003)의 나비축제의 공간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축제 개최의 문제점을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개선안들에 대해 환경 영향, 기획·운영, 경제 영향, 교육 효과, 주민 참여 개선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김준(2003)은 지역축제가 지역 내에서 표출되는 정치적 과정이 지역민들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문제점(특히 환경 파괴 등)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sup>45</sup> 전국의 지역축제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지역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축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79명 중 35%인 28명이 함평 나비축제를 1위로 꼽았고 그 이유로는 친환경적 자연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컨셉의 조화라고 했다.

儀性)으로 압축될 수 있다. 반면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풍광(風光)·풍속(風俗)·사적(史蹟) 등을 유람(遊覽)하는 일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뜻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대부분은 축제보다는 관광의 성격이 강하고 여기에 함평 나비축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sup>46</sup>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축제의 역사가 짧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즉흥적으로 변용되기 때문에 지역축제에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할지 모르나 ‘축제’와 ‘관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역활성화 측면의 관점에서 볼 때도 두 가지에 대한 접근 방법과 시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농촌관광개발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관광개발은 많은 초기투자, 관광소득의 지역외 유출, 관광기호도의 빠른 변화, 그리고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인해 환경의 파괴와 갈등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의 대안으로 지역축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축제’의 ‘관광’화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데 함평 나비축제도 이러한 경향이 다분히 존재한다. 외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시관 위주의 시설들, 나비모형과 건물 신축을 위해 농경지와 산림의 훼손, 그리고 주민들이 배제된 체험과 놀이 행사들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즉 ‘나비’는 있지만 ‘지역주민’은 없는 기형적인 축제로의 발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sup>46</sup> 자료: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php?id=17764>).

<sup>47</sup> 함평군에서는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과 자본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과연 이러한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신과 업적쌓기사업라면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함평 나비축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외부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 동안 지역축제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과 향토문화를 어떻게 하면 축제의 중심으로 끌어 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경문화라는 큰 틀 내에서 주민들의 삶의 원형 복원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함평군 차원에서는 외연의 확대를 위한 전시시설과 편의시설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향토문화를 복원하고 전수(교육)하며 상호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체득과정을 거칠 때야 비로소 역사가 짧은 나비축제가 주민에게도 문화적으로 체화될 것이다.<sup>48</sup>

요컨대 나비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나비축제의 정체성, 지역사회개발, 주민참여와 향토문화 복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sup>49</sup>

## 2. 평창 효석문화제

### 2.1. 효석문화제의 개최 배경

효석문화제는 평창군 봉평면 출신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인 가산(可山)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메밀

<sup>48</sup>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일상과 일탈, 자아와 피아,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나비’가 ‘주민’이 되고 ‘주민’이 ‘나비’가 되는 신명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축제의 원형인 ‘하늘굿’판이 만들어 질 것이다.

<sup>49</sup> 주민들의 향토문화 복원 노력과 성과는 다음 축제 사례인 효석문화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꽃 필 무렵'의 실제 무대인 평창군 봉평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이다. 효석문화제의 전신은 효석백일장대회로 이는 1972년부터 조직된 가산문학선양회(이하 선양회)가 이효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0년부터 평창군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석백일장이 후에 확대·발전되어 1999년 처음 효석문화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되어온 효석문화제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효석 선생을 추모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한다는 것이 축제 개최의 주된 취지이다. 이외에도 문학예술인과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봉평면, 나아가 평창군이 국내외적으로 문학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품격 있고 쾌적한 관광명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함이 효석문화제의 개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2.2. 효석문화제의 추진 과정

### 2.2.1. 봉평의 문화적 인물과 追念 활동

효석문화제가 2004년에 제6회째를 맞았지만 이미 30년 전부터 전국 효석백일장대회(금년 28회) 등을 통해 이효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행사들이 진행되어 왔고, 1999년에 와서야 비로소 제1회 효석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효석문화제가 개최되기 전 봉평지역에서는 봉평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990년 무렵에 물레방앗간과 장터의 복원이 효석문화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이효석과 그의 문학을 추념하는 활동들을 이끌며 단순한 백일장 대회를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축제로 발전시킨 이 지역의 토착 조직인 가산문학선양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축제의 초기단계에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힘만으로



는 어렵기 때문에 선양회와 봉평주민들은 평창군수를 효석문화제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도 했지만 축제의 초창기에는 평창군 차원의 지원은 별로 없었다.

사실 효석문화제의 역사를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6년부터 기획되기 시작했다. 이 해는 효석문화제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되는 해로 안팎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해였는데 이 때가 문화체육부 지정 ‘문학의 해’이자 이효석 탄생 90주년, 추모 54주년이 되는 해여서 향후 이효석의 추모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고 이때 세워진 사업계획들이 오늘날의 효석문화제 사업에도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 1999년 이효석추모사업을 이끌어왔던 박동락 선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지역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단결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도화선으로 효석문화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효석문화제의 초창기인 1회와 2회 때는 여느 다른 지역축제와 같이 평범하게 진행되다가 3회 때부터 역할 분담을 해 군에서 관광공사, 백화점, 여행사, 출입기자 등을 초청해 봉평면을 뎀투어하는 등 홍보와 마케팅을 실시했으며 이때부터 메밀꽃을 잘 조성하고 홍보했다. 그 결과 3회 효석문화제가 시작할 때는 원주에서부터 차가 막히고 장평에서 봉평으로 들어오는 7km가 완전 정체되기도 했다. 이 결과 막국수도 동이 나는 등 효석문화제의 획기적인 발전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계기로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 메밀을 이용한 소득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지역 음식점 등에서는 메밀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는 한편, 옛 모습을 살려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초가형태의 집도 복원했으며 음식점뿐만 아니라 민박, 펜션도 아울러 급속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sup>50</sup>

특히 효석문화제가 2004년 문화관광부의 예비축제로 처음 선정되

면서 효석문화제의 대외 공신력이 인정된 만큼 향후 이 축제가 지역 사회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51</sup>

### 2.2.2. 효석문화제를 이끌어온 사람들

지역축제가 오랜 세시풍습과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래에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에는 지역사회의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들 지역사회 리더의 개인적 내력과 경험의 축적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축제의 내력과 면모를 알 수 있다. 효석문화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축제가 있기까지는 이효석이라는 이 지역출신의 훌륭한 인물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지만 이를 축제로 발전시키기까지는 다음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물들의 내력과 활동들을 이해하는 것은 곧 지역축제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 가. 故 박동락 선생(1932-1999)

오늘날의 효석문화제가 있기까지는 故 박동락 선생이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이 지역 출신으로 가산 이효석 문인 기념사업 발기인 대회 부회장(1972-1982), 봉석회 회장(1982-1996), 강원도 의회 의원(1991-1995), 가산문학선양회 회장(1996-1999) 등을 역임하며 이효석

<sup>50</sup> 봉평면내 생활개선회와 부녀회에서 메밀음식 30여 가지를 개발하고 시식회 등의 행사를 가진다. 방문객들의 메밀음식에 대한 호응도 좋고 판매도 잘 된다고 한다.

<sup>51</sup> 2004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축제로 총 37개가 선정되었고 선정 등급별로 보면 최우수 3개, 우수 9개, 육성 11개, 예비 14개 축제이다. 지원액은 최우수 160백만원, 우수 95만원, 육성 55백만원이고 예비축제에는 지원금이 없다(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http://www.mct.go.kr). 참고).

과 그의 문학을 기념하고 전파하며 후세의 인재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다. 인구 5천명도 안되는 봉평면이 전국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20-30년을 먼저 내다본 그의 선각자적인 노력의 덕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효석문화제는 비록 역사가 짧지만 그 토대는 이미 박동락 선생에 의해 형성된 상태였다. 1975년부터 시작한 백일장대회가 3회까지 진행되다 그 후로 약 7년 동안 대회가 끊기게 되었는데 이때 박동락 선생과 그의 동료들이 논의해 다시 백일장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백일장대회는 오전 10-12시에 글짓기를 하고 오후 4시에 수상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오후 기다리는 시간에 장터를 개설해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효석문화제의 시발점이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박동락 선생이 1999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뜻을 따르는 많은 지역사람들이 모여 이효석의 문학을 선양하고 박동락 선생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그해 처음으로 효석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박동락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효석문학관 입구에 그의 추모비를 세운 것도 박동락 선생의 선견지명과 지역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인 활동 때문이다.

#### 나. 강영하 목사

가산문학선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지역에서는 봉석회(봉평의 ‘봉’과 이효석의 ‘석’자를 따서 만든 이름임)가 발족되어 활동해 왔다. 그 후 1984년무렵 가산문학선양회가 발족되었고 이때부터 강영하 목사는 12년동안 사무국장 등으로 일했다. 선양회에서 강 목사는 효석백일장대회를 주관하는 일 이외에 이효석 생가 복원, 문학관 건립에 헌신했다. 90년대 초에는 가산공원과 물레방앗간을 복원하여 효석문화제의 기반을 다졌다.<sup>52</sup>

강영하 목사가 효석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가장 모델로 삼은 축제가 일본 토카무라의 축제였다. 3년여 동안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강영하 목사가 느낀 점은 지역축제는 반드시 주민 주도로 가야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강 목사가 이곳 축제를 방문하면서 감동받은 것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서는 메밀꽃축제를 포함해 1년에 총 네 번의 축제를 개최하는데 축제 때마다 어린이, 어른, 노인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축제를 준비하고 나뭇대로의 불거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축제의 추진위원장, 지역의 의원 등도 연극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강영하 목사는 이러한 토카무라의 축제에 깊은 감명을 받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봉평에서도 그러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은 목회 일로 효석문화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봉평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sup>53</sup>

<sup>52</sup> 이 당시 봉평면의 물레방앗간 일대가 문화마을(이어령 장관 당시)로 지정이 되었으나 단지 지정만 되었지 문화인프라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후 주민들의 힘으로 이곳을 이효석의 문학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둘 복원되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듯이 봉평의 효석문화제와 지역 활성화는 이곳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이 큰 역할을 했고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효석을 기리기 위한 모임에서 출발한 봉석회와 가산문학선양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활동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며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봉평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효석문화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실행이 되지 못할 만큼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sup>53</sup> 강 목사는 이전에 가나안농학교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곳에서 절실히 터득한 내용은 가나안농학교의 교육사상이기도 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이며 더 나아가 “지역에서 지역의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이념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가나안농학교

#### 다. 김성기 효석문화제위원회 사무국장

김성기 사무국장은 1994년 대학 졸업 후 가산문학선양회에 참여하면서부터 효석문화제에 가담하게 됐으며 현재 효석문화제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인물로 축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성기 사무국장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효석문화제위원회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업은 강원도민속촌과 집필촌 건립이다. 강원도민속촌은 한국민속촌처럼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과 문화적 유산, 그리고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들을 한 장소에 재현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민속을 직접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강원도 평창, 그리고 봉평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 중의 하나이고 전통과 현대, 쾌적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풍토가 다른 지역보다 풍부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계획인 집필촌 건립은 현재 강원도 평창군내에 여러 문인들이 들어와 집필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족스러운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봉평면에 집필촌을 건설해 문인들의 집필활동과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집필촌이 건립되면 많은 문학인들과 문학지망생들, 학생들, 관광객들이 방문해 문학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봉평의 자연과 풍속은 다양한 문학적 소재로 이용되어 결국은 봉평의 문화적 가치의 향상은 물론 봉평이 지역문화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장기적으로는 문학

---

교에서 봉평으로 내려와서도 이러한 이념으로 지역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과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집필촌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에서 이효석과 같은 뛰어난 인물을 육성하기에는 인적 토대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역내 인재 육성보다는 인재의 지역내 유인을 통해 봉평의 문학적 전통을 전승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는 현재 효석문화제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기 사무국장은 효석문화제를 문학, 자연,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가장 서민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이 효석문화제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며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적 요소를 가미해 과거로의 여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도시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축제의 개념이 효석문화제의 중요한 테마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 라. 김남극 봉평고등학교 교사

김남극 선생 역시 봉평 출신으로 강원대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봉평고등학교에 부임해 현재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김남극 선생은 국어교사이자 가산문학선양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이효석의 문학과 그 정신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봉평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특히, 효석문화제 기간동안에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석백일장대회를 주관하는 한편, 이효석문학관에서 매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효석문학 강좌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과 언론에도 자주 출현해 이효석 문학과 효석문화제를 널리 홍보하는 일에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 봉평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리더 중의 한 명이다.

## 2.3. 효석문화제의 개최 내용

### 2.3.1. 효석문화제의 기본 방향

효석문화제는 처음부터 이효석의 문학적 요소와 봉평면의 자연적 환경요소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축제를 기획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의 행사내용은 제1회 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평창군 2003).

- ① 가산 이효석 선생을 추모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효석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킨다.
- ② 이효석의 작품 배경이 되었던 1930년대의 시공간을 축제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축제 참여자들이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③ 봉평의 자랑 메밀밭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과 심신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효석문화제는 이효석과 그의 문화적 아우라(Aura),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 그리고 봉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축제 속에서 융합시켜 문학정신 승화, 지역이미지 부각,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고자하는 기본 방향으로 행사가 개최되었다.<sup>54</sup>

<sup>54</sup> 효석문화제 자체로만 보면 이 축제에는 이효석과 그의 문학만에 치중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방문객들의 74%는 메밀꽃 구경 때문에 봉평에 올 정도로 메밀꽃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전에 축제의 명칭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다. 축제에 어떠한 식으로든 ‘메밀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 다음과 같은 소설가 박경리의 글이 효석문화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좋은

### 2.3.2. 효석문화제의 행사 내용

#### 가. 효석문화제의 개요

- 기간: 2004년 9월 10일-19일(10일간)
- 장소: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대
  - 축제행사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효석문화마을과 효석문화관, 이 효석생가 등에서 진행되지만 이외에도 덕거예술인촌(달빛극장), 무이예술관에서도 연극 및 예술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음.
- 주관: 효석문화제위원회
- 후원: 문화관광부, 강원도, 평창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원문화예술진흥원, (주)보광휘닉스파크

#### 나. 효석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

2004년도 효석문화제의 프로그램은 문학, 자연체험, 전통체험, 문화예술전시, 공연, 국제민속공연, 기타 등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표 4-8>과 같다.

---

참고가 될 것 같아 인용한다.

“원고 한 장에 만 원 이상을 받는데, 밤에 글을 아니 쓰고 따라서 말려놓은 녹두를 신문지 위에 깔아놓고 돌로 두드리며 녹두알을 쫄어 모으면, 그것이 1,000원이나 500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 가치보다 훨씬 소중하고 아깝다. 그것은 무한한 신비, 생명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우주의 주재자에 대한 신비일 것이다.”

시장의 교환가치와는 관계없이 값어치로 치면 문학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절규의 말(김형국 2002)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4-8. 효석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 행사 내용                                                                                                                                                                                                |
|------------|------------------------------------------------------------------------------------------------------------------------------------------------------------------------------------------------------|
| 문학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회 전국효석백일장</li> <li>- 문학심포지엄</li> <li>- 이효석 창작교실</li> <li>- 시화전</li> <li>- 효석문학상</li> <li>- 이효석 문학강좌</li> <li>- 퀴즈대회(봉평과 이효석)</li> <li>- 문학의 밤</li> </ul> |
| 자연체험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속 메밀꽃밭 여행</li> <li>- 흙으로 빚는 소설속 등장인물</li> <li>- 물가 동네마당</li> <li>- 봉숭아 물들이기체험</li> </ul>                                                                  |
| 전통체험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메밀음식 만들기</li> <li>- 전통장터 재현</li> <li>- 전통농사놀이체험</li> <li>- 대화합 메밀국수 만들기</li> <li>- 전통민속놀이</li> <li>- 전통 찹쌀떡 만들기</li> <li>- 우마차타기</li> </ul>              |
| 문화예술전시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사진공모전</li> <li>- 전국 사진입선작 전시</li> <li>- 기타 전시(조류전, 사진전)</li> <li>- 봉평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li> <li>- 무이예술관 예술체험</li> </ul>                                       |
| 공연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의 밤</li> <li>- 거리콘서트</li> <li>- 사물놀이</li> <li>- 연극공연</li> <li>- 국악 한마당</li> <li>- 취타 대행진</li> <li>- 전통타악놀이</li> <li>- 영화상연</li> </ul>                     |
| 국제민속공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토가촌 민속공연</li> <li>- 중국 요령성 심양시 민속공연</li> <li>- 네팔 민속공연</li> <li>- 평창군 전통 민속공연</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밀음식 시식회</li> <li>- 가장행렬</li> </ul>                                                                                                                         |

주: 위의 프로그램 행사 내용은 효석문화제위원회가 기획한 내용으로 실행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간동안 비가 자주와 많은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 2.4. 효석문화제의 지역활성화 영향

### 2.4.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가. 직접 소득창출

제5회 효석문화제 평가보고서(2003)에 따르면 축제 기간동안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49,58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지역 내에서 지출한 총 지출액을 추정하기 위해 외지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에 외지방문객 수를 곱하여 총 지출액을 산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축제방문객들의 지출을 통해 지역 내에 직접 유입된 금액은 약 90억3천9백만 원으로 산출됐다.<sup>55</sup> 이 가운데 식·음료비가 3,646,886천 원(40.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숙박비 2,165,803천 원(24.0%), 쇼핑비 1,928,858천 원(21.3%), 유흥비 544,325천 원(6.0%), 교통비 394,348천 원(4.4%), 기타비용 358,890천 원(4.0%)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산출 결과를 볼 때 축제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이 80%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효석문화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에 대해 그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효석문화제가 열리는 봉평면 지역

<sup>55</sup> 이때 교통비 항목은 현지교통비만을 포함시켰으며 외지 방문객 수는 평창지역을 제외한 관광객 점유비율 94.5%를 근거로 239,580명으로 추정하였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석문화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적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목은 크게 소득증대효과, 외부투자효과, 관광효과, 메밀생산 및 판매효과로 구분해서 조사했다.

설문결과 효석문화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관광활성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4.27)으로 나타나 앞의 계량적인 효과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소득증대효과, 외부투자효과, 메밀생산 및 판매효과도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4-9. 효석문화제 방문객 지역내 지출액

| 구 분   | 1인당 지출액(원) | 총지출액(천원)  | 구성비(%) |
|-------|------------|-----------|--------|
| 교통비   | 1,646      | 394,348   | 4.4    |
| 숙박비   | 9,040      | 2,165,803 | 24.0   |
| 식·음료비 | 15,222     | 3,646,886 | 40.3   |
| 유흥비   | 2,272      | 544,325   | 6.0    |
| 쇼핑비   | 8,051      | 1,928,858 | 21.3   |
| 기타비용  | 1,498      | 358,890   | 4.0    |
| 계     | 37,729     | 9,039,111 | 100.0  |

자료: 평창군. 2003. 『5회 효석문화제 평가분석 및 정체성 연구』.

표 4-10. 효석문화제의 봉평지역 경제활성화 영향

| 항목                         | 세부 항목                     | 평균<br>(표준편차) | 구성비(%)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소득<br>증대<br>효과             | 주역주민의 소득 향상               | 3.92(.91)    | 2.0    | 7.0  | 17.0 | 45.0 | 29.0 |
|                            | 개인적인 경제적 도움               | 2.87(1.10)   | 13.0   | 23.0 | 34.0 | 24.0 | 6.0  |
|                            | 메밀 외 다양한 소재이용 소득 창출       | 3.42(.93)    | 2.0    | 13.0 | 38.0 | 35.0 | 12.0 |
| 외부<br>투자<br>효과             | 외부 투자 증대                  | 3.74(1.02)   | 4.0    | 7.0  | 23.0 | 43.0 | 23.0 |
|                            | 토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 3.51(.90)    | 1.0    | 15.0 | 26.0 | 48.0 | 10.0 |
| 관광<br>효과                   | 봉평면의 관광활성화 증대             | 4.27(.87)    | 1.0    | 4.0  | 9.0  | 38.0 | 48.0 |
|                            |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업 성장        | 4.23(.97)    | 3.0    | 3.0  | 11.0 | 34.0 | 49.0 |
|                            | 내지상인에 비해 외지 상인들의<br>수입 증대 | 3.61(1.01)   | 3.0    | 10.0 | 28.0 | 39.0 | 19.0 |
| 메밀<br>생산<br>가공<br>판매<br>효과 | 메밀재배로 소득 향상               | 3.46(.92)    | 1.0    | 14.0 | 34.0 | 39.0 | 12.0 |
|                            | 다양한 메밀음식 및 가공품 개발         | 3.87(.90)    | 1.0    | 9.0  | 14.0 | 54.0 | 22.0 |
|                            | 지역농산물 판매가격의 상승            | 3.31(.92)    | 2.0    | 17.0 | 37.0 | 36.0 | 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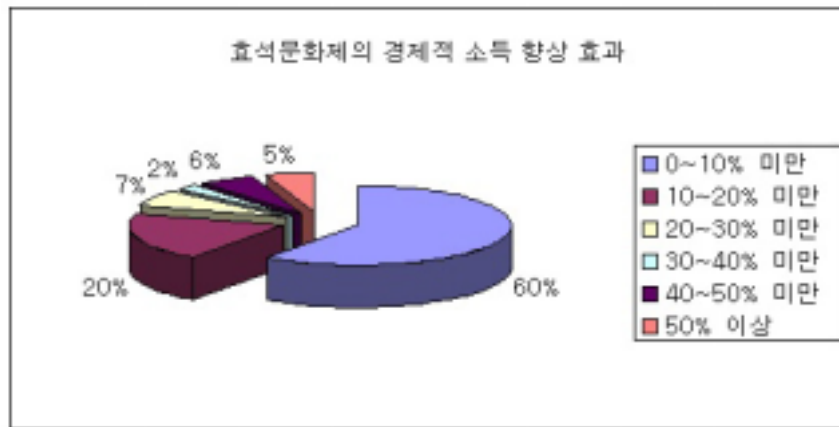
주 1) 이 결과는 2004년도 효석문화제 기간에 봉평면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설문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척도별 내용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임.

#### 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 평가

하지만 소득증대효과의 세부항목인 효석문화제로 인한 개인적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2.8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효석문화제를 통해 봉평면 지역 전체적으로는 관광의 활성화와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별 주민들에게는 아직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축제시 내지 상인보다 외지 상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의 수치(3.6)가 높

그림 4-13. 효석문화제의 경제적 소득 향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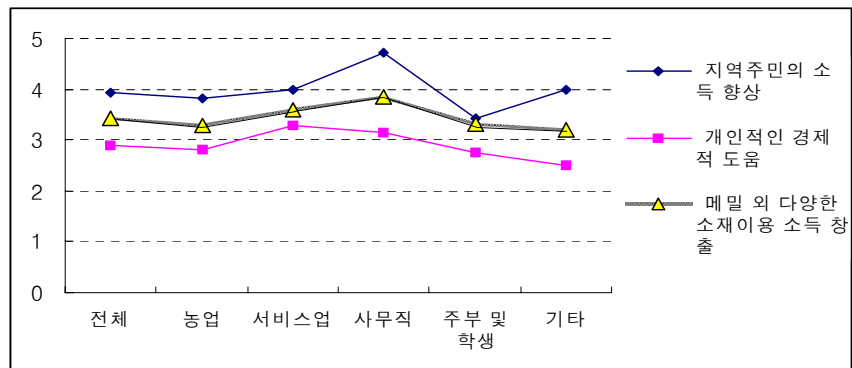


주: 봉평 주민 66명의 응답 결과임.

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외부 유출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13>에서도 나타났듯이 효석문화제로 인해 봉평지역 주민의 경제적 향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정도가 0~10%라고 대답해 아직까지 경제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봉평면 지역주민의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 4-14>봉평지역 주민의 직업에 따른 효석문화제의 경제적 영향 중 소득증대 영향 부문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일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효석문화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업, 농업, 주부 및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된 ‘개인적인 경제적 도움’ 항목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도 일부 면지역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그림 4-14. 봉평지역 주민의 직업에 따른 효석문화제의 경제적 영향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봉평지역의 대다수 지역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소득 증대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효석문화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점은 현재 메밀의 재배로 인한 소득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메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지역 농산물이 축제 이후 가격면에서 다른 지역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더 발전시킨다면 지역 및 농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메밀음식 판매 증가

위에서 효석문화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정 방법으로 직접 유입액과 주민평가 이외에 봉평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문이 바로 지역 내 메밀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증가이다. <표 4-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효석문화제가 시작되기 무렵인 1996년 평창군 전체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수에서 봉평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12.9%에 불과했으나 2002년 통계에서는 2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의 증가는 효석문화제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 메밀이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전원풍경의 이미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메밀음식이라는 독특한 향토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축제 전 몇 곳밖에 되지 않았던 메밀음식점이 축제 후 20여 곳으로 늘었다. 최근에 생긴 음식점들은 대부분 봉평의 정서적 분위기와 어울린 향토색 짙은 건물이 많아 관광명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sup>56</sup>

표 4-11. 연도별 평창군 숙박 및 음식점 사업체수

단위: 개, %

|      | 평창군  | 봉평면 | 비율   |
|------|------|-----|------|
| 1996 | 941  | 122 | 12.9 |
| 1998 | 1028 | 150 | 14.6 |
| 2000 | 1091 | 188 | 17.2 |
| 2002 | 1112 | 220 | 20.0 |

자료: 평창군. 『평창통계연보』 각연도.

<sup>56</sup> 한 지역주민에 따르면 이들 음식점은 연평균 약 1억 8천에서 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슈퍼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축제기간동안 약 3천만원의 매상을 올린다고 한다.

## 2.4.2. 사회·문화적 효과

### 가. 봉평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효석문화제가 이 고향 출신인 이효석과 그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순수민간인 모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봉평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이며 활발하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세부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설문항목은 크게 지역의 인구변화, 관심도, 애착도, 신뢰도, 협력, 문화활동 촉진 등 6개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4-12>를 통해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지역사회에착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효석문화제 이후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가 가장 높은 3.96(약간 그렇다 이상이 78%)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효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가 3.90(약간 그렇다 이상이 74%)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석문화제에 대한 본래의 취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잘 부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자긍심은 심리적 만족도와도 결부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나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에 대한 봉평면 주민의 대답은 비교적 높은 수치인 3.78(약간 그렇다 이상이 66%)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생활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신뢰도 측정에서는 효석문화제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효석문화제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신뢰수준은 3.61이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87로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석문화제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도 평균군청과



봉평면사무소의 협력이 3.89로 높은 편이고 반면, 인근 관광휴양시설과는 이보다 낮은 3.38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지역주민간 갈등에 대해서는 2.78로 낮은 수준을 보여 효석문화제로 인한 지역주민 간 또는 단체간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단결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효석문화제의 봉평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 항목                  | 세부 항목              | 평균<br>(표준편차) | 구성비(%)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인구<br>변화            | 외지인의 유입 증가         | 3.92(.94)    | 2.0    | 5.0  | 20.0 | 44.0 | 29.0 |
|                     | 고향사람의 귀향 증가        | 3.45(1.07)   | 2.0    | 17.0 | 36.0 | 24.0 | 21.0 |
| 지역사<br>회관심          |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       | 3.66(1.03)   | 3.0    | 11.0 | 24.0 | 41.0 | 21.0 |
|                     | 이효석과 그의 작품 관심 증대   | 3.62(1.01)   | 2.0    | 10.0 | 35.0 | 31.0 | 22.0 |
| 지역<br>사회<br>애착<br>심 | 이효석에 대한 자긍심 증대     | 3.90( .85)   | 1.0    | 5.0  | 20.0 | 51.0 | 23.0 |
|                     | 봉평지역에 대한 자긍심 증대    | 3.96( .84)   | 1.0    | 5.0  | 16.0 | 53.0 | 25.0 |
|                     | 봉평지역 거주 지속 의향      | 3.24(1.06)   | 5.0    | 19.0 | 35.0 | 29.0 | 12.0 |
|                     | 봉평지역 거주 만족도        | 3.78(1.08)   | 3.0    | 11.0 | 20.0 | 37.0 | 29.0 |
| 지역<br>사회<br>신뢰      | 효석문화제위원회에 대한 신뢰감   | 3.61(1.07)   | 5.0    | 7.0  | 31.0 | 35.0 | 22.0 |
|                     | 효석문화제위원회의 역할 강화    | 3.87(1.03)   | 3.0    | 6.0  | 23.0 | 37.0 | 31.0 |
| 지역<br>사회<br>협력      | 평창군청과 봉평면사무소의 협력   | 3.89( .95)   | 1.0    | 7.0  | 24.0 | 38.0 | 30.0 |
|                     | 인근 관광업체 등과의 교류     | 3.38(1.11)   | 5.0    | 16.0 | 33.0 | 28.0 | 18.0 |
|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간 갈등     | 2.78(1.08)   | 11.0   | 33.0 | 30.0 | 20.0 | 6.0  |
| 문화<br>활동<br>촉진      | 지역주민간 문화활동 증대      | 3.43( .88)   | 2.0    | 12.0 | 35.0 | 43.0 | 8.0  |
|                     | 축제시 공연 및 예술 활동에 참여 | 3.55(1.14)   | 3.0    | 19.0 | 21.0 | 34.0 | 23.0 |
|                     | 문화시설 건립으로 문화활동 증대  | 3.87( .95)   | 2.0    | 6.0  | 21.0 | 45.0 | 26.0 |

주 1) 이 결과는 2004년도 효석문화제 기간에 봉평면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설문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척도별 내용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임.

효석문화제의 영향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내 인구 유입의 증가이다. ‘축제 후 외지인의 봉평지역 유입이 늘었다’가 3.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봉평면의 전출입 이동률은 평창군 전체보다 낮게 나타는데 최근 들어 봉평면은 전출보다는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효석문화제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축제 후 외지에 있는 고향사람의 귀향이 늘었다’가 3.45로 나타나 현재 과소화 돼 가고 있는 농촌에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효석문화제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평창군 전입인구 추이

|      | 평창군  |      |      | 봉평면 |     |      |
|------|------|------|------|-----|-----|------|
|      | 전입   | 전출   | 이동률  | 전입  | 전출  | 이동률  |
| 1997 | 4823 | 5586 | -1.7 | 529 | 613 | -0.2 |
| 1998 | 4988 | 5196 | -0.4 | 536 | 540 | -0.0 |
| 1999 | 5321 | 6149 | -1.7 | 542 | 615 | -0.1 |
| 2000 | 4635 | 5591 | -2.0 | 458 | 524 | -0.1 |
| 2001 | 4653 | 5272 | -1.3 | 468 | 495 | -0.0 |
| 2002 | 5319 | 5478 | -0.3 | 659 | 514 | 0.3  |

자료: 평창군,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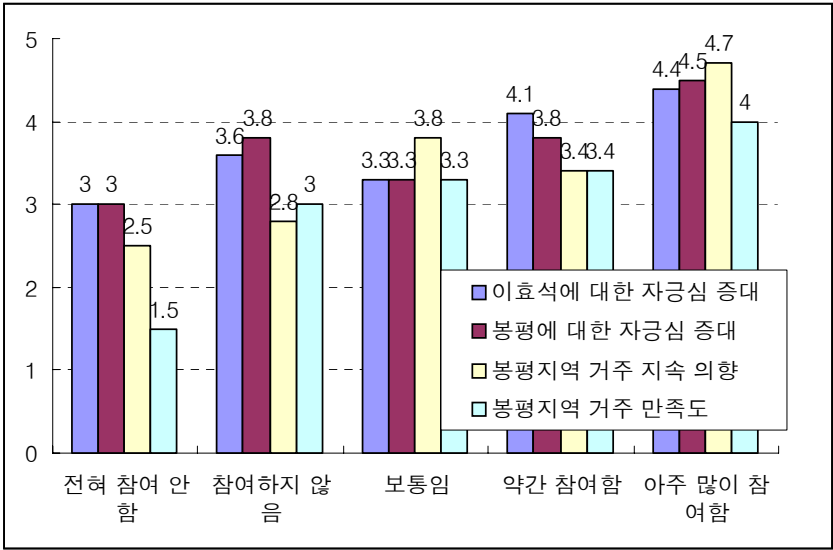
#### 나. 효석문화제와 지역주민의 참여활동

효석문화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수준을 보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으로 활동이 증대됐다’는 의견은 3.87로 높았으나 ‘지역주민간 문화활동이 증진했다’가 3.43, ‘축제 시 공연 및 예술활동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3.55 수준으로 문화적 시설의 증대 수준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표 4-12>.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축제와 달리 효석문화제의 특징은 평창군에서 참여하는 두 개의 행사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봉평주민들이 실행하고 있다. 특히 행사의 주요 예술프로그램인 판소리, 북춤, 취타대, 장고, 사물놀이, 국악, 관현악 등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연출한다.

이러한 지역내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지역주민들은 봉평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음의 <그림 4-15>을 보면 효석문화제기간 동안 공연 및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효석에 대한 자긍심 증대(4.4), 봉평에 대한 자긍심 증대(4.5), 봉평지역 거주 지속 의향(4.7), 봉평지역 거주 만족도(4.0) 등 4항목 모두 참여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집단들이 애초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효석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효석문화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축제의 주최측은 지역축제에 주민들을 어떻게 조직화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4-15. 효석문화제 참여 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심 정도



또한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에 지역 내의 다양한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보수를 받고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없고 138명의 조직원(그 중 50명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맡아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학생들과 부녀회도 적극 참가해 『봉평아라리』 등의 공연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다. 문화예술활동의 증대**

효석문화제가 활성화되면서 봉평지역 내 다양한 관광문화시설과도 연계를 맺고 활동하게 되는 데 특히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지역의 관광문화시설인 ○○○파크와 ○○농원과도 교류가 잦아졌다. 이들은 효석문화제 기간동안 효석문화제위원회와 협의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에는 봉평지역 내 폐교를 활용해 문화예술공간의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효석문화제와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있는 곳은 무이예술관과 덕거예술인촌이다. 이들의 봉평지역내 유입은 효석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봉평지역이 자연과 문화예술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봉평지역에 문화와 예술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전입해 온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57</sup>

그렇다면 봉평지역 내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인 무이예술관과 덕거예술인촌의 사례를 통해 이들 문화예술단체들이 봉평지역 내로 유입되면서 효석문화제 기간동안 어떠한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연과 전시를 하고 있는지 세부 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① 덕거예술인촌

덕거예술인촌은 봉평면 소재지에서 차로 7분정도 떨어진 덕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예술을 자연 속에서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자 폐교된 덕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야외공연장이다.<sup>58</sup>

이곳은 3년 전 연극인 유○○의 개인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시작되었으며 해가 거듭되면서 뜻을 같이 한 문화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2004년에 개관할 수 있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2004 봉평 달빛극장』은 봉평 유시어터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로써

<sup>57</sup> 최근에는 봉평지역 내 오페라학교도 개설되었다.

<sup>58</sup> 이곳에는 연극제작, 연극을 통한 청소년 교육 및 연습교육, 제작 실습을 위한 공간으로 옛 덕거초등학교 1만 2천 평의 대지 위에 350석의 야외극장, 스튜디오, 무대제작실, 의상제작실, 숙소, 야외식당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지역의 문화 발신>과 <다중 문화의 융합>, <연극 역사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하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도 하다.

덕거예술인촌의 행사 중에 주목되는 부분은 제6회 효석문화제 개최에 즈음하여 이곳에서 처음 개관한 극단 유시어터의 『2004 봉평 달빛극장』인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향점은 향후 지역과 자연을 지향하는 문화 예술 활동에 큰 방향 제시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소박하고 순수한 문화축제이다. 축제명 등 전체적인 축제 개념 역시 로맨틱한 야간 축제의 이미지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연계한 이미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자연과 예술의 융합이다. 자연 자체를 이용한 무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달빛이 비치는 객석 디자인,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 사이 오솔길에 자리잡은 무대 소품, 청결하고 시원한 야외식당에 유쾌하게 벌어지는 젊은 설치 작가전이 구상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자원과 민간 경영의 전개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극장이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점이다.

그래서 이들 연극을 통한 궁극적 목표는 도농간 교류, 지역 예술, 지역 문화 운동의 거점화와 지역 예술 문화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01년 밀양연극촌이 처음으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시작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는데, 이는 중앙 중심의 연극예술활동에 반기를 들고 문화의 뿌리인 지역으로의 이동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의 대중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밀양연극촌에 이은 봉평 덕거예술인촌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역내로 이식시키는 활동으로 향후 지역문화 활동에 중요한 지향점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그림 4-16. 달빛극장의 <책읽어주는 카페><sup>59</sup>

사진은 효석문화제 기간에 찾은 방송인 이금희 씨가 아름다운 산문을 읽으며 이곳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이 함께 그 내용을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 ② 평창무이예술촌

이곳 역시 폐교된 봉평면 무이초등학교를 유명예술인들이 개조한 곳으로 현재 봉평면의 문화와 창작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창작실(화실, 서예실, 도예실, 조각실, 가마2기), 전시실

<sup>59</sup> 달빛극장 프로그램의 하나인 <책읽어주는 카페>에서는 박정자, 유열, 유준상 등 유명 방송연예인이 초대가 되어 자신이 선정한 아름다운 시와 산문 그리고 희곡을 읽어주며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과 직접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 효석문화제의 또 다른 문화적 향기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낱 시골마을에 지나지 않는 봉평면 덕거리의 폐교를 품격 높은 문화공간으로 개조함으로써 봉평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봉평면이 새로운 차원의 문화 예술의 메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활동들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어서 효석문화제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그림 4-17. 무이예술관 조각작품들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음.

그림 4-18. 무이예술관 건물 내부



메밀그림, 도자기, 서예전시실 등이  
있으며 사진은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전경.

(그림전시실, 도예전시실), 야외조각공원, 체험강의실(서예강의실, 강당 및 세미나실)과 작가숙소 등이 있다. 도자기전시실에는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도예공방이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곳의 특색은 운동장에 수십여 점의 조각을 전시해 공원형태로 꾸몄고, 도자기와 서예, 그림이 각 교실마다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봉평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러한 작품설치와 전시는 대부분 이 지역출신이거나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오상욱, 도예가 권순범 등 3명의 예술인의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경운 정연서 화백은 30년 동안 봉평에서 메밀꽃만을 그려온 향토 메밀꽃 작가이기도 하다. 이곳 예술관 주위에는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메밀꽃밭도 7천여 평 조성되어 봉평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봉평의 또 다른 예술문화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 라. 봉평의 지역문화와 전통의 부활

효석문화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새롭게 자각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지역문화의 보전과 진흥이다. 이 축제가 원래 이효석과 메밀꽃을 소재로 한 지역문화에 모태를 두고 출발했지만 사실 이들 소재만으로는 효석문화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축제의 기간이 10일이나 되고 축제의 공간적 여건도 봉평면 소재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 더 발전된 축제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석문화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봉평만의 특유한 문화와 전통의 부활과 창조였는데 이것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역주민들의 일본 토카촌 메밀축제 방문을 통해서이다.<sup>60</sup> 주민들이 일본 토카촌 축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 <sup>60</sup> 일본의 토카촌축제의 사례

조그마한 토카촌에서 일년에 4번의 축제를 개최하여 연간 약 35억 엔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창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비슷한 이곳 토카촌을 故 박동락 선생이 알게 되어 지역사람들을 손수 대동해 이 지역을 참관시키고 공부했으며 두 지역간 상호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토카촌 역시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골짜기에는 집 몇 채밖에 남지 않는 곳이었지만 축제 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귀향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한다.

또한 이 작은 지역에 박물관만 4개가 있으며 축제 때 80-90개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촌의원, 촌장 등 중심인물들이 직접 참여해 전기, 수도 시설 등 축제 준비를 지역민과 함께 진행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함께 연출한다는 것에 봉평주민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지역축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효석문화제위원들과 지역주민들 200여 명이 토카촌을 방문하면서 배운 점은 비단 축제프로그램이 아니라 축제를 만들고 연출하는 그들의 사상을 배웠다고 한다. 그들은 많은 것을 외지에서 배워오지만 “우리 것은 우리가 만든다”는 신념으로 모든 사람이 축제를 준비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자각을 했고 그 후 봉평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봉평지역주민들이 일본의 토카촌 축제 방문 때의 일입니다. 그 축제를 구경하다 저희가 놀란 것은 음식점에서 일하다가도 행사가 진행되면 옷만 갈아입고 무대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 받았죠. 귀국 후 지역주민들간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봉평의 주민들도 문화와 예술을 취미생활로 해 언제 어느 때고 공연과 생활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 모임이 쭉버덩소리패입니다. 봉평(蓬坪)의 순 우리말이기도 한 쭉버덩(쭉이 많은 들판이라는 뜻)소리패는 53명의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소리를 되살리고 전승하자는 취지에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많이 미숙하지만 한 10년이 지나면 봉평 고유의 소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효석문화제위원회 강영하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그 결과 실제 효석문화제는 무대와 조명장치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몇 가지 일만 빼고는 모든 준비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도 거의 대부분 지역주민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효석문화제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반증임을 알 수 있다.

### 2.4.3. 환경 · 지역이미지 효과

#### 가. 메밀꽃이미지 만들기와 그 효과

효석문화제가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주된 이유는 이효석이라는 향토인물과 그의 대표작품인 “메밀꽃 필 무렵”을 잘 활용하여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케 한 아름다운 메밀꽃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효석문화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 중 메밀꽃을 보기 위해 봉평을 찾는다는 사람이 전체의 75%나 된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를 뒷받침한다. 또한 효석문화제가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효석문화제에 참여하면서 평창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6%가 효석문화제 참가를 계기로 평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1.7%로 극히 적어 효석문화제가 평창지역(봉평면)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창군 2003).

그렇다면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에 비해 봉평면 지역주민들 스스로는 효석문화제를 통해 지역의 환경과 지역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봉평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축제 이후 ‘봉평면의 이효석과 메밀꽃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높아졌다’가 무려 4.20 이상을 보여 축제로 인한 지역이미지 향상 효과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제 이후 봉평의 청정한 자연환경 이미지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3.57)고 응답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봉평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중대규모 기업체의 투자가 필요하다’(3.62)보다는 봉평의 토지는 개발보다 보호되어야 한다(4.14)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봉평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기업의 투자유치보다는 효석문화제를 통한 관

광, 문화, 친환경농산물 판매가 더 우선이다'(3.85)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메밀밭의 무단진입으로 인한 훼손과 개화시기와 축제시기와의 다름으로 인해 메밀밭이 잘 가꾸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봉평을 찾는 방문객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메밀밭조성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축제기간 중에 메밀밭을 직접 관찰한 결과 메밀밭 조성과 관리차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 4-19, 20, 2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4-14. 효석문화제를 통한 봉평면 주민의 환경·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 항목        | 질문 사항                      | 평균<br>(표준편차) | 구성비(%)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환경<br>이미지 | 청정한 자연환경 이미지 향상            | 3.57(1.03)   | 2.0    | 15.0 | 26.0 | 38.0 | 19.0 |
|           | 주민의 자연환경의식 향상              | 3.54(.99)    | 3.0    | 11.0 | 31.0 | 39.0 | 16.0 |
|           |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 3.32(1.07)   | 5.0    | 15.0 | 39.0 | 25.0 | 16.0 |
|           | 축제로 인한 환경훼손 증대             | 3.56(1.08)   | 2.0    | 16.0 | 29.0 | 30.0 | 23.0 |
| 지역<br>이미지 | 농산물의 대외인지도 증대              | 3.70(.92)    | 2.0    | 7.0  | 28.0 | 45.0 | 18.0 |
|           | 메밀꽃 고장이라는 이미지 증대           | 4.24(.98)    | 3.0    | 4.0  | 8.0  | 36.0 | 49.0 |
|           | 이효석 고향이라는 인식 증대            | 4.26(.90)    | 2.0    | 2.0  | 12.0 | 35.0 | 49.0 |
|           | 메밀꽃과 이효석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 | 4.24(.92)    | 2.0    | 3.0  | 12.0 | 35.0 | 49.0 |

주 1) 이 결과는 2004년도 효석문화제 기간에 봉평면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설문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척도별 내용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임. 위의 결과치는 각 항목의 평균수치임.

그림 4-19. 무단진입으로 훼손된  
메밀밭



효석문화제 방문객의 75%정도가 메밀꽃을 보러 온다고 할 정도로 메밀꽃은 효석문화제의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축제 기간동안에 찾아드는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등으로 메밀밭이 훼손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메밀밭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유료이든 무료이든 사진촬영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4-20. 꽃이 진 메밀밭



축제기간 중에 메밀꽃이 만개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메밀밭이 꽃이 진 상태이다. 이는 날씨와 상관성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축제시기와도 연관이 많이 있다. 따라서 축제시기와 메밀꽃 개화시기를 더 세심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될 것이고 메밀의 품종마다 개화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화시기별 메밀파종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림 4-21. 메밀꽃과 메밀음식점



메밀밭 주변에는 메밀음식점들이 위치하고 있다. 메밀밭을 잘 보전하는 것이 상업적인 이익까지 가져다준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곳 음식점 상인들은 주변의 메밀꽃을 잘 보전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축제 기간에 만개한 메밀꽃을 연출하기란 쉽지 않다. 날씨와 개화시기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

#### 나. 메밀밭 조성 현황과 문제점

메밀꽃이 봉평면 나아가 평창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메밀밭의 조성과 관리를 직접 관장하게 됐다. 2004년 현재 메밀밭 조성에는 총 35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대상지는 이효석의 생가주변과 그 주변인 무이리, 원길리, 창동 등 3개 지구에서 총 22.23ha가 경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인근 대규모 휴양단지인 ○○○파크와 용평면 주변까지 확대돼 가면서 그 면적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연도별 메밀밭 조성 현황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메밀꽃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

| 구분 | 지역          | 참여농가<br>(호) | 규모<br>(ha) | 사업비(천원)   |           |        |
|----|-------------|-------------|------------|-----------|-----------|--------|
|    |             |             |            | 계         | 보조(군비)    | 자부담    |
| 97 | 남안동, 생가터    | 15          | 10         | 30,000    | 30,000    | -      |
| 98 | 남안동, 생가터    | 20          | 9.4        | 28,200    | 28,200    | -      |
| 99 | 남안동, 원길리    | 20          | 11.8       | 68,502    | 68,502    | -      |
| 00 | 남안동, 원길리    | 26          | 13.3       | 60,000    | 60,000    | -      |
|    | (수확기)       |             |            | 70,000    | 35,000    | 35,000 |
|    | 소계          | 26          | 13.3       | 130,000   | 95,000    | 35,000 |
| 01 | 남안동, 원길리    | 25          | 13.7       | 62,000    | 62,000    | -      |
|    | 무이리         | 6           | 8.4        | 19,304    | 19,304    | -      |
|    | 소계          | 31          | 22.1       | 81,304    | 81,304    | -      |
| 02 | 남안동, 원길, 무이 | 30          | 21         | 94,500    | 94,500    | -      |
| 03 | 남안동, 원길, 무이 | 30          | 21.50      | 94,500    | 94,500    | -      |
|    | 백옥포리        | 5           | 2.48       | 11,158.5  | 11,158.5  | -      |
|    | 소계          | 35          | 23.98      | 105,658.5 | 105,658.5 | -      |
| 04 | 창동, 원길, 무이리 | 35          | 22.23      | 100,000   | 100,000   | -      |

자료: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부 자료.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밀꽃단지가 처음 남안동과 원길리(이효석 생가터 주변)를 포함한 봉평면 일대에서 시작해 무이리, 더 나아가 인근면인 백옥포리(용평면)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식재면적과 사업비도 계속 증가해 왔다.

다만, 2004년에 처음으로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기존 메밀밭 조성사업의 주체가 영농법인에서 향후 메밀밭조성과 효석문화제를 총괄하고 있는 효석문화제위원회로 사업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평창군이 메밀꽃밭조성을 위해 사업비(직접지불제 성격)를 지출하는데 이는 토지임대계약 방식에 의한 보상금의 성격이다. 보상의 계산방식은 임대대상지가 감자를 식재할 때 조수익을 평당 4,000원으로 보고 메밀의 평당 생산량의 농협매입가를 따져 그 차액에 해당하는 평당 1,500원을 설정했다

이 1,500원의 세부적인 보상 조건을 보면, 토지임대료로 토지소유자에게 평당 1,300원을 주고 경작 단체에게는 경작 수확비용으로 평당 200원이 지급된다. 즉, 200원이 경영비가 되는 것이다. 이 보상금의 규모는 매년 약 1억원 정도가 되며 평창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효석문화제위원회(2004년부터)가 집행을 대행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효석문화제위원회가 농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다시 평창군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작 원칙으로는 첫째, 모든 일정(재배)은 효석문화제 일정에 맞추어 개화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정하고, 문화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메밀꽃밭 테마시설물에 대해 적극 협조하며 세 번째는 메밀파종 후 개화수확까지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다.

## 2.5. 효석문화제의 문제점과 과제

전체적으로 효석문화제는 고장의 인물(이효석), 아름다운 자연환경(HAPPY700의 쾌적한 자연환경), 정감어린 농촌 및 농업경관(메밀꽃밭), 먹을거리(메밀을 이용한 음식과 봉평장터) 등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핵심 소재들이 어울린 훌륭한 지역축제로 평가된다. 특히 효석문화제의 가장 큰 장점은 추진주체가 관이 아닌 순수민간단체가 축제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효석문화제에도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축제 주변지역의 무질서와 무계획에 의한 자연경관(메밀꽃 경관 포함)의 훼손 문제이다.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속에 나오는 모습을 재현한 물레방앗간은 영성한 재현 자체도 문제이지만 주변의 메밀음식점의 난무와 도로가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아 낭만적인 감성의 자극은 고사하고 그 모습 자체가 위태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으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할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곳뿐만 아니라 이효석문학관 주변 또한 최근에 들어선 건물들로 인해 그 경관적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등을 실시할 경우 이 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고창군이 2004년에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해 제정한 『고창군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안』 등을 참조하여 이 지역을 ‘경관농업특별지구(가칭)’로 지정해 무질서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전원풍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봉평지역에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활동단체와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의 문제이다. 효석문화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상승으로 봉평지역에는 현재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예



술인 단체가 유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무이예술관과 덕거예술 인촌이고 최근 들어 오페라학교도 들어섰다. 그리고 기존에 봉평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인근의 관광휴양시설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단체와 시설들이 현재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 일시적인 연계를 맺고 상호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상호조화를 이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비전이 없다. 더욱이 효석문화제위원회에서도 장기적으로 봉평지역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강원도민속촌과 집필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주위와 연계를 맺지 못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 가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효석문화제위원회까지 굳이 나서서 규모와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위의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이들간의 상호네트워크 구축하며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효석문화제위원회가 지역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홍천 찰옥수수축제

#### 3.1.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배경 및 추진 과정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1997년 홍천옥수수시험장과 홍천군농업기술센터(당시 농촌지도소)가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고 그 실천방안으로 홍천옥수수의 홍보와 품질 평가의 일환으로 홍천옥수수시험장에서 소규모로 시작한 전형적인 농산물축제이다.<sup>61</sup>

소규모 축제였지만 그 당시 강원도 지사(최각규)도 참석할만큼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의 대표 농산물인 감자를 이용한 감자축제보다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소규모의 농산물축제이다 보니 개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최 장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sup>62</sup>

축제 초반에는 옥수수시험장의 순수하고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시작했고 축제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다. 이후 축제가 활성화되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옥수수시험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지역 전체적인 농산물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홍천 군청의 행정력이 필요해 축제 자체도 곧 홍천 군청으로 이관됐다.

## 3.2.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개최 내용

### 3.2.1. 홍천찰옥수수축제 행사 개요, 2004

- 축제명: 제8회 홍천찰옥수수축제  
(The 8th Hongcheon Waxy Corn Festival 2004)
- 개최 기간: 2004년 7월 30일 - 8월 1일(3일간)<sup>63</sup>

<sup>61</sup> 홍천에서 찰옥수수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하 옥수수시험장에서 개발한 신품종이 이곳에서 제일 먼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sup>62</sup> 장소를 한 곳으로 정하지 못하고 북창관광휴양단지, 홍천농업고등학교, 상오안초등학교로 옮겨 개최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두촌면과 홍천읍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6회와 7회를 옥수수의 주산지인 두촌면 역내리 청소년수련장에서 개최해 두촌면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sup>63</sup> 농산물축제 치고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개최시기가 이전 축제 때(작년 8월 8일-10일)보다 좀 앞당겨져 옥수수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관광객수도 작년보다 약간 줄었다고 한다.

- 개최장소: 홍천군 청소년수련원(두촌면 역내리 가리산자연휴양림 입구)<sup>64</sup>
- 주 최: 홍천군 찰옥수수축제위원회
- 주관<sup>65</sup>: 홍천군,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읍면농협)
- 참여단체: 옥수수작목반, 농업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옥수수시험장,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홍천축협, 두메식품, 홍천감자떡

### 3.2.2. 홍천 찰옥수수축제 행사 내용, 2004

축제프로그램은 축제의 소재와 부합되게 옥수수빨리먹기, 옥수수 껍질까기, 옥수수퀴즈대회, 옥수수탑쌓기, 찰옥수수따기 등 옥수수 관련 이벤트 행사와 옥수수요리전시, 자료관운영, 전시판매장, 옥수수 삼곳 등 상설 및 부대행사를 비교적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매년 학술행사로 홍천찰옥수수의 품질향상과 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외적으로 홍천찰옥수수의 브랜드 향상 노력과 내적으로 기술향상을 통한 품질 향상 노력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sup>64</sup> 그동안 축제를 지내오면서 장소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많이 변경되기도 했다. 특히 홍천군 읍내의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 읍내에서 축제를 개최하자는 주장도 계속 있어왔으나 옥수수의 주산지가 두촌면과 서석면이고 또 이곳에 옥수수시험장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확실하게 두촌면에서 개최됐다. 군에서는 향후 축제 이미지 고양을 위해 시설과 주변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sup>65</sup> 농산물축제이어서 농협중앙회와 작목반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축제추진위원회도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이 맡고 있고 진행에 있어 작목반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표 4-16.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주요 행사 내용

| 행사명             | 주요 행사 내용                                                                                                                        |
|-----------------|---------------------------------------------------------------------------------------------------------------------------------|
| 기념 행사           | 천신제, 개막식, 축하공연                                                                                                                  |
| 옥수수관련<br>이벤트 행사 | 옥수수빨리먹기, 옥수수여러알 붙여따기, 옥수수껍질까기, 옥수수제기<br>차기, 옥수수퀴즈대회, 옥수수백일장, 옥수수미로찾기, 옥수수탑쌓기,<br>옥수수이고달리기, 찰옥수수따기                               |
| 상설 및<br>부대 행사   | 옥수수개발요리전시, 옥수수자료관운영, 옥수수음식만들기체험, 찰옥<br>수수 및 농특산품전시판매, 옥수수구워먹기, 옥수수삼겹, 옥수수무료시<br>식코너, 원산지비교전시회, 옥수수빵튀기, 짬뽕공연시연 및 전시, 향토<br>음식판매장 |
| 학술 행사           | [홍천찰옥수수 명품화 전략 심포지엄]<br>내용: 강원도 찰옥수수 육성현황과 개발방향<br>찰옥수수의 품질관리 및 친환경농법 개발<br>옥수수 식품가치 및 전통음식 현황과 개발 방안<br>찰옥수수 유통개선 및 상품화 제고 방안  |

### 3.2.3. 홍천 찰옥수수축제 개최 현황

1997년에 시작해 2004년도에 제8회째를 맞는 찰옥수수축제는 중간에 개최지와 주최 선정 문제로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이제까지 끊이지 않고 개최되어 최근에는 홍천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농산물축제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련 단체들이 상호연계가 되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면 찰옥수수축제가 축제 개최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어 왔는지 홍천 군청의 자료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축제 개최 비용을 보면 초창기에 약 1천여 만 원에 불과했으나 그후 계속 비용이 증가해 2004년도에는 약 1억2천6백만 원 정도 소요됐으며 이중 군청 지원은 1억원이다. 이는 2003년의 5천만 원에 비해 두 배 증가된 액수인데 이것은 홍천군 차원에서 그만큼 찰옥수수축제에 대해 관심이 증가됐다는 반증이다. 기타 비용으로는 도비가 7백만 원, 강원문화재단 지원이 5백만 원, 홍천농협의 지원이 백만 원이다. 또한 관광객 수도 1999년 집계 시작 때 1만 명에서 2004년 3만 명으로 약 3배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6</sup>

표 4-17. 찰옥수수축제 추진 현황

| 연도   | 회 | 장소     | 사업비(천 원) |         |       |                |        |          | 방문객 수<br>(천 명) |
|------|---|--------|----------|---------|-------|----------------|--------|----------|----------------|
|      |   |        | 계        | 군비      | 도비    | 강원<br>문화<br>재단 | 농협     | 기타<br>수입 |                |
| 1997 | 1 | 옥수수시험장 | 11,000   | 11,000  | -     | -              | -      | -        | -              |
| 1998 | 2 | 각 읍면   | -        | -       | -     | -              | -      | -        | -              |
| 1999 | 3 | 북창휴양단지 | 27,623   | 23,900  | -     | -              | 3,000  | 723      | 10             |
| 2000 | 4 | 홍천농고   | 36,000   | 30,000  | -     | -              | 6,000  | -        | 12             |
| 2001 | 5 | 오안초교   | 52,619   | 30,000  | 5,000 | 5,000          | 10,000 | 2,619    | 15             |
| 2002 | 6 | 청소년수련원 | 88,922   | 60,000  | 5,000 | 5,000          | 10,000 | 8,922    | 12             |
| 2003 | 7 | 청소년수련원 | 78,216   | 50,000  | 5,000 | 5,000          | 10,000 | 8,216    | 30             |
| 2004 | 8 | 청소년수련원 | 126,729  | 100,000 | 7,000 | 5,000          | 10,000 | 4,729    | 30             |

자료: 홍천군청 농축정과 내부 자료.

<sup>66</sup> 최근 관광객 수가 정체된 원인은 날씨 탓이 많았다고 한다. 축제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날씨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방문객은 대폭 줄어든다고 한다.

### 3.3.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지역활성화 영향

#### 3.3.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비교적 소규모 농산물축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축제 개최로 인한 지역 내 경제 효과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효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는 옥수수의 재배면적 변화 추이와 옥수수판매액의 변화로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겠다.

다음의 <표 4-1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제이후 홍천군내 옥수수 재배면적은 2001년 524ha에서 계속 증가해 2004년도에는 677.4ha를 기록했다. UR농업협상 이후 대폭적인 농산물시장의 개방화로 국내 농산물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증가는 지역특산물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 재배는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생산면적 증가에 못지않게 판매액도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3억7천6백17만 원이었던 찰옥수수 판매액이 5년이 지난 2004년에는 무려 77억2천2백36만 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해 홍천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7</sup> 이는 홍천군이 지역특산물인 옥수수를 단순 농산물 판매가 아닌 축제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브랜드상품으로 홍보해 얻은 결과이기에 그 가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up>67</sup> 옥수수판매량이 증가한 원인 중 또 하나의 이유는 옥수수 수확시기의 조절이다. 옥수수시험장의 민황기 장장은 이전에 옥수수수확기는 8월 10일이면 완료가 됐는데 지금은 시차재배교육을 통해 8월말까지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홍천 군청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03년도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홍천군의 전체적인 찰옥수수 판매 수익과 향토음식물 및 기타 판매수익은 70억8백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그 중 69억6천3백만 원(두촌 찰옥수수작목반 6억 원, 서석찰옥수수작목반 2천4백만 원, 도로변 등 지정판매소 6억3천만 원, 정보화시범마을 인터넷판매 2천백만 원, 농협 및 농가판매 56억8천9백만 원)은 판매수익이며 향토음식 및 기타 판매실적은 4천5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찰옥수수를 통해 옥수수생산 면적과 판매량의 증가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적 영향도 가져왔다. 축제가 8회째를 맞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홍천군이 찰옥수수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판매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8. 홍천 옥수수의 파종면적 및 판매금액

단위: ha, 천ha, 천원

| 연도   | 회 | 옥수수 재배면적(ha) |       | 판매금액<br>(천원) | 전국 옥수수<br>재배면적(천ha) |
|------|---|--------------|-------|--------------|---------------------|
|      |   | 전체 옥수수       | 찰옥수수  |              |                     |
| 1997 | 1 | 939          | -     | 27,747       | 21                  |
| 1998 | 2 | 865          | -     | -            | 20                  |
| 1999 | 3 | 953          | -     | 376,166      | 20                  |
| 2000 | 4 | 833          | -     | 414,310      | 16                  |
| 2001 | 5 | 771          | 524   | 4,608,000    | 14                  |
| 2002 | 6 | 930          | 546   | 5,071,000    | 17                  |
| 2003 | 7 | -            | 586   | 7,008,000    | 17                  |
| 2004 | 8 | -            | 677.4 | 7,722,360    | -                   |

주 1) 홍천군 옥수수 전체 재배면적은 홍천군 통계연보(2003)를 참조했고 찰옥수수 파종면적은 농축정과 내부 자료를 참고했음. 그리고 전국 옥수수 재배면적은 농림업 주요통계(2004)를 참조했음.

2) 판매금액은 찰옥수수 전체 생산에 대한 판매금액임.

그러한 가공품 중에는 옥수수동동주, 옥수수올챙이국수, 옥수수국수, 옥수수칩떡, 옥수수엿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옥수수를 이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인 서석면의 옥수수편방과 옥수수를 이용해 만든 증류주인 옥선주의 판매량도 증가해 향후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sup>68</sup>

### 3.3.2. 사회·문화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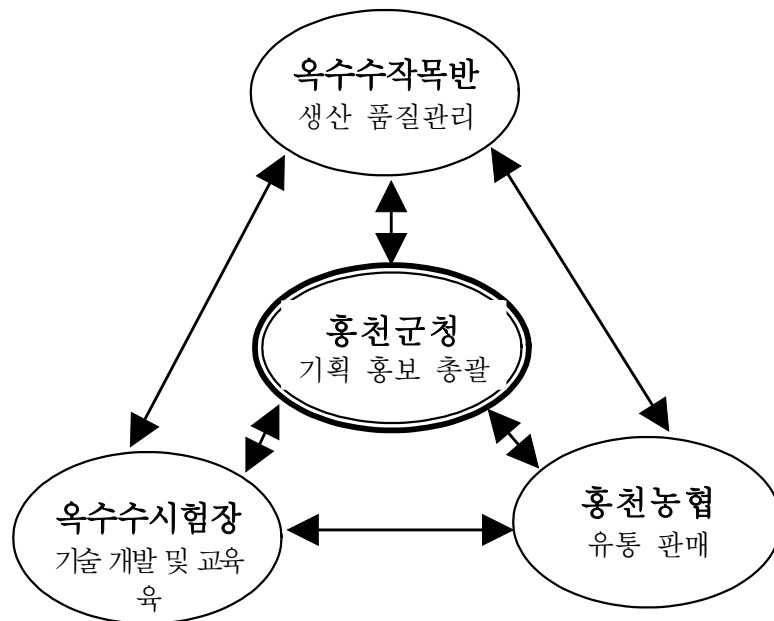
#### 가. 지역사회 참여 효과

홍천군의 찰옥수수축제가 활성화되게 된 배경에는 옥수수와 둘러싼 관련 주체들간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군청에서는 축제의 기획과 홍보 등에 주력해 축제를 준비하고, 홍천농협은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며, 옥수수시험장에서는 새로운 품종개발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주체는 축제를 처음부터 기획했던 옥수수시험장으로 옥수수재배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와 자부심으로 옥수수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실제 농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sup>68</sup> 하지만 문제는 축제 기간동안에 이들 특산품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축제에 먹을거리에 대해 인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좀더 다양한 특산물들이 더 잘 홍보되기 위해서는 특산물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4-22.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지역사회 협력 체계



특히 최근에는 옥수수 집하장을 옥수수시험장 내에 설치해 찰옥수수를 수확과 함께 바로 선별·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농민들의 옥수수판매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그림 4-22>. 옥수수 판매와 유통은 주로 작목반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옥수수시험장이 기술개발과 보급에만 국한하지 않고 판매와 유통에도 적극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최근 옥수수작목반은 찰옥수수 신품종재배 및 시차재배 등에 관해 옥수수시험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찰옥수수의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시차재배로 축제기간 동안 고품질의 찰옥수수 생산 확대와 판매 증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4-23. 옥수수시험장 전경



그림 4-24. 옥수수 선별 집하장



### 3.3.3. 환경 · 지역이미지 효과

홍천 군청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옥수수축제 개최는 홍천군이 처음은 아니고 이전에 인근 ○○시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는 다른 소재를 이용해 큰 규모의 축제를 준비함에 따라 옥수수축제는 유명무실했다고 한다. 사실 옥수수재배 면적에서도 보면 홍천군은 인근 ○○시보다 적다.<sup>69</sup> 2000년 농업총조사 통계를 보면 옥수수 수확면적 규모에서 ○○시는 3,592ha이고 홍천군은 3,427ha로 홍천군이 약 165ha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up>69</sup> 현재 이러한 수요량을 충족시키고 판매확대를 위해 현재 군청에서 6억여 원을 들여 저장 창고를 만들고 있다. 이 저장창고가 설치되면 8월 옥수수 가격 하락의 방지와 홍천찰옥수수를 사계절동안 먹을 수 있게 되어 홍천찰옥수수의 홍보를 더 촉진할 수 있다.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도 홍천찰옥수수의 품질이 뛰어나 가격도 좋다고 한다. 2004년에 이 저장창고가 완성되면 약 30ha 면적에서 생산한 옥수수의 저장, 가격 파동 상쇄, 성탄절 출하, 신선도 유지, 옥수수재배면적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홍천 찰옥수수축제로 인해 홍천군이 ‘옥수수의 고장’으로 홍보됨으로써 홍천의 찰옥수수는 현지에서는 현재 서울 등 대도시와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수요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축제가 여름철에 개최되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몰려 있는 다른 축제에 비해 시기적인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휴가를 위해 강원지역을 찾는 많은 피서객들에게도 자연적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어 홍천 찰옥수수 이미지는 더욱 고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 3.4.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문제점과 과제

#### 3.4.1. 전체적인 평가

강원도의 대표 작물 중 하나인 옥수수를 홍천군이 축제를 통해 옥수수의 주산지가 홍천군임을 부각시키고 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은 비단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발전적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홍천군에 옥수수를 발전시킬 충분한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주체들간 협력도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축제의 시작도 농업기술개발 보급기관이 선도한 점은 다른 지역축제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즉, 지역의 농업기술개발 보급 기관이 농업생산기술과 보급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어떻게 하면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밀착형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다른 시·군 농업기술개발 보급기관에도 좋은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또한 축제행사와 더불어 매년 학술행사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홍천군 찰옥수수의 품질향상과 유통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하지만 축제기간동안 홍천찰옥수수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옥수수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과 요리가 개발 시연되고 있는데 반해, 행사 중에는 옥수수판매에만 치중할 뿐 가공품을 홍보하고 시연하는 노력은 별로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축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고 그 동안 홍천군의 찰옥수수가 전국적인 브랜드이미지를 얻어왔으나 옥수수 주산단지로서 찰옥수수축제 이외에 별다른 농촌관광사업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진청의 전통테마마을, 그리고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옥수수와의 연계사업이 아직까지는 없어 이 방면의 사업을 적극 발굴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옥수수시험장이 위치한 두촌면 장남1리는 교통도 편리하고 옥수수와 관련한 기반 여건이 갖추어져 향후 농촌관광이나 특화사업으로 개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3.4.2. 향후 과제

홍천 찰옥수수축제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축제공간의 이미지 만들기이다. 축제 개최현장에 옥수수축제다운 이미지를 형상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옥수수옴막 등 옥수수축제다운 분위기를 형상할 수 있는 공간가꾸기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홍천군 중에서도 다섯 면인 두촌, 화촌, 내촌, 서석, 내면이 주산지이며 이들 면이 W자를 형상하고 있어 군에서는 이들 지역을 W벨트 단지로 조성할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옥수수시험장측에서도 약 3만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축제활성화를 위해 약 3천 평의 밭을 축제장 설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부지를 잘 활용해 특색있는 축제장을 건립한다면 이 지역 활성화에도 더욱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품질 개선을 통한 차별적 옥수수브랜드 이미지 만들기이다. 옥수수시

협장 민황기 장장에 따르면, 찰옥수수에는 크게 미백찰과 흑점찰 두 종류가 있는데 향후 홍천 찰옥수수만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흑점찰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흑점찰과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약간 높으며 소비자들도 흑점찰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70</sup> 그래서 더욱 축제를 통해 홍천찰옥수수만의 브랜드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는 대체작목으로써의 고품질 옥수수의 생산과 작목반의 역할 확대이다. 농가에서는 옥수수 1개당 220원~250원 정도면 쌀재배를 옥수수재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수수재배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두촌면의 옥수수작목반에는 현재 약 200여 농가가 있고 약 40만 평을 재배하고 있고, 그 농가수와 면적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의 재배와 선별, 판매, 유통측면에서 작목반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며 이들 작목반이 결국에는 홍천 찰옥수수축제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험과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의 장으로써의 축제만들기이다. 지역축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외적 홍보 활동을 증대시키고 축제 기간 중에는 학술활동, 백일장, 신문과 방송취재활동 등 관련자들을 적극 참여토록 한다. 특히 방학중인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축제가 열리는 두촌면 지역주민의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나 읍내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편이다.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통해 두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up>70</sup> 최근 들어 검은색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흑점찰과에는 안토시아닌색소가 있어 이것이 항암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

#### 4. 사례 지역축제의 종합적인 평가

앞에서 특성이 각각 다른 세 개 축제의 사례를 통해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 세 지역축제의 주된 소재, 개최시기, 행사 주체, 예산 등의 현황을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표 4-19>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위의 <표 4-19>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사례 지역축제는 축제의 성격면에서 생태환경축제, 관광문화축제, 농산물축제로 구별되고, 소재면에서는 나비와 환경농업, 이효석 문학과 메밀꽃, 찰옥수수로 분류되며, 개최 시기는 5월(봄), 9월(가을), 8월(여름)로 계절이 각기 다르며, 행사 주관도 나비축제는 함평 군청, 효석문화제는 민간단체, 찰

표 4-19. 사례 지역축제의 주요 현황, 2004

|                  | 함평 나비축제              | 평창 효석문화제            | 홍천 찰옥수수축제            |
|------------------|----------------------|---------------------|----------------------|
| 축제 성격            | 생태환경축제               | 관광문화축제              | 농산물축제                |
| 소재               | 나비와 환경농업             | 이효석 문학과 메밀꽃         | 찰옥수수                 |
| 개최시기             | 5월                   | 9월                  | 8월                   |
| 행사 주관            | 군청                   | 민간(효석문화제위원회)        | 공공기관(옥수수시험장)         |
| 축제 예산<br>(2003년) | 약 6억6천만 원            | 약 2억 원              | 약 7천8백만 원            |
| 주제               | 환경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축제 | 문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향토문화축제 | 찰옥수수의 홍보와 명품화를 위한 축제 |

옥수수축제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소요 예산과 주제 등도 각기 다른 성격의 축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기 성격이 다른 사례 지역축제가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 또는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함평나비축제는 생태 친환경적인 이미지인 나비를 이용해 환상과 동심을 자극한 마케팅과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지역이미지 마케팅 전략이고, 평창 효석문화제는 이 지역출신 인물인 이효석과 그의 문학작품 배경인 봉평의 메밀꽃밭 재현, 옛날 장터의 복원, 메밀음식 개발, 이효석 문학관 건립 등 사라져가는 향토문화의 복원,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조직간 연계 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문화와 감성이미지 마케팅이 그 주요 전략이다. 마지막 찰옥수수 축제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 하나인 옥수수를 여름철 별미로 특화해 지역대표 농산물로 브랜드화했다는 점이 핵심 전략이라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함평 나비축제는 경제활성화 측면과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평창 효석문화제는 사회·문화적 효과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홍천 찰옥수수는 축제 자체가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이기 때문에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하지만 사례 지역축제가 한편으로는 지역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역활성화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사업이다.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력과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투자에 대한 효과는 제대로 평가된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4-20. 사례 축제의 영역별 농촌지역 활성화 영향

|                                                      | 함평 나비축제                                                                                                                                                                                                 | 평창 효석문화제                                                                                                                                                                       | 홍천 찰옥수수축제                                                                                                                            |
|------------------------------------------------------|---------------------------------------------------------------------------------------------------------------------------------------------------------------------------------------------------------|--------------------------------------------------------------------------------------------------------------------------------------------------------------------------------|--------------------------------------------------------------------------------------------------------------------------------------|
| 경제<br>성<br>화<br>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102억 원(관광객 지출액)</li> <li>• 관광수익의 증대로 경제적 수익 증가</li> <li>• 생태자원의 복원과 환경농업을 통한 소득개발 향상</li> <li>• 지역의 관광개발사업 투자의 증대</li> <li>• 지역자원을 이용한 농업벤처산업 활성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90억 원(관광객지출액)</li> <li>• 관광객의 증가로 높은 관광소득</li> <li>• 메밀의 생산과 가공판매를 통한 소득 향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찰옥수수판매량 증대 (2004년도 찰옥수수 판매액은 77억원 정도임)</li> <li>• 옥수수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로 소득 증대 효과</li> </ul> |
| 사<br>회<br>·<br>문<br>화<br>적<br>효<br>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높은 성취의식</li> <li>• 관광의 불모지에서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변모한 것에 대한 높은 자긍심</li> <li>• 남도소리와 농경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인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애착심</li> <li>•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성취동기</li> <li>• 주민들의 문화활동 증가로 주민의 화합과 단결심 증대</li> <li>• 지역내 문화 예술인과 단체의 유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민·관·공공기관간 신뢰와 유대 강화</li> </ul>                                                          |
| 환경<br>및<br>지<br>역<br>이<br>미<br>지<br>개<br>선<br>효<br>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평의 대내외적인 친환경이미지 제고</li> <li>• 생태학습의 관광명소화 고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효석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부각</li> <li>• 메밀꽃을 이용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지역이미지 각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찰옥수수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특산물이미지 제고</li> </ul>                                                        |

주: 관광객지출액 및 찰옥수수 판매액은 외부평가보고서 또는 자체 집계 자료임.



초기 축제의 성공에 과신한 나머지 무리한 지역축제의 확대 재생산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축제로 인한 환경파괴와 난개발의 문제이다.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세계 최대라는 철쭉민둥산 등에 대해 일부 주민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함평군의 친환경적 이미지로 인해 현재 일곱 개의 골프사업장이 투자되었거나 투자할 계획인데 골프장이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더라도 주민들의 경제적 활성화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 효석문화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효석문화제의 배경이 되는 봉평면 소재지 일대와 이효석생가, 이효석문학관 주위가 최근 음식점, 모텔, 펜션 등의 난립으로 인해 아름답고 서정적인 메밀밭 경관이 훼손되고 있고 메밀밭조성도 낮은 보상금(직불제)으로 인해 재배 확대에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평창 군청 차원에서 이 지역을 경관보전특별지구지정(가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계획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직불제를 확대해 메밀밭을 잘 보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난개발의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사례 지역축제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에는 지역성이 결여된 나비브랜드인 ‘나르다’를 지역성과 결부(지역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된)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함평의 토산품판매와 연계시키고 나비축제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판매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효석문화제도 축제의 핵심 소재인 메밀꽃조성이 확대되고 축제 기간 동안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무이예술관, 덕거예술인촌, 오페라학교 등 지역내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조직 등과 장기적으로 어떠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찰옥수수

축제는 현재 3일인 축제기간을 수확기에 맞춰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 축제 장소의 명확한 설정과 옥수수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상징물 구축, 축제 개최시 옥수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의 소개와 홍보, 국내 다른 지역과 중국산 옥수수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과 차별화, 옥수수 벨트를 조성하여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통한 축제의 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제 5 장

# 사례 지역축제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사례 지역축제가 농촌지역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제 4장에서 사례 지역축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 비교·검토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지역축제들은 일반적으로 지역활성화에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사례 지역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히 어떠한 점들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밝혀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지역축제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좋은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 1.1. 지역축제 추진 주체

일반적으로 지역축제의 행위 주체는 민간조직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한다고 하지만 사례 지역축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간 사례로 축제를 누가 주관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열

마만큼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도하는지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전형적인 관 주도의 축제이지만 현재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지역축제가 역사적으로 근거가 미약하고 최근 들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격하게 늘어 초창기에 민간부문에서는 많은 제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작했고 축제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주도의 지역축제위원회가 나서서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최근 여론 등에서 우후죽순처럼 난무하는 지역축제를 ‘축제공화국’이라고 혹평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통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축제시 행정기관의 대규모 인력동원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행사에 지역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은 일견 인지상정으로 치부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잦은 전시성 행사로 인한 행정공백과 비관련 분야의 인력동원은 지역축제의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다음 <표 5-1>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축제 담당자는 지역축제로 인해 93.8%가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아주 많은 부담을 느낀다’도 66.7%로 나타나 지역축제로 인한 일선 담당자들의 고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지역축제담당자의 지역축제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

단위: 명, %

| 구분          | 도농통합시      | 군           | 전체         |
|-------------|------------|-------------|------------|
| 아주 많이 느낀다.  | 40 ( 60.6) | 89 ( 70.1)  | 129( 66.8) |
| 약간 느낀다.     | 22 ( 33.3) | 30 ( 23.6)  | 52( 27.0)  |
| 보통이다        | 4 ( 6.1)   | 8 ( 6.3)    | 12( 6.2)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          | -           | -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          | -           | -          |
| 합 계         | 66 (100.0) | 127 (100.0) | 190(100.0) |

주: 위 결과는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지역축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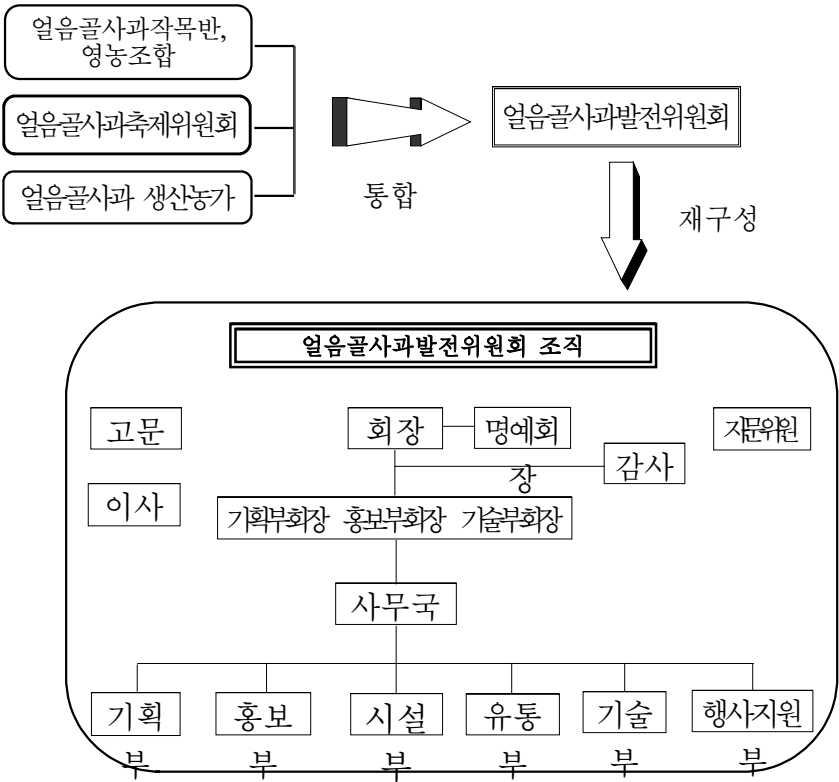
이러한 의미에서 작지만 내실있는 대안적인 축제 주관조직으로 밀양얼음골사과축제를 주관하는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가 최근 증가하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지역축제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계기는 기존 사과축제위원회는 대표성이 아니라 홍보성이었다는 점과 기존 얼음골사과축제위원회와 사과 관련 단체간 조직의 이원화로는 점점 확대되는 역할에 대처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sup>71</sup> 따라서 기존의 축제위원회와 4개의 사과생산단체를 통합하여 2003년 8월 밀양얼음골사과발전위원회를 창립하게 됐다. 이와 같은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1>과 같다.

#### <sup>71</sup>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구성 과정

- 2002. 07. 26: 얼음골사과박스 통일을 위한 생산자 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시작으로 박스 통일을 위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으며 각 생산자 단체가 하나의 박스디자인으로 통일하자는 뜻이 모아짐.
- 2003. 05. 03: 얼음골사과영농조합법인 총회에서 영농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스디자인을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통일이 결정됨.
- 이러한 박스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단체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3. 07. 19: 협의회 구성을 위한 생산자 단체 간담회 개최  
- 얼음골사과축제위원회 총회에 협의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기로 함.
- 2003. 07. 24: 제6회얼음골사과축제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사과축제위원회가 해산되고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를 창립함.
- 2003. 08. 20, 08. 23, 09. 25 등 여러 차례 기획부 및 회장단 회의를 거쳐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됨.
- 2003. 09. 26: 임시총회 개최  
자료: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2003. 9.

그림 5-1. 얼음골사과발전위원회 조직화 과정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얼음골사과축제위원회는 작목반이나 생산농가와 어느 정도 연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효력은 축제기간에 한정되어 있어 지속성이 없었다. 그 후 얼음골사과 축제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지역이미지에 주는 영향이 점차 커지자 얼음골사과축제에 한정된 조직에서 벗어나 관련 조직들을 통합해 얼음골사과 발전에 필요한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얼음골사과축제를

비롯한 총괄적인 업무는 사무국에서 실행하고 얼음골사과의 발전을 위한 기획, 홍보, 시설, 유통, 기술, 행사지원 등은 하부 조직에서 지원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조직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존의 관행적인 축제의 조직과 틀을 깨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려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

## 1.2. 다양한 소재의 발굴과 관련부가가치 창출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생태관, 친환경농업관, 자연생태체험장, 세계 최대나비철쭉산, 곤충사육체험장 등 축제의 소재와 학습면에서 다른 축제의 추종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나비와 곤충을 이용한 소득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 관련 벤처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것은 군청 직원들과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평가시스템과 의사결정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저에는 지방자치단체단체장과 직원, 그리고 주민간 격의 없는 토론과 대화가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로 축제에 적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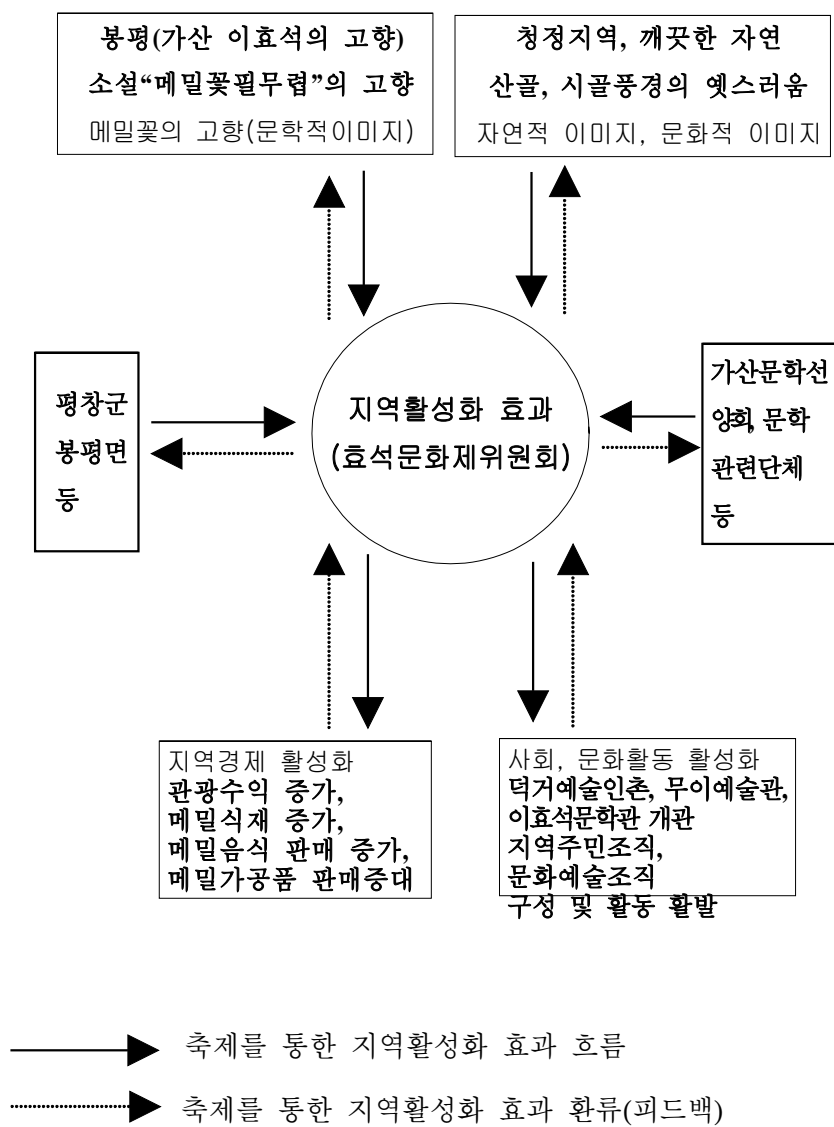
이와는 대조적으로 효석문화제는 순수 민간조직인 효석문화제위원회가 축제를 주도하면서 봉평 지역내 다양한 문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축제사무국이 축제가 이뤄지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누구라도 항상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과 밀착된 사회, 문화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효석문화관 건립으로 추모사업과 문학행사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메밀밭 조성도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sup>72</sup> 특히 효석문화제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강원도민속촌과 집필촌 건립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갈 정도로 그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순수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의 향토문화+인물+농산물 등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을 활성화해 가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축제에도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천군같은 경우에는 감소되고 있는 옥수수가 축제를 통해 일약 유망 작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는 옥수수와 관련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산업간 협력과 연계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 5-2>는 효석문화제의 사례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내 어떠한 연결망이 형성되고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체인(value chain)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개략도이다.

<sup>72</sup> 이효석 문학의 추모사업 중 하나로 이효석문학상이 제정되어 2004년 제1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이 선정되었다. 주로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상문학상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이효석문학상 작품은 주로 향토성이 짙은 작품이 주로 수상작으로 선정돼 문학계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5-2. 효석문화제의 지역활성화 영향 흐름도



### 1.3. 지역축제의 일관성 및 정체성 유지

최근 지역축제들이 종합축제로 변모되고 있는 반면, 성공한 축제들은 축제의 주제가 뚜렷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이 일관된 주제로 설정되어 방문객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의 고착화와 안정성을 각인시켜 준다. 사례 지역축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축제를 통해 함평하면 ‘나비’, 평창하면 ‘이효석과 메밀꽃’, 아직은 다소 미흡하지만 홍천하면 ‘찰옥수수’를 연상시켜 지역판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축제를 통해 얻어진 지역의 이미지와 지역활성화 효과를 지방자치단체가 과신하여 축제를 단순히 투자의 대상으로 판단해 지역축제를 오도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일례로 경북의 C축제의 경우 처음 민간에서 자연발생된 지역축제가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끌면서 크게 활성화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축제의 상설화를 시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축제의 상설화에는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한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투자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외주공사를 추진하다 결국 투자재원 문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자 그리고 공사대행업체간 내분으로 인해 현재 공사도 전면 중단됐고 관련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축제 자체도 이전의 명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sup>73</sup>

<sup>73</sup> 최근 감사원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축제 전용(예산 및 인력)에 대해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지역축제에 대해 처음으로 전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4. 11. 1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홍보를 위해 벌이는 지역축제가 즉흥적, 경쟁적으로 개최돼 지방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는 보조금과 예산의 변칙사용, 선심성 행사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인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를 통해 법령에 지원 근거가 미약한 축제는 줄여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축제에 대한 본질적 기능을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축제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활성화됐다고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부르게 판단해 최근 유행하듯 경쟁적으로 개최를 서두르고 있는 국제○○박람회, 세계○○엑스포 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함평군의 경우도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으나 여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귀기우릴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도 논하였듯 축제의 본질은 제의성과 유희성이다. 최근 들어 많은 지역축제의 본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현실적 목적에 맞게 변용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축제의 본질까지 변질될 수는 없다. 즉, 지역축제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어 이에 공감하는 방문객들이 찾아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외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전시하기 위한 축제는 어느 정도 흥미와 교육적 효과는 있겠지만 축제의 기본적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 1.4. 자립적 의지와 열정적 노력

성공한 축제들의 공통점은 인력이나 자금의 외부 의존 없이 처음에는 자립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출발하여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여러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협력이 자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지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가산문학선양회와 효석문화제위원회와 같은 지역 민간조직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준비하고 추진한 결과 일반 면단위 축제로는 수준 높은 축제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지역 축제를 초반부터 대규모 투자와 인력을 동원하는 지역축제의 형태는 결국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자원만 낭비되고 지역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만 손상되기 때문에 작지만 내실있는 축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규모화된 지역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축제의 본질인 마을주민들간 놀이, 문화적 사회적 가치전승, 공동체의식의 향상에 좀더 다가서기 위해 대안적인 움직임으로 작지만 내실있는 마을축제들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 오리쌀축제,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약사골 한방김치축제, 양평군 신론리 향토마을축제 등이 대표적이다.<sup>74</sup> 이들 축제는 도농교류를 통해 맺어진 도시민 회원들과 마을주민들간 공동체성 증진은 물론이고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와 가치의 회복 그리고 농특산물의 판매 증진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큰 규모의 축제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와 같이 작지만 내실있는 마을축제의 육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 2.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축제가 농촌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효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정의 대상으로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농촌관광분야에서 일부 지역축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농정의 대상으로서 지역축제를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체계를 두어 어떻게 지원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sup>74</sup> 이들 마을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오형은(2004)의 “사례를 통한 마을축제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 2.1. 농림부문 추천 지역축제 선정과 지원

현재 지역축제는 문화관광부의 사업대상으로 우수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라는 이름으로 선정하여 지원,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축제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실행되고 그 주체가 대부분 농촌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이 많은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농특산물 판매에 한정하여 축제를 통해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가 우수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발굴해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최근 농특산물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 유통체계에서의 농산물 판매 증진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지역축제를 통하면 현지 직거래는 물론이거니와 방문객의 구전이나 언론 등에 의한 농산물브랜드 홍보가 증진되어 판매 효과가 더욱 증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해 국내 농작물재배 면적이 큰 폭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농산물과 지역문화와 연계한 판매 촉진은 농업과 지역을 모두 살리는 상생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농림부의 전통식품 베스트5 선정 사업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sup>75</sup>

<sup>75</sup> 농림부의 전통식품 베스트5 선정사업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식품에 대한 가치 홍보와 판매 증진 효과를 가져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식품산업(전통민속주 포함)이 다른 부처 소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식품은 농림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2.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축제 적극 고려

정부는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공간을 과거 농업생산에서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에는 농촌관광육성형, 친환경, 기초소득보장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지역축제는 농촌관광육성형으로 특화해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선정과정과 세부 계획과정 그리고 시행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축제를 다루었지만 농촌지역에는 작지만 내실있는 축제도 많다. 이러한 축제의 효과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내용에 지역축제를 발굴하여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5-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축제는 농촌지역개발 추진에서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

표 5-2. 지역축제의 시·군 지역발전 추진에 대한 비중

| 구분                 | 빈도수 | 비율(%) |
|--------------------|-----|-------|
|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16  | 8.2   |
| 그저 그렇다.            | 51  | 26.3  |
| 약간 비중이 있다.         | 79  | 40.7  |
|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47  | 24.2  |
| 무응답                | 1   | 0.5   |
| 합계                 | 194 | 100.0 |

자료: 전국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 축제담당 공무원 설문 결과.

로 살펴보면 약간 비중이 있다가 40.7%,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24.2%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역축제는 농촌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농촌개발의 형태가 지역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클러스터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이 지역내 산재하는 개별적 사업주체들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력체계를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만드는 취지의 사업이라면 이러한 취지에 지역축제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제도 없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와인산업이나 이탈리아의 와인루트에서는 지역축제가 지역산업의 연계와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금산인삼축제와 같은 경우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내외간 네트워크의 형성이 강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추진시 지역축제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은 최근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특별법』이라 함)의 제정 및 시행(04.3.5 공포, 6.6. 시행)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 『삶의 질 특별법』은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기본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등의 수립의무를 규정(동법 제2장)하고 있고 지역축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조항은 동법 제31조로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삶의 질 특별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농산어촌의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향토문화 축제 발굴 및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관

광축제 발굴, 육성 및 연계패 투어체계 구축, 향토문화축제 지정, 육성 및 교류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다(농림부 2004).<sup>76</sup> 다음은 각 부처별 지역축제 지원 법적 근거 및 지원 현황에 관한 내용이다.

표 5-3. 정부 부처별 지역축제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 현황

|          | 문화관광부                           | 행정자치부                                  | 농림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 법적<br>근거 | 『관광진흥기금법』에 의한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규정 | 『향토자원개발촉진법』의 ‘향토자원개발’에 관한 규정<br>(계획 중)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의 향토문화축제 발굴 육성 지원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향토자원개발촉진’에 관한 규정 |
| 지원<br>내용 |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홍보 및 예산 지원         | -<br>(계획 중)                            | -<br>(계획 중)                                                                  | -                              |

주: 농림부의 『삶의 질특별법』은 농림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을 법령이다.

<sup>76</sup> 농림부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에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 『향토자원개발촉진』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향토자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토자원 중에서도 지역축제는 지역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삶의질특별법』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과 발전 체계에 대해서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즉, 농촌지역의 지역축제들이 각기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주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활성화된 지역축제,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역축제, 작지만 내실있는 지역축제, 농산물판매가 우수한 지역축제, 농촌경관 보전과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선정기준을 정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sup>77</sup>

표 5-4. 새롭게 축제개발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단위: 명, %

| 구 분                 | 도농통합시      | 군           |
|---------------------|------------|-------------|
| 지역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농업경관 | 10 ( 16.1) | 37 ( 29.6)  |
|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      | 21 ( 33.9) | 27 ( 21.6)  |
|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 10 ( 16.1) | 20 ( 16.0)  |
| 행사를 통한 경제적 수익       | 12 ( 19.4) | 22 ( 17.6)  |
| 주민의 참여와 화합          | 9 ( 14.5)  | 15 ( 12.0)  |
| 기타                  | -          | 4 ( 3.2)    |
| 합 계                 | 62 (100.0) | 125 (100.0) |

주: 설문은 지방자치단체 축제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임.

<sup>77</sup> 최근 새롭게 개최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지역축제 중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농업경관을 이용한 축제가 많다. 예를 들어 올해 처음 개최된 고창군의 청보리밭축제와 청원군의 생명쌀유채꽃축제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정감어린 풍경을 제공하고 찾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amenity)과 여유로움을 제공해 비교적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있다. <표 5-4>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경관작물을 이용한 지역축제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지역인 군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역축제 개발시 지역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농업경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크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영향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지역축제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축제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개최 현황에 대해 문헌자료와 문화관광부의 지역축제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지역축제의 기원과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농경문화의 세시풍속과 제천의식에 바탕을 두었으며 그 본질적 개념은 유희성(遊戱性)과 제의성(祭儀性)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의 지역축제 개념을 주기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행사로 일상적인 삶과 생활속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창조해 가는 생활양식화된 지역문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현재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555개 지역축제 중 농촌지역의 범위에 속하는 일반군지역과 도농통합시에서 개최하는 355개 지역

축제와 도시지역의 200개 지역축제에 관해 지역별 개최 수, 개최 시작 연도, 예산 규모, 방문객 수, 소재 유형을 비교·분석했다. 개최 수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많았고 개최 시작은 농촌지역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이후인 1990년대 후반에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시지역의 축제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두 지역 모두 3억 이하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의 소재유형으로는 도시지역은 지역문화와 전통(57.0%), 자연 및 동식물(20.0%)로 두 소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문화와 전통(29.6%), 농수산물(23.1%), 자연 및 동식물(27.0%) 등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지역축제 중에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들에 대해서도 그 현황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지역축제가 구체적으로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활성화 영향 측정 변수를 찾고, 사전 현지조사, 그리고 연구자문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 개의 지역축제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축제로 농특산물 또는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축제, 축제에 대한 주민참여가 높고 그 효과가 지역전반에 파급된 축제 그리고 소재가 참신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했다. 그 결과 유형별로는 생태환경축제인 함평 나비축제, 문화관광축제인 효석문화제, 그리고 농산물축제인 홍천 찰옥수수축제를 선정했다. 세 사례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의 범위는 지역활성화 영향 측정 변수를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세 가지 변수, 즉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영향으로 설정했고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

석, 설문조사(지역축제 담당공무원, 봉평면 주민), 심층면접 등이 이루어졌다. 사례 지역축제에 대한 각각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이다. (방문객 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해당지역의 평가 자료를 활용해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나비축제와 효석문화제의 관광객지출액은 각각 105억 원과 90억 원이었다. 축제 비용이 각각 6억6천만 원, 2억 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비용·편익으로 대비하면 나비축제는 15배, 효석문화제는 45배의 수익률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홍천 찰옥수수축제의 경우는 관광객 지출액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 기간동안 찰옥수수판매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소득 이외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한 애완용품 판매의 증가와 함평군 자체브랜드인 ‘나르다’ 상품들도 널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축제로 인해 함평군이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축제기간 이외에도 함평의 농산물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역 내에서도 친환경농업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면에서도 함평군의 친환경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 천연염색, 연 가공, 아이스홍시 같은 자연친화적 벤처기업들이 함평군으로 유입되고 있고 함평군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고 있다. 효석문화제 또한 관광객에 의한 직접수입 이외에 메밀의 생산과 가공판매가 증가해 농가, 가공업체, 음식점 서비스업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찰옥수수도 사라져가는 향토음식을 축제를 통해 건강식품(소위 웰빙식품)으로 부각해 판매량의 증가를 가져왔고 지역내 생산면적도 점점 증가하게 됐다.

두 번째, 지역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이다. 나비축제로 인해 함평군민들은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낙후지역이 생태관광의 중심

지로 변모한 것에 강한 자긍심을 느꼈고 주민 스스로도 강한 성취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해 농경문화와 남도소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반면 효석문화제의 경우는 이효석이라는 한국문학의 걸출한 인물과 그의 소설 작품의 한 소재인 메밀꽃에 대해 강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축제도 순수민간단체가 주도하고 거의 대부분을 지역주민들 자신이 직접 준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간 화합과 단결력이 높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모임들도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석문화제를 통해 봉평지역의 문화와 서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이 지역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외지의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덕거예술인촌과 무이예술관, 오페라 학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은 효석문화제를 보완해 지역 내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중앙 중심의 문화를 지역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에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홍천 찰옥수수축제같은 경우는 축제를 처음 기획하고 개최한 강원도농업기술원 산하 옥수수시험장과 옥수수생산농가 그리고 군청과 농협이 연대해 만든 협력체계는 다른 농산물축제에 좋은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영향이다. 사례 지역축제 모두 축제의 특색있는 소재를 이용해 지역을 알렸는데 나비축제의 경우는 함평군을 친환경과 생태관광 이미지를 고양시켰고, 효석문화제는 이 지역의 인물인 이효석과 메밀꽃이라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효과는 메밀꽃처럼 경관작물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고창 청보리밭축제나 청원 생명쌀유채꽃축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들 축제는 단순히 농작물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의미를 넘어 농작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향후 농림사업으로 시행될 경관보전직불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초기 성공한 지역축제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축제’와 ‘관광’의 혼동이다. 즉, 지금의 지역축제의 성공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제’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일시적인 ‘대안관광’으로서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은 시류에 민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함평 나비축제와 효석문화제 모두에서 발견된다. 초창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난개발식의 ‘관광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축제’가 지역활성화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시 ‘축제’를 기존 방식으로 ‘관광개발’화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나비축제는 전시위주의 축제 행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이 행사의 주체로서 그들의 삶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앞 장에서 설명했듯 축제의 본질은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제의성’과 ‘유희성’임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석문화제는 행사장 주변의 무계획적인 건물신축과 개발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효석문화제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확대보다는 지역 내 문화활동들에 대한 조정과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지역축제가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나 지역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이들 지역축제의 특성을 농촌지역 활성화에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축제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만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이들 지역축제

를 홍보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축제를 농림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는 미흡했다. 앞서 실증했듯이 지역축제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증대,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축제가 농정의 대상에 포함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농림부가 주축이 되어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04. 3. 5 공포, 6. 6. 시행)되었고 그 중 31조에는 ‘향토산업 진흥’에 향토문화축제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기 때문에 농촌지역 활성화에 영향이 크거나 향후 잠재적 가능성이 큰 지역축제(마을축제 포함)에 대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및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 지역축제가 농촌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지역축제가 농촌지역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농촌지역(도농통합시 포함)에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재 지역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축제를 통한 바람직한 농촌지역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설문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축제 담당자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꼭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문화관광 관련 부서 이외 실질적으로 축제를 기획 및 실행하시는 다른 부서 담당자 분들도 설문에 응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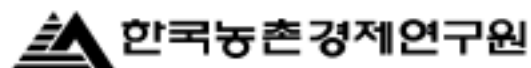
▲ 연락처 : 유승우 02-3299-4350 sewryu@krei.re.kr  
박경철 02-3299-4237 kcpark@krei.re.kr  
팩 스 02-960-016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소 : (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 응답자 지역 : \_\_\_\_\_ 도 \_\_\_\_\_ 시/군

□ 성 명 : \_\_\_\_\_ 전화번호: \_\_\_\_\_

□ 직 책 : \_\_\_\_\_





**Ⅰ. 일반 사항** ※모든 번호에 하나씩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어느 관련 담당 부서에서 일하십니까?**

- ① 문화관광                      ② 농림수산                      ③ 일반산업/경제  
 ④ 기획조정 및 총무              ⑤ 청소년/체육              ⑥ 축제추진위원회  
 ⑦ 기타 (                      )

**2. 귀 지역의 연간 총 축제 개최 수는 몇 개나 됩니까? (    ) 개**

**3. (2번 관련) 현재 귀 지역의 축제 개최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은 편이다.                      ② 적당한 편이다.  
 ③ 많은 편이다.                      ④ 기타(                      )

**4. 귀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시/군의 농촌지역발전(활성화) 추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약간 비중이 있다.                      ④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 귀 지역의 축제에서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이미지 제고    ②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③ 행사를 통한 경제적 수익                      ④ 주민의 참여와 화합  
 ⑤ 기타(                      )

6. 귀 지역의 축제 담당자들은 축제 기획 및 진행에 있어 업무상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아주 많이 느낀다.    ② 약간 느낀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 II. 지역축제의 농촌지역활성화 영향

7. 최근 각 지역에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본다.  
② 지역 간 축제의 중복과 지역 내 축제의 과다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③ 기타( )

8. 지역축제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반대한다.    ⑤ 아주 반대한다.

9. (8번에서 찬성할 경우) 그럼 어떤 식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축제의 개최 수를 줄이고 행사 자체도 줄인다.  
② 축제의 전체 행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개최수를 한 두 개로 통합하여 개최한다.  
③ 새로운 축제를 구상해 이를 중심으로 통합한다.  
④ 기타( )

10. 지역축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많은 지역에서 ○○축제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지역의 지역축제의 경우 이 위원회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 ① 활동이 잘 안되는 편이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약간 활동한다.  
④ 적극 활동하는 편이다. ⑤ 잘 모르겠다.

11. (10번에서 잘 안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운영 때문 ② 각 구성원 간 이해관계 때문  
③ 참여할 만한 동인의 부족 때문 ④ 경제적 시간적 여건 때문  
⑤ 기타( )

12. 귀 지역의 축제개최 결과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  
② 지역특산물 판매 홍보 및 판매의 증가  
③ 행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경제적 수익 증대  
④ 주민의 단결과 화합  
⑤ 지역 주민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의식 증대  
⑥ 기타( )

13. 귀 지역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 ① 문화예술축제 ② 전통민속축제 ③ 농특산물축제  
④ 종합축제 ⑤ 관광축제 ⑥ 기타( )

14. 축제 개최에 따른 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비용 부담은 어떻습니까?

- ①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다. ② 부담이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을 조금 느낀다. ⑤ 부담을 많이 느낀다.

15. 축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 주민이나 외부 방문객의 참여 저조  
②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의 어려움  
③ 축제 운영 재정의 부족  
④ 신문과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의 어려움  
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16. 귀 지역에서 최근 5년 내 중단하거나 통폐합한 축제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구체적인 예: \_\_\_\_\_)

17. (위의 1번 관련)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획 및 추진력 부족 ② 재정적 부담  
③ 지역 주민의 참여 부족 ④ 외부 방문객 참가율 저조  
⑤ 다른 지역축제와의 중복성 및 새로운 아이템의 부족  
⑥ 기타( )

18. 최근 축제의 경향이 지역의 농수특산물, 자연자원 등의 홍보를 활용한 경제적 수익을 위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귀 지역에서의 그 효과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연관산업        | 유/무<br>(해당0표) | 활성화<br>정도 |   |   | 구체적인 내용 |
|-------------|---------------|-----------|---|---|---------|
|             |               | 하         | 중 | 상 |         |
| 축제로고/캐릭터 개발 |               |           |   |   |         |
| 농림수산물       |               |           |   |   |         |
| 공예품 및 공산품   |               |           |   |   |         |
| 향토음식점 및 토산품 |               |           |   |   |         |
| 문화예술활동조직    |               |           |   |   |         |
| 시민사회조직      |               |           |   |   |         |
| 공무원조직       |               |           |   |   |         |
| 기타1 _____   |               |           |   |   |         |
| 기타2 _____   |               |           |   |   |         |

21. 귀 지역은 지역축제를 통해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에 ○ 또는 V표)

| 항 목                        | 거의 나<br>아 지 지<br>않음 | 별로 나<br>아 지 지<br>않음 | 그저 그<br>렇다 | 조금 나<br>아짐 | 많이 나<br>아짐 |
|----------------------------|---------------------|---------------------|------------|------------|------------|
| 귀 지역의 대외적인 역사 문화이미지        |                     |                     |            |            |            |
| 귀 지역의 대외적인 깨끗한 자연<br>환경이미지 |                     |                     |            |            |            |
| 지역주민들의 문화 역사 전통의식          |                     |                     |            |            |            |
| 지역주민들의 자연과 환경보전 의식         |                     |                     |            |            |            |
| 귀 지역 생산 농수특산물 브랜드이미지       |                     |                     |            |            |            |

### III. 향후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

22. 귀 지역이 향후 어떤 축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바라십니까?

- ① 문화예술축제    ② 전통민속축제    ③ 농특산물축제  
④ 종합축제        ⑤ 관광축제        ⑥ 기타

23. 귀하께서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전국의 지역축제 중에서 농촌지  
역활성화에 가장 이상적인 축제는 어느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명: \_\_\_\_\_ 이유 \_\_\_\_\_)

24. 귀 지역에서 새롭게 축제를 개발한다면 그 소재는 어느 것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에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특산물 및 향토음식      ② 수산 및 해양      ③ 공산품  
④ 역사적 인물      ⑤ 자연경관과 동식물      ⑥ 지역문화와 전통  
⑦ 역사와 유적      ⑧ 기타

➔ (구체적인 예: \_\_\_\_\_)

25. 귀 지역에서 새롭게 축제를 개발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지역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농업)경관  
②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      ③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④ 행사를 통한 경제적 수익      ⑤ 주민의 참여와 화합  
⑥ 기타( )

26. 지역축제를 통한 귀 지역의 구체적인 농촌지역활성화 사례(경제, 사회, 문화 등)와 지역축제를 통한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 귀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건의가 있으시면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 활성화 사례

---

## 2. 정책 건의

---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효석문화제의 봉평지역 활성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역축제가 농촌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효석문화제의 봉평지역 활성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는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일체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귀하의 성함이나 신상에 대한 어떤 내용도 알려지지 않을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시어 조사에 응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연 락 처 ☎

주 소 : (우) 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연구자 : 유승우, 박경철 전자우편 : kcpark@krei.re.kr

전 화 : (02) 3299-4237, 010-4783-7298 팩 스 : (02) 960-0163

|     |     |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주소  | 봉평면 | 리    | 마을 |





I. 다음은 효석문화제가 봉평지역 경제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표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 항<br>목         | 질문 사항                                        | 전<br>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그저<br>그렇다 | 약<br>간<br>그렇다 | 아주<br>그렇다 |
|----------------|----------------------------------------------|---------------------|-----------|-----------|---------------|-----------|
| 소득<br>증대<br>효과 | 효석문화제가 봉평면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효석문화제를 통해 귀하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소득 및 일자리 증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메밀을 이용한 다양한 소득원이 증대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메밀이외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소득이 창출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외부<br>투자<br>효과 | 지역의 고용창출이 증대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외지인들의 투자가 증대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관광<br>효과       | 축제를 통해 봉평면의 관광활성화가 증대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시 내지보다 외지 상인들의 수입이 증대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메밀<br>생산<br>가공 | 봉평면 농가들이 메밀재배로 인해 소득이 향상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메밀을 통한 다양한 음식 및 가공품이 개발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판매<br>효과       | 축제 이후 봉평산 농산물은 다른 지역산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장기<br>비전<br>효과 | 봉평면의 메밀재배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면 지역주민의 소득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면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면에 대한 외부의 관심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II. 다음은 효석문화제가 봉평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질문 사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그저<br>그렇다 | 약간<br>그렇다 | 아주<br>그렇다 |
|---------------------|-----------------------------------------------|-----------------|-----------|-----------|-----------|-----------|
| 지역<br>사회<br>관심      | 나는 축제 이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이호석에 대한 인물과 작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나는 축제 이후 봉석회, 가산문학선양회, 효석문화제 위원회 등을 잘 알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인구<br>변화            | 축제 후 외지인의 봉평지역 유입이 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후 외지에 있는 고향사람의 귀향이 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br>사회<br>애착<br>심 | 이호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효석문화제 이후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지역주민간 화합 및 단결심이 강화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봉평지역을 떠나지 않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나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화<br>활동<br>촉진      | 평상시 지역주민간 문화활동이 증가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봉평주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이 증대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시 공연 및 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면 내 문화마을 및 예술촌이 건립되어 문화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br>사회<br>신뢰      | 효석문화제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효석문화제위원회가 하는 일에 적극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효석문화제의 발전을 위해 효석문화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효석문화제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br>사회<br>협력      | 축제를 위해 평창군청과 봉평면사무소에서 적극 협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휘닉스파크, 허브나라농원 등 인근업체 등과 교류가 잦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로 인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간 갈등이 많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Ⅲ. 다음은 효석문화제가 봉평지역의 환경 및 지역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번호에 표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질문 사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그저<br>그렇다 | 약간<br>그렇다 | 아주<br>그렇다 |
|-----------------|-----------------------------------------------------------------|-----------------|-----------|-----------|-----------|-----------|
| 환경<br>보전        | 축제 이후 봉평의 청정한 자연환경 이미지가 높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봉평주민들의 자연환경인식이 증대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농가의 농약 및 비료살포가 줄어들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로 인해 봉평면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의 토지는 개발보다 보호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축제 이후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됐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중대규모 기업체의 투자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기업의 투자유치보다는 효석문화제를 통한 관광, 문화, 친환경농산물판매가 더 우선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지역은 현재 바람직한 발전 형태로 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br>사회<br>이미지 | 축제 이후 봉평면 농산물의 대외인지도가 높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은 메밀꽃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높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봉평은 이효석의 고향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메밀밭과 이효석은 봉평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IV. 개인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이상
4. 귀하의 직업 또는 근무지는?  
① 농업                  ② 일반소매점          ③ 음식 및 숙박업          ④ 공공기관  
⑤ 일반회사          ⑥ 주부                  ⑦ 학생                  ⑧ 기타(                  )
5. 귀하께서 상업에 종사해 종사하신다면 효석문화제로 인한 소득은 연평균소득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① 0~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⑤ 40~50% 미만                  ⑥ 50% 이상
6. 귀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월소득 계산이 어려운 경우는 연간소득을 열두 달로 나누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7. 귀하는 봉평면에 어떻게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① 봉평에서 태어나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  
② 봉평에 태어나서 다른 곳에 이주했다가 귀향했다.  
③ 봉평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해 왔다.  
④ 기타(                  )
8. (외지에서 봉평면으로 이주했을 경우) 효석문화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거의 영향이 없었다.    ② 별로 영향이 없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영향이 있었다.    ⑤ 매우 영향이 있었다.

~ **소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참 고 문 헌

---

- 강신겸. 2001.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인원, 고호석. 2002. “지방문화축제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경주 “한국  
의 술과 떡 잔치 2000”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27(2).  
지역사회개발학회.
- 고성보 등. 2001.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2001 제주 세계섬문화축제의  
경제효과 분석.” 『관광정책학연구』 7(1).
- 권자경. 2001. “지역축제의 유형별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학. 2003. “함평 나비축제 공간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주. 1998. “일본의 마츠리와 지역활성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8년도 학술대회자료집.
- 김유태. 2001.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 인식 - 청  
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김일철. 1994. 『일본농촌과 지역활성화 운동』. 나남출판.
- 김준. 2003. “환경축제의 실태와 가능성: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농  
촌사회』 13(1). 한국농촌사회학회.
- 김춘식, 남치호. 2002. 『세계 축제경영』. 김영사.
-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관측』. 학고재.
- 농림부. 2004a. 농림업 주요통계.
- \_\_\_\_\_. 2004b.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침.
- 류정아. 2003. 『축제인류학』. 살림.

- 매경이코노미. 2004. “신명나는 돈벌이 향토축제.” 1274.
- 문화관광부. 2003. 『문화관광축제 평가모형 개발』.
- \_\_\_\_\_. 2004. 『2003 문화관광축제 종합보고서』
- 민병호. “문화관광축제의 외래객유치전략: 문화관광부지원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10.
- 박경철. 2002.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간 지역사회친밀도 비교연구.” 서울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재. 2004. “홍천군 농산물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농산물축제와 연계한 농촌관광 마케팅 전략』. 강원농수산포럼 제30차 정기세미나 결과보고서.
- 박호표 등. 2001. 『충북지역 문화축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 부소영. 2003. “축제의 지역이미지에 대한 영향관련 내용분석.” 『관광연구』 27(2). 한국관광학회.
- 송미령. 2003. “농산물을 활용한 세계의 지역축제.” 농촌관광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orum.krei.re.kr>.
- 송희정. 2003. “지역의 장소 판촉을 위한 지역 브랜드 전략 특성에 관한 연구(함평군의 나르다(Nareda) 브랜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순환. 1999. “지역축제의 실재와 경제적 효과 : 이천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2(3). 한국관광학회.
- 오순환, 김대우. 2004. “농촌활성화 수단으로서의 마을축제.” 『농촌관광연구』 11(1). 한국농촌관광학회.
- 오형은. 2004. “사례를 통한 마을축제 활성화 방안.” 『농산물축제와 연계한 농촌관광 마케팅 전략』. 강원농수산포럼 제30차 정기세미나 결과보고서.
- 이병훈 등. 2000. “행토축제와 지역활성화.” 『도시정보』 221.
- 이석형. 2001.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관광개발 전략.”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규, 조현상. 2000.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화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연구』 24(1).
- 이정덕. 1998.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축제화 지역활성화; 지역축제와 지역정체성(-풍납제와 춘향제의 사례를 통해-).”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8년 학술대회자료집.
- 이정재. 1998. “한국 축제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이태희. 2003. 『축제브랜드경영론』. 대왕사.
- 이희찬. 2002. “축제참여자의 관광지출 결정요인.” 『관광학연구』 26(1). 한국관광학회.
- 정강환. 1996.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의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11(3).
- \_\_\_\_\_. 1999. 『이벤트관광전략-축제와 지역활성화』. 나남출판.
- 장병권. 2001. “한국지역축제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4.
- 조동기. 2000. “지방자치단체 산업축제의 특성과 활성화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훈. 2000. “19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행정논집』 12(4). 한국정부학회.
- 조홍윤. 1995. “한국적 향토축제의 정립.” 『민족과 문화』 3. 한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평창군. 각연도 『평창통계연보』.
- \_\_\_\_\_. 2003. 『제5회 효석문화제 평가분석 및 정체성 연구』.
- 한내창, 이성전. 1999. “공동체 친밀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공동발표문.
- 한을경 등. 1998. “문화관광축제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경기관광연구』 2.
- 함평군. 각연도 『함평통계연보』.
- \_\_\_\_\_. 2004. 『함평 나비축제의 지역경제 연계 방안』.

홍천군. 각연도『홍천통계연보』.

Kasarda, John D. and Moris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y Review* 39.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효석문화제. <<http://www.bongpyong.co.kr/>>.

평창군청. <<http://www.happy700.or.kr/>>.

함평군청. <<http://www.hampyeong.jeonnam.kr/>>.

함평나비축제. <<http://www.inabi.or.kr/>>.

홍천군청. <<http://www.hongcheon.gangwon.kr/>>.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764>>.



연구보고 R493

##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디자인 02-2273-1775 E-mail: [cree1775@yahoo.co.kr](mailto:cree1775@yahoo.co.kr)

---

ISBN 89-89225-86-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